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사례집

예술하는 사이

예술
하는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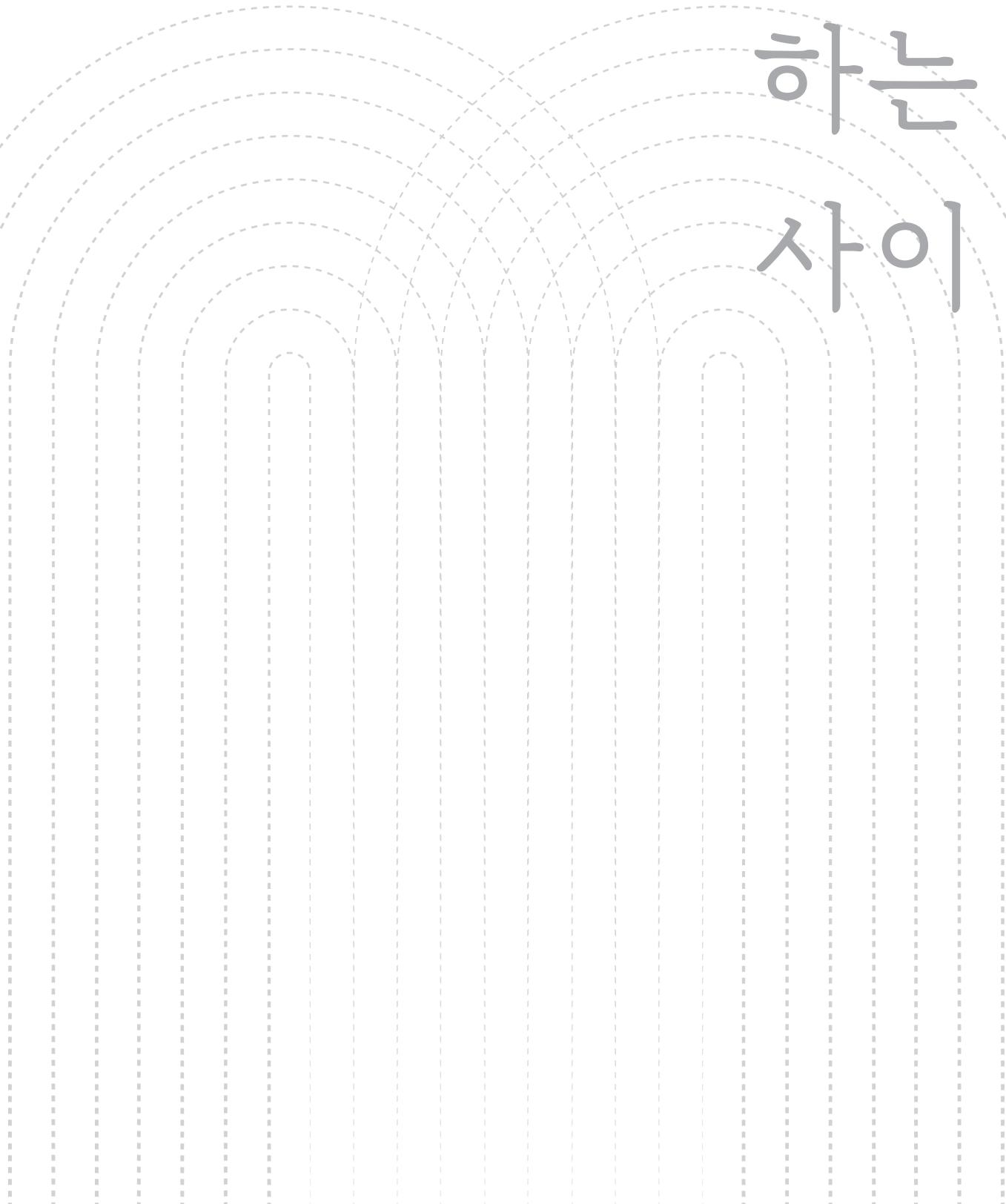
비매품/무료



13600
9 7911 9670 4049

ISBN 979-11-967040-4-9

예술
하는
사이



6~7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로)를 돌아보며

8~1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로) 소개

1. 예술로, 시작하기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단계별 들여다보기

만나다: 서로 다른 시선에서의 만남

- 16~19 기관, 예술인을 만나다 - 과천중앙고등학교
- 20~23 퍼실리레이터, 예술인을 만나다 -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
- 24~27 예술인, 참여자를 만나다 - 범숙학교
- 28~31 참여자, 예술을 만나다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함께하다: 협업하는 다양한 방식

- 32~35 기업의 필요와 예술인의 호기심이 만날 때 - 서울프린팅
- 36~39 여성 인권, 노래로 알리다 - 강화여성의전화
- 40~41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 고추장익는마을
- 42~45 예술로 생태를 가까이 -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문화관
- 46~49 난관을 넘어 결과를 엮어내기 - 국립중앙박물관

나아가다: 예술로를 넘어 확장하는 예술

- 50~57 문학을 다르게 읽는 법 - 청색종이 & 메타로그아트서비스
- 58~61 피자와 예술로 세상을 평화롭게 - 주식회사 피스앤피스
- 62~65 100년 후의 미래 - 시흥에코센터
- 66~69 예술로 휴식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 70~73 마침표가 아니라 그다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예술로, 관계맺기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공동체에서 하는 역할 살펴보기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과 예술인 - 임산

- 76~79 고민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 생각하기
- 80~81 예술로 환경 돌아보기 -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 82~83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세계의 변화 - 주식회사 보노보씨

어울리다: 나누고 채우기

- 84~89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본다 - 사진공간 배다리
- 90~91 우리가 만났을 때 - 장애여성네트워크
- 92~95 바라보다: 서로 마주하며 공존 모색하기
- 96~99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난민 알리기 - 아디
- 100~103 예술을 원하는 우리 -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대화하다: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과 이야기하기

- 104~107 예술이 핑계가 되어도 좋다 - 사재산마을
- 108~111 곧 만날 우리의 이야기 - 삼돌이마을
- 112~115 다 함께 완성한 하나의 이야기 - 흥은청소년문화의집

치유하다: 예술로 힐링하기

- 116~119 예술로 리커버리! - 나들목바하밥집
- 120~123 이대로도 괜찮다 - 사단법인 공감인

3. 예술로, 뿌리내리기 — 예술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방법 이야기하기

	연대하다: 지역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확장하는 방법
122~127	지역과 아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예술 커뮤니티 - 강릉 지역 예술인 집담회
128~133	지인에서 동료로 함께 성장하기 - 인천 지역 예술인 집담회
	자리하다: 지역의 거점 공간에서 예술로의 거점 공간으로 진화하기
134~137	지역의 매개자, 예술가, 향유자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 - 초롱이네도서관
138~141	관심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법 - 무명서점
142~145	예술인의 진짜 이야기, 옆집 아저씨가 예술가래! - 깨북

연결하다: 흩어진 예술가를 한데 모으기

146~147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 롯데쇼핑(주)전주점
148~151	초보 퍼실리테이터의 월별 일지 - (주)호밀밭
152~155	지역의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예술: 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안태호

4. 예술로, 키우기 — 2019년 신설된 기획사업 알아보기

158~159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路(로) 기획사업 소개
160~167	기획사업 참여 예술인 175명과 함께하는 가상 간담회 - 주성진
	이어가다: 사업의 연속과 확장
168~173	예술, 공간을 풀어내다 - 필동2가 아키텍츠
	만들다: 또 다른 가능성 찾기
174~177	장애와 비장애, 소통과 협업 - 아티
	일으키다: 지역 아카이브와 예술인 협업의 새로운 방식
178~185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
188~189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현황 통계
190~198	매칭 일람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路(로)를 돌아보며

- 다채로운 만남을 향하여

숨 가쁘게 달려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년 사례집의 인사말을 적으며 한 해 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기획사업의 신설입니다. 기획사업은 예술인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기업·기관과 협업하고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사례집에서는 기획사업과 공모·협업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술과 예술인, 기업과 예술인, 예술인과 참여자, 환경, 장애, 시대, 치유, 지역, 연결 등 여러 관점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속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바라본 이유는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의 ‘만남’이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다채로움’의 연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역시 쉬이 단정할 수 없는 다채로움 그 자체입니다. 예술인이 비예술영역에서 예술적인 방법으로 협업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다채로움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 쟁킹’의 세계적 석학 래리 라이퍼는 “협조(cooperation)는 사실 시키는 대로 하거나 효율적으로 하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협력(collaboration)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협력 관계에서는 서로 감정이 오가고 논쟁적인 대화도 할 수 있다. 감정적 신호가 있어야 신뢰가 쌓인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기획, 공모·협업사업을 통해 1,001명의 예술인이 207개 기업·기관·마을과 만났고, 예술인 사이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때로 서로 감정이 오가고 논쟁적인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신뢰를 쌓고 ‘만남’을 한 차원 높은 보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영역과 비예술영역,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의 만남은 양측 모두에게 신선한 자극이자 각자의 영역에서 시야를 확대 및 심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명칭은 ‘파견’이지만 실제로는 ‘만남’이고 그 만남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의 만남일 뿐 아니라 예술인 간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술가치의 확산과 예술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됩니다. 물론 그 만남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충돌도 하나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예술협업활동을 통해 예술의 가치가 안팎으로 ‘다채롭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다채로운 만남과 협력으로 예술의 가치를 보여주신 모든 예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예술인의 행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희섭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路(로) 소개

사업목적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사회(기업·기관 등)와 협업하여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적 기회, 협업구조를 제시하여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고 이를 통해 문화, 산업, 경제에서 예술인의 가치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구조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공모사업, 협업사업 및 기획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 공모사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 및 기업·기관을 모집, 심의하고 매칭한 뒤 예술협업활동의 주제, 방향, 기획 및 실행단계를 자율적으로 협의·추진한다. 총 660명의 예술인, 124개의 기업·기관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 협업사업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업·기관·마을을 섭외하고 보다 구체적인 협업주제 안에서 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2019년에는 농협중앙회, 워터웨이플러스, 지역문화진흥원 여가친화기업이 연계기관으로 함께했으며 총 166명의 예술인, 47개의 기업·기관·마을이 협업사업을 진행하였다.

-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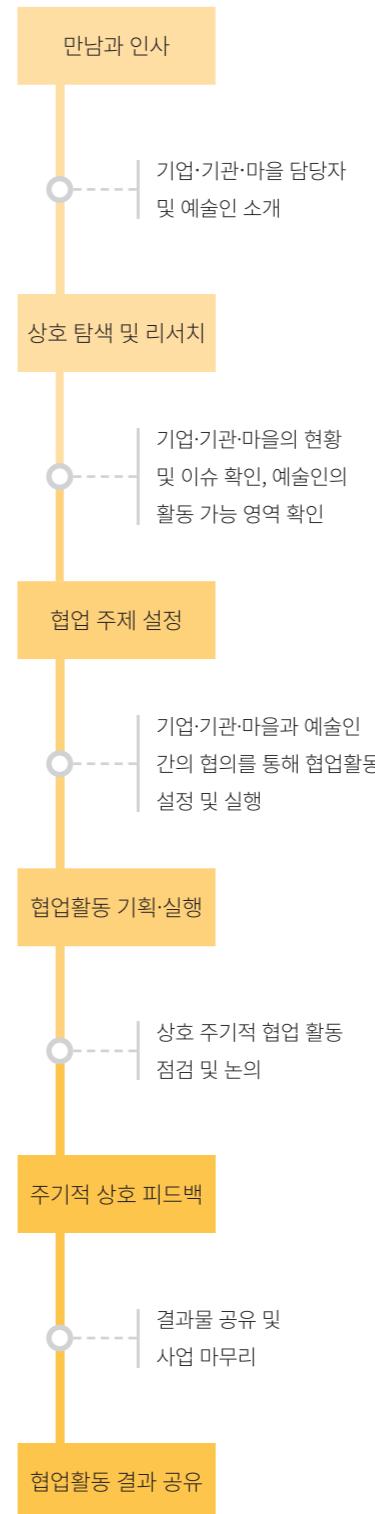
예술인 및 기업·기관이 팀을 이뤄 사전에 기획한 예술협업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총 175명의 예술인과 36개의 기업·기관이 기획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내용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의 공모·협업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매칭하여 최대 8개월간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며, 기획사업은 예술인과 기업·기관을 팀 단위로 함께 선정하여 6개월간 협업활동을 한다.

활동 기간 동안 예술인은 기업·기관·마을의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으며, 기업·기관·마들은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행사, 공연,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다.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는 1,001명의 예술인과 207개의 기업·기관·마을이 협업하여 활동하였다. 공모·협업사업은 퍼실리레이터 약 8개월(4~11월), 참여예술인 6개월(6~11월) 동안 기업·기관과 협업하였으며, 협업 농협사업은 리더예술인 5개월(7~11월), 참여예술인 4개월(8~11월) 동안 활동하였다. 기획사업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모두 기간(5~11월) 중 6개월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예술인의 활동비(퍼실리레이터·리더예술인: 월 130만 원, 참여예술인: 월 120만 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었으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공간, 회의비 및 재료비 등은 협의를 통해 기업·기관·마을에서 제공하였다.



2

- 퍼실리레이터 모집

- 2.20(수)~3.4(월) (579명 접수)

- 참여기업·기관 모집

- 2.20(수)~3.22(금) (192곳 접수)

- 기획사업 참여팀 모집

- 2.20(수)~3.18(월)

(183팀(885명) 접수)

3

- 퍼실리레이터 심의 결과

- 1차심의

3.14(목) (209명 선정)

- 2차심의

3.28(목) (최종 131명 선정)

- 참여예술인 모집

- 3.21(목)~4.1(월) (1,714명 접수)

- 기획사업 심의 결과

- 1차심의

3.29(금) (60팀(292명) 선정)

- 2차심의

4.5(금) (최종 37팀(182명) 선정)

4

- 퍼실리레이터 워크숍 및 직무교육

- 4.22(월)~23(화), 바비엥2교육센터



- 참여예술인 심의 결과

- 1차심의

4.11(목) (700명 선정)

- 2차심의

4.29(월) (최종 587명 선정)

5

- 공모·협업사업
- 협업 농협사업
- 기획사업

5



- 참여기업·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만남의 광장

- 5.27(월), DDP 알림2관

- 참여(리더)예술인 모집

- 5.16(목)~5.24(금) (299명 접수)



-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1차)

- 5.3(금), 서울파트너스하우스

6



- 기획사업 오리엔테이션(2차)

- 6.4(화), 좋은공연안내센터



-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 (부산) 6.10(월), 감만창의문화촌

- (대전) 6.11(화), 대전예술가의집

- (서울) 6.12(수)~13(목), 광화문아트홀

- 참여(리더)예술인 심의 결과

- 1차심의

6.12(수) (151명 선정)

- 2차심의

6.21(금) (최종 130명(리더 40명, 참여 90명) 선정)

7

- 리더예술인 간담회(총 4회)
- 7.24(수)~7.31(수)
- 모니터링(총 66회)
- 7.7(일)~12.5(목)



- 리더예술인 오리엔테이션
- 7.2(화), 예술가의집

8

- 참여예술인 오리엔테이션
- (서울) 8.1(목), 예술가의집
- (대전) 8.2(금), 대전예술가의집
- 지역 퍼실리레이터 및 리더예술인
간담회(총 4회)
- (대전) 8.3(토)
- (제주) 8.7(수)
- (부산) 8.9(금)
- (강원) 8.11(일)
- 퍼실리레이터 조별 간담회(총 12회)
- 8.14(수)~8.30(금)

9

- 리더예술인 간담회(총 5회)
- (서울) 9.23(월)~9.30(월) (총 3회)
- (청주) 9.27(금)
- (광주) 10.2(수)

10

- 공모·협업사업
- 협업 농협사업
- 기획사업

11

- 공모사업 활동 종료
- 기획사업 활동 종료(2차)
- 협업 농협사업 활동 종료

10

- 기획사업 활동 종료(1차)
- 사업개선 자문위원회(총 5회)
- 10.16(수)~11.20(수)

12

- 사업개선 집담회
- 12.20(금), (구)동송아트센터



예술로, 시작하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단계별 들여다보기

만나다: 서로 다른 시선에서의 만남

- 16~19 기관, 예술인을 만나다 - 과천중앙고등학교
- 20~23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을 만나다 -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
- 24~27 예술인, 참여자를 만나다 - 범숙학교
- 28~31 참여자, 예술을 만나다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함께하다: 협업하는 다양한 방식

- 32~35 기업의 필요와 예술인의 호기심이 만날 때 - 서울프린팅
- 36~39 여성 인권, 노래로 알리다 - 강화여성의전화
- 40~41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 고추장익는마을
- 42~45 예술로 생태를 가까이 -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문화관
- 46~49 난관을 넘어 결과를 엮어내기 - 국립중앙박물관

나아가다: 예술로를 넘어 확장하는 예술

- 50~57 문학을 다르게 읽는 법 - 청색종이 & 메타로그아트서비스
- 58~61 피자와 예술로 세상을 평화롭게 - 주식회사 피스앤피스
- 62~65 100년 후의 미래 - 시흥에코센터
- 66~69 예술로 휴식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 70~73 마침표가 아니라 그다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예술인을 만나다. 과천중앙고등학교

과천중앙고등학교의 노진영 교사는 올해로 교사가 된 지 12년 차인 베테랑 교사다. 노진영 교사는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예술기반 창의적 교육 과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예술드림거점학교 사업을 신청해 지원받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지역의 미술 기관과 연계한 수업을 모색하던 중 알게 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수준 높은 예술인들과 만나 창의성을 높이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을 갖기를 원했다. 과천중앙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기관), 선생님(기관 담당자), 학생(참여자), 그리고 예술인들이 조우한 순간을 들여다본다.

* 인터뷰이

노진영 교사, 정기훈 퍼실리테이터



과천중앙고등학교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일반계 남녀공학 공립 고등학교로 2000년에 개교, 2012년에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지정되었다. 학생 수 574명, 25학급으로 54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과천중앙고등학교

공모사업

정기훈(미술)

김병준(미술), 박해선(미술), 정순주(미술), 표영은(미술)



기관_예술인과의 첫 만남

만나다: 서로 다른 시선에서의 만남

사업과정 살펴보기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와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보고 싶었다는 노진영 교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과천중앙고등학교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처음 만나게 되었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후 학생들과 함께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퍼실리테이터와 참여예술인을 선정하였을 만큼 사업에 열의가 있었다. 예술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각 예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술 수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이니만큼 하나의 장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선정 이후 6월부터 함께하였다. 작가들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활동으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학교’의 한계, 교육을 넘어서 예술 작업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였다. 협업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닌 ‘작가님’으로 호칭을 유도하였다. 학교의 배려로 퍼실리테이터가 학생들을 1시간씩 먼저 만나서 작업을 보여주고, 궁금한 것을 알아가고,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도 가졌다. 6개월여간의 시간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왜 예술이 존재하는지 몰랐던 아이들은 예술의 가치를 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소통하였고, 예술에 관심이 적었던 선생님들과 함께 아틀리에를 만들었다.



과천중앙고등학교 노진영 교사



정기훈 퍼실리테이터

프로젝트의 결과로 9월부터 과천시민회관 갤러리(9.11~9.20), 스페이스 K(9.9~10.24), 과천중앙고등학교 아트스페이스(9.11~9.20)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답을 내리는 것이 최상의 교육이라 믿는 오늘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세한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술 작업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그러나 각자의 편견을 깨고,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답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술은 언제나 흥미롭다.

노진영 교사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의 만남을 묻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지역 미술관 큐레이터로부터 소개받았다. 해당 미술관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기훈 퍼실리테이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과 예술인들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며 선정했다. 정기훈 퍼실리테이터가 작가로서 활동한 포트폴리오와 딱 다섯 줄만 쓴 지원서가 인상적이었다. 내용이 정확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예술인으로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만남의 광장’에서 자신에게 맞는 예술인을 찾는 노하우가 있다면?

퍼실리테이터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여했다. 물론 예술인들이 궁금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좋았다. 우리 사업에 맞는 예술인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관심 가는 예술인 목록을 함께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을 만나다.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

서울의 서쪽, 선유도 인근 양평동 일대 마을을 ‘선유마을’이라고 부른다. 선유도의 높은 봉우리가 고양이를 닮아 고양이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곳, 안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이 있다. 40년 넘게 거주한 선유마을 토박이인 배지훈 단장은 재활용 디자인, 축제, 마켓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선유마을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을 만났고 예술인들은 마을을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 인터뷰이
유병덕 퍼실리테이터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

재활용 디자인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 기업으로, 선유마을을 기반으로 각종 축제와 마켓을 열고 행사를 기획한다. 매월 진행되는 마켓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다른 콘텐츠로 구성된다.

선유마을을 더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마을에서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 (선유문화공방)	공모사업	유병덕(음악)	김정변지(영화), 김혜나(미술), 김호성(사진), 박소연(미술)

선유마을과의 만남, 그리고 예술인과의 만남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했다고 들었다.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과 매칭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배지훈 단장님이 해오셨던 사업을 보니 마을 축제 등 재미있는 것이 많았다. 또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명확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함께 새로이 도모해볼 열린 부분 또한 많았다. 단장님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같이 만들어 가보자고 해주셔서 오히려 힘을 더 얻고 ‘만남의 광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만남의 광장’에서 만난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매칭이 이뤄졌다.

이번에 함께한 예술인 중 세 명은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고 한 명은 2차매칭에서 합류했다. ‘만남의 광장’에서 만난 예술인 이름과 연락처를 모두 적어두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도 다 살펴보았다.

첫인상까지 빠짐없이 적어두었다가 배지훈 단장님에게 공유하고 그중에서 선정했다.

기업과 예술인이 처음 만나 협업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처음에는 단장님도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단장님은 이 동네에서 40여 년을 살았다. 동네를 오가면 모두가 지인이다. 영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주인공 같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일을 혼자 책임지고 진행하신다. 예술인과의 협업도 ‘디자인을 같이해보고 싶다’ 정도에



퍼실리테이터_예술인과의 만남

만나다: 서로 다른 시선에서의 만남

그쳤던 것 같다. 예술인과 함께 선유마을의 축제에 관해 이야기해보지 않겠냐고 내가 제안했고 예술인들이 선정되면 같이 새로운 일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마을을 알아가는 과정, 고양이 지도와 노프라이스 마켓

퍼실리테이터와 예술인에게 처음에 선유마을은 낯선 곳이었을 텐데 친숙해지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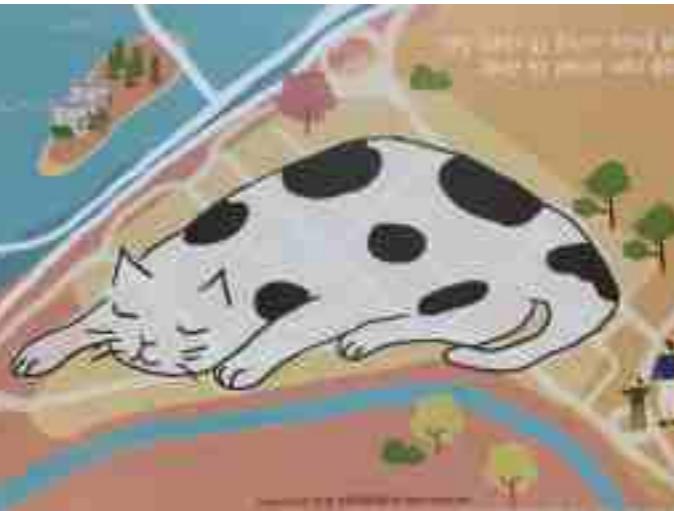
선유마을이라 하면 여기 주변 일대를 일컫는다. 단장님은 마을 지도를 직접 보여주며 세세한 곳까지 직접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동네를 함께 걸어 다니기도 했는데 하루에 다 둘러볼 수가 없어서 혼자 와서 틈틈이 동네를 다 돌았다. 그리고서 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대화가 훨씬 잘 통했다. 마을에서 발견한 사소한 특이점을 언급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장님의 술술 이야기해주셨다.

그렇게 마을을 둘러보고 나서 예술인들이 선유마을에 제안한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나.

선유마을에는 고양이들이 곳곳에 많다. 그래서 고양이가 마을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고양이 지도’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매달 하는 축제 중 하나로 ‘노프라이스 마켓’을 진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스스로 정해서 돈을 내는 것이다. 수익금은 기부하기로 했는데 준비하는 내내 걱정이 앞섰다. 사람들이 가치에 맞게 지불할지, 참여하는 사람은 많을지 걱정했는데 그에 비해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마켓과 캠페인 자체를 예술로, 퍼포먼스로 생각하고 해보자는 취지로 진행한 것인데 많은 분의 기부와 참여가 이루어져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은 다음에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확장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 예술인들이 기업에 무언가 남겨주는 유무형의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점이다.





박소연 참여예술인, 유병덕 퍼실리레이터

초보 퍼실리레이터의 활동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팀마다 협업 형태가 모두 다르다.

퍼실리레이터가 협업에 작업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본인은 어떤 성향의 퍼실리레이터라고 생각하나.

같이 회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모두 참여했지만, 원래 나의 예술 활동 근간인 음악 작업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조율하느라 바쁘기도 했지만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역할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작업 시간보다는 회의 기간이 길었기에 함께 회의하고 주제를 잡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낄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잘해주었다. 그런 부분이 좋았다.



사업을 진행하며 퍼실리레이터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회의 기간이 길었기에 그사이에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중에 무엇을 살리고 버려야 할지, 예술인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요구를 어떻게 잘 어우를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업의 본질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단장님에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단장님의 순수한 사랑을 처음부터 알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주로 음악 활동을 하다가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 함께 협업하며 개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실 처음에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스러웠다. 처음 만났을 때 각자 작업을 다 가져와서 공유하였고 직접 예술인들의 작업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참 잘했다고 느꼈다.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볼 수 있어서 자극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예술인들이 예술과 작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면서 새삼 충격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업에서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술인, 참여자를 만나다.

범숙학교

경남 창원에 위치한 대안학교인 범숙학교는 올해 예술인들과 팀을 이루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기획사업에 참여하였다. 예술 수업을 비롯해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 학교 환경미화 등을 진행하면서 학생과 예술인은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예술인들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친구로 남았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역으로 학생들을 통해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진정한 관계를 가꿀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

범숙학교, 기획사업으로 이어진 인연
범숙학교의 생활관 지도 선생님과 알고 지내던 예술인이 2018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예술인들의 봉사활동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함께 문학, 미술, 음악 수업을 들었다. 이를 계기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기획사업 팀으로 지원하면서 예술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참여 예술인 네 명 모두 이전부터 범숙학교와 인연을 맺어 학교의 특수한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구성원들끼리 근간에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하더라도 봉사활동으로 잠시 방문하는 것과 달리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면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인들이 가장 처음 시작한 과제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일이었다. 첫 번째 단계로 10대 후반 아이들이 관심 두는 분야를 파악하고자 했다. 우선 외모에 관심이 커질 시기라 치장하는 방법, 예를 들어 귀걸이나 팔찌 같은 장신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눈높이를 맞추니 아이들이 자연스레 모여들었다. 아이들 마음을 여는 일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수업은 미술이든, 문학이든, 어떤 특정한 장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이, 같이 웃을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범숙학교

경남 창원에 있는 도 교육청 지정 위탁 교육기관이다.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입거나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남 범숙의 집’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을 교육한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범숙학교	기획사업	최승일(미술)	송명희(미술), 이상호(문학), 최명희(미술)

예술인_참여자와의 만남

만나다: 서로 다른 시선에서의 만남



최승일 리더예술인, 송명희 참여예술인, 범숙학교 이승석 교장, 최명희·이상호 참여예술인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범숙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크게 예술 수업과 환경미화 그리고 학생과 예술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설치 작업으로 나뉜다. ‘예술인과 만남, 미친(美親) 데이(Day)’라는 제목 아래 진행한 수업에서는 예술인이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미래에 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미화를 주제로 한 활동에서 학교에 벽화도 그렸다. 또한,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7박 8일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느낌이나 생각을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으로 담아왔다. 이 나무판은 설치미술 형태로 학교에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봉사활동으로 합천군 적중면 정토마을을 찾아가 벽화를 그리며 마을 미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관해 예술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술인들이 먼저 나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 한 학생이 다가와 똑같이 그려봐도 되냐고 물었어요. 한 명이 오니까 다른 아이들도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 자료를 하나씩 골라서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땀이 샤워하듯 흘러내렸어요. 소나기가 쓰러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 페인트통을 들고 벽화 주변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풍경이 참 예뻤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두에게 추억으로 남은 순간이다.

학생의 변화, 예술인의 변화, 그리고 기관의 변화

학생들이 예술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니 예술인들도 달라졌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서는 과정에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진다고 예술인들은 말한다. 학생이든 혹은 다른 누군가이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존중할 때 관계의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 벽화 작업을 마치고 나서 예술인들에게 아이들은 말했다. “선생님, 우리 졸업하고 나면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와도 선생님은 여기 계실 거예요?” 예술인들이 계속 활동한다면 다시 함께하기 위해 오겠노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말은 감동 그 자체였다. 예술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기관도 얻은 것이 많다. 범숙학교 박영묵 교무부장은 아이들이 예술을 정의하는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자체를 기다렸다고 말한다. 잠깐의 만남이 아니라 관계와 교류가 길게 이어질 때 아이들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참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들이 숨겨온 감수성의 덩어리를 네 명의 예술인이자 선생님이 안아주고 키워주었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범숙학교 이승석 교장은 이번 활동이 씨앗이 되어 계속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가능하다면 범숙학교 이외 다른 학교들이 연계해서 활동을 만들어나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술인들의 재능이 더 멀리 퍼지기를 바란다는 말로 사업에 관한 소회를 전했다.



참여자, 예술을 만나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Ulsan ICT Promotion Agency, UIPA)은 직원들이 예술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업무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길 바랐다. 이를 위해 예술인들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로 예술에 관한 관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직장인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직원들이 매주 문학, 미술, 영상, 공예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체험하고 새로운 직장 환경, 노동과 예술, 힐링이 어우러지는 일터를 구현할 수 있도록 ‘UIPA 예술살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직원들을 위한 리서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예술체험활동 같은 워크숍으로 직원들이 예술과 친숙해지며 이로써 직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예술인들은 ‘UIPA 예술살롱’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기관과, 직원들의 예술에 대한 요구를 좀 더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술인들은 직장인들의 예술에 관한 관심과 장르별 활동에 대한 흥미, 연령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사전 리서치 작업을 계획했다. 기관 담당자 또한 리서치 작업으로 직원들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참석을 독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설문지에는 직원들의 기초적인 정보를 묻는 문항과 직장 내 예술체험활동에 참여한다면 선호하는 요일, 시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문학과 미술, 영상, 공예 등 장르별 선호도를 포함하여 각 장르 예술인이 추후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했다. 직원 46명 가운데 37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 담당자는 업무시간 중에 예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기관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었다.

UIPA 예술살롱

‘UIPA 예술살롱’이라는 제목 아래 7월 한 달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예술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가 수요일 오후였기에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개원하여 ICT 융합, 소프트웨어 및 문화 콘텐츠 등의 신산업 발굴,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하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다.



참여자_예술과의 만남

만나다: 서로 다른 시선에서의 만남

한 시간 동안 진행했다. 7월에 진행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각 예술 장르를 소개하고 직원들에게 향후 진행계획과 내용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술인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직원들과 만나 예술살롱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8월부터 문학·미술, 영상 제작, 공예체험으로 나누어 ‘UIPA 예술살롱’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설문 응답 중에 문학, 미술 장르에서 공통으로 그림책 관련 요청이 있어서 두 장르는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동영상 제작에 관한 관심이 많아 업무 매뉴얼 영상 제작과 유튜브 영상 제작으로 활동 방향을 계획했으며, 이후에 ‘직장 내 청렴’을 주제로 한 영상제작으로 방향성이 옮겨가기도 했다. 공예체험 프로그램은 매번 다른 공예 소품을 제작해 일정상 이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참여자가 설문조사에서 추상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응답했다면, 실제 예술살롱이 진행되자 참석 여부 및 내용과 관련하여 더 현실적인 요구가 드러났다. 이처럼 설문에서의 답변과 실제 직원들의 요구, 활동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서 ‘UIPA 예술살롱’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와 기관 담당자가 협의하며 융통성 있게 프로그램을 꾸려나가야 했다.

일상에서의 예술체험과 그 의미

업무시간 중에 예술체험활동을 배치하는 것은 기관으로서는 혁신적이고, 직원들에게는 유익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들에게는 기관 내 직장인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과 예술의 조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기관은 이윤 추구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기관의 사회적 역할 등에 시간과 예산을 투자할 만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기관 안에서 만난 직원들은 일과 시간 내내 업무에 쫓겨 예술이 파고들 틈은 없을 정도로 바빠 보이기도 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모사업	임순옥(문학)	김진국(영화), 신혜경(문학), 양우창(미술), 홍정희(연극)

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한 해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술인 매칭이 이뤄지고 사업 계획 속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조금 더 섬세하게 녹아들어 간다면, 기관 내 문화 혁신과 직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인들은 예술이 멀리 있다고 느꼈던 직원들이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을 향한 욕구가 자신 안에 잠재해 있으며, 예술 활동으로 자기 삶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랐다. 또한, 직장인들이 일하는 공간과 그들의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어나가는 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직장 내 청렴'을 주제로 한 영상 결과물



'직장 내 청렴'을 주제로 한 영상 결과물

기업의 필요와 예술인의 호기심이 만날 때 서울프린팅

기업·기관과 예술인의 다양한 조합만큼이나 협업의 색깔도 가지각색이다.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한 서울프린팅은 주로 상업용 인쇄물을 출력하는 기업이다. 대표는 지인 예술인의 소개로 사업을 알게 되었고,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의 출력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고 결과물을 아카이빙해보고 싶어 사업에 지원하였다. 서울프린팅과 매칭된 예술인들은 활동 기간 중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며 인쇄물을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웠다.

* 인터뷰
양현덕 대표, 이성준 참여예술인

서울프린팅

서울시 종로구 충무로에 있으며 현수막, 배너광고 출력물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서울프린팅	공모사업	조경재(사진)	이성준(사진), 이승주(사진), 임선구(미술), 전은숙(미술)

서울프린팅 양현덕 대표

사업에 참여한 동기가 궁금하다.

사진작가인 친구의 소개로 지원하였다. 무엇보다도 예술인과 함께 프린팅의 기술적 향상을 꾀해보고 싶었다. 사진 전문가인 예술인을 만나 함께 연구하며 전문적 지식을 축적하고, 반대로 예술인에게는 프린팅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진 프린트 공간을 구성하고 싶어 사무실 바로 옆에 공간을 따로 빌려두었는데 비어 있었다.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예술인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그 목적을 바꾸었다. 예술인과 모임의 장소이자 전시 공간으로 사용했다.

올해 사업에 처음 참여했는데 소회를 듣고 싶다.

우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신기했는데 나중에는 재미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예를 들어 출력할 때 잘못해서 B컷이 생기면, 보통 폐기하는데 주로 회화 작업을 하는 예술인이 이것을 활용해서 작업했다. 처음에는 잘못 나온 걸 이용해서 작업하고 전시한다니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본인 작품의 의도에 맞게 예술적으로 재해석해서 진행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었다. 프린팅의 경우 잉크의 양이나 섞이는 정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출력하는 종이가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 업체마다 기계가 달라서 여기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이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 축적이 필요했는데 예술인과 함께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중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예술인을 만나는 일에 부담을 느낀 적은 없다.

오리엔테이션 전까지는 많이 걱정했다.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계획을 짜고 예술인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기업·기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보니 예상과 전혀 달랐다. 성과를 꼭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예술인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었다.

다음에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향은 있다. 그런데 내년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임시로 전시를 하긴 했지만, 지속해서 전시 공간으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된다.



서울프린팅 양현덕 대표, 이성준 참여예술인

이성준 참여 예술인

협업 과정에서 예술인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전에도 참여 예술인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긴다. 사실 모든 사업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풀어가는 방법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다. 예술인에게 자유를 주고 전부 맡기면 갈등이 없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기 쉽지만,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할 때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프린팅은 기업이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면서도 풀어가는 방식이나 기타 파생된 프로젝트 등에서는 예술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어 좋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 예술인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뿐 아니라, 종이와 프린팅 방식에 따라 인쇄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가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현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예술인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풍족하게 지원해준 셈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어떤 기업·기관과 퍼실리레이터를 만나느냐, 팀원 간 호흡이 어떠냐에 따라 도움받는 측면이 다르다. 올해는 개인적으로 작가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팀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반대로 작가로서의 이력은 가장 부족했다. 특히 시각예술가로만 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팀원들로부터 예술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다.



공동 작업, <사다리타기> 전시 전경, 2019.10.05~10.11

여성 인권, 노래로 알리다 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음악치료사, 성평등 강사 등으로 구성된 노래 소모임 ‘어깨동무’는 기관을 알리기 위해 1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은 ‘어깨동무’의 공연을 함께 하였다. 단순히 활동가와 동호회의 만남이 아니라 강화여성의전화의 의미와 활동을 더 잘 알리자는 목표를 갖고 공연을 준비하였다. 강화여성의전화에는 더욱더 전문적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식을, 예술인들에게는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되었다.

* 인터뷰
권석린 퍼실리테이터

강화여성의전화를 만나다
기관 소개를 부탁한다.
강화여성의전화는 한국여성의전화 지부 중 한 곳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화여성의전화가 있는 강화는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다. 농촌과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아주 여성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강화여성의전화는 이러한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어깨동무’라는 소모임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지부 안에 ‘어깨동무’라는 노래패 소모임이 있다. 약 13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공연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노래극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함께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연극도 하지만, 무대감독을 해본 경력도 있어서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관과 퍼실리테이터 모두 이번에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는데 협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처음엔 서로 경계했던 것 같다. 탐색의 시간이 필요했다. 기관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노래극을 만드는데 지도해줄 선생님을 보내주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신청했다고 하더라. 사업의 성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보통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강화여성의전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여성의전화의 강화지부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주 여성 문제 등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강화여성의전화	공모사업	권석린(연극)	김이삭(연극), 박주연(연극), 양이배(연극), 전보람(무용)



권석린 퍼실리테이터
(장소 제공: 33market)

같이 일할 때 갈등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경우가 서로 오해하거나 편견이 있을 때다. 기업·기관은 예술인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예술인은 기업·기관이 예술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잘 해결해야 성공적인 협업이 이뤄질 수 있다.

공연을 만든다

‘어깨동무’에 관해 조금 더 듣고 싶다.

강화여성의전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최미란 센터장과 천봉남 대표가 시작한 모임이다. 성평등 강사, 목회자이자 음악치료사, 지역 아동센터장 등 여성과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다양한 분들이 현재 합창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의전화 회원이었다가 노래를 부르게 된 일도 있고, 노래를 부르러 왔다가 회원이 되기도 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

‘어깨동무’의 공연을 함께 준비했다. 공연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농록지 않다. 합창을 하더라도 곡마다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계속 바꾸어야 하고, 무대나 안무도 그에 어울리게 변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처음에 무대와 공간에 관한 수업을 다섯 번 진행했다. 이해를 넓혀야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강화여성의전화 관계자들과 직접 부대끼며 친해져서 신뢰감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깨동무’ 공연의 의미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의미가 있어야 하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공연의 목적과 의미를 함께 찾아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예술인들도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후 ‘공연이 끝난 후에 한 명이라도 후원자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목표는 이루었나.

처음엔 단돈 만 원이라도 후원금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뤄졌다. 관람객은 총 85명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도
모금하였는데 공연제작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있었다. 모두 함께
바라보았던 목표를 이룬 것이다.

예술인이 얻은 것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니 고무적이다.
예술인으로서는 이번 활동에서 무엇을 얻었나.

개인적으로 <닿지 않는 손>(2014)이라는 아주 여성의 폭력 피해
문제를 다룬 공연을 만든 적이 있다. 언론에 종종 나오곤 하지만,
실상은 더욱 처참하다. 아주민 가운데서도 아주 여성은 더욱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강화여성의전화가 그들을 돋는 기관이라 손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리고 스스로 페미니즘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간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편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고, 예술인들과 함께 연구모임도
가졌다.

그밖에 다른 변화의 지점도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전에 연극은 도심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사람이 어떻게
부대끼고 살아가는지 살피고 그 안에서 연극이나 예술이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술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관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해보기
시작했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작품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선보여지면 좋겠다. 지역에서 예술 프로그램이 많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부족이기도 하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잘
매칭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술을 누렸으면 한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공연을 해왔을 텐데 이번 공연에서
특별히 인상적인 지점이 있었다면 들려달라.**

'어깨동무'가 공연하면 온 가족이 다 함께한다. 남편들도 서로 다 안다.
서로 즐겁게 화목하게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가족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활동 자체가 이분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여성과 인권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고, 음악과 노래가 그분들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



'어깨동무' 공연 모습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고추장익는마을

협업 농협사업으로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함께한 고추장익는마을은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을에서 처음 예술인들에게 제안했던 것은 벽화 그리기였지만, 예술인들과 회의를 통해 마을의 유후 공간을 활용하여 함께 할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협업 방향을 선회하였다. 마을과 예술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마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브랜딩, 디자인, 홍보관의 미디어 아트 및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실을 보았다.

* 인터뷰
윤일석 리더예술인

마을 소개를 부탁한다.

고추장익는마을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사전 답사하러 갔을 때 인상이 좋았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았고, 현대식 건물로 조성된 슬로우 타운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순창 고추장이 만들어진 시원지이고 힐링 및 체험 중심 마을로 조성되어 있다. 마을 팀장님과 처음 만났을 때 예상과 다르게 비슷한 또래의 젊은 청년이 나와서 놀랐다. 열린 사고를 하고 있었고 현대 미술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어서 멋진 분이라는 인상이 남았다. 마을을 둘러보며 마을이 더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좋은 시설과 체험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고, 예술인과 만남을 통해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더욱 넓어지길 바랐다.

처음에 마을이 원했던 협업 방향이 있었지만, 예술인들을 만나면서 그 방향이 변화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

마을에서 최초에 원했던 것은 벽화 그리기였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벽화 그릴 장소를 물색하고 밑그림까지 진행했다. 그러던 차에 당시 마을에서 개발 중이던 라이스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마을을 오가다 보니 예술인들에게 자연스레 라이스칩 디자인과 제작 관련 아이디어 의뢰가 들어왔다. 이에 나는 순수함과 순창을 상징하며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순침’이라는 명칭을 제시했고, 마을에서 녹음한 소리를 이용하여 작곡한 곡 위에 마을 곳곳을 촬영한 영상이 움직이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했다. 전준모 예술인은 순침 홍보 배너와 케이스 디자인, 순침 상표 및 표지 등 전체 디자인을 맡았고

고추장익는마을

전라북도 순창 고추장익는마을은 잘 알려진 순창 고추장의 시원지로 숲 속 깊은 곳에 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과 계곡을 타고 물이 흐르는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어 고추장 만들기 체험과 고추장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한다.

참여마을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고추장익는마을	협업 농협사업	윤일석(음악)	박성수(미술), 전준모(미술)



박성수 예술인은 오랜 시간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의 특징을 담아 지도를 제작하였다. 예술인들 본래 작업과 재능을 살려 참여하여 더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 진행 중 판매를 시작한 ‘순침’이 전북기념품 100선에 선정되고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서 전북도지사상을 받는 등, 예술인들의 재능과 아이디어 그리고 마을 팀장님의 끊임없는 연구로 이루어낸 순침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며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협업 농협사업에 참여하며 느낀 소회가 있다면 듣고 싶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헤어지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다. 특히 예술인들은 자신만의 개성이 있기 마련이라, 이를 잘 풀어내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데 리더예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참여예술인 각자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각자의 개성을 잘 버무려서 예술적으로 시너지를 내면 협업으로 크고 멋진 일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본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는 예술인으로 이뤄진 어벤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협업 농협사업을 통해 낯선 곳에서 좋은 결과로 새로운 사업을 완성해나가면서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어떤 장소에서든 무궁무진한 일을 펼쳐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예술로 생태를 가까이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문화관

낙동강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끝자락에 위치한 하중도인 을숙도는 매년 겨울 철새들이 찾아와 머무는 ‘도심 속 자연의 공간’이다. 부산시 사하구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을숙도에 자리 잡은 낙동강문화관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다. 매주 토요일 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매주 다른 강사와 함께 매번 다른 강의가 열리지만, 더욱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혼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낙동강문화관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탄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낙동강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에코미술수업’을 진행한다. 미술의 형식을 빌려 문화관이 위치한 을숙도의 환경과 물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데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5분도 채 안 되어서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그런데 매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다 보니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수준이 달라지고, 매번 다른 주제와 소재를 발굴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낙동강문화관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4주짜리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 지도서를 만들기로 했고, 미술 및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으로 참여예술인을 구성하였다. 생태교육이라 하면 일반인에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예술이라는 단어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들기, 글짓기, 체험하기 등 다른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일반인에게도 환경과 예술이 일상에서 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이지영·정미형·김선화 참여예술인, 이선옥 퍼실리레이터, 이봉미 참여예술인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문화관

워터웨이플러스는 아라뱃길 시설관리, 마리나·관광·레저와 강문화관 운영 전문회사이다. 그중 낙동강문화관은 을숙도 낙동강하구의 생태 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전시,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12년 5월 재개관하여 부산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문화관	협업사업	이선옥(미술)	김선화(미술), 이봉미(미술), 이지영(사진), 정미형(문학)

(예술인-참여자-예술)

함께하다: 협업하는 다양한 방식

신선한 느낌의 생태교육 현장

낙동강문화관이 재개관할 때 근무를 시작한 이수정 학예사는 문화관이 자신에게는 매일 출근하는 일상의 공간이지만, 예술인들과 함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기관 담당자로서 그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예술인 본연의 영역을 살리고 창작의 영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수정 학예사는 예술인들이 낙동강문화관과의 인연을 계기로 주변을 돌아보고 생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평소에는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더라도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예술인과 기관, 그리고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가 환경과 예술을 새롭게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던 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을 소개한다.



“귀로 듣고, 물로 그려보는 낙동강 물속 세상” 프로그램 결과물



“강이 품은 생명들 '낙동강에 살아요'" DIY 키트

교육 프로그램

	제목	담당예술인	내용
1차	관찰한 풍경을 사진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그리기	이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사와 읊숙도(낙동강하구)를 산책하고 사진 매체에 관해 이해하기 - 읊숙도 풍경에 관해 이야기하고 조각난 풍경 사진에 그림 그리기
2차	모래섬에서 나랑 같이 놀아요	김선희 정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을 통해 낙동강하구와 모래섬 형성과정 이해하기 - 종이 접시에 섬과 바다, 강, 동물들을 표현하고 읊숙도의 다양한 동식물을 지키는 방안 생각해보기
3차	귀로 듣고, 물로 그려보는 낙동강 물속 세상	이봉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 프로그램 ‘기수역의 생물들’ 체험하기 - 낙동강 물속 물고기를 상상하고 친환경 거품과 마블링 물감으로 표현하기
4차	강이 품은 생명들 '낙동강에 살아요'	이선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Y 키트로 낙동강하구 풍경과 서식하는 동식물 알아보기 - DIY 키트를 채색하고 조립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 이해하기



“관찰한 풍경을 사진을 활용하여 재미있게 그리기” 프로그램 결과물



김선희 참여예술인이 “모래섬에서 나랑 같이 놀아요”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어린이들이 “모래섬에서 나랑 같이 놀아요” 체험하는 모습



낙동강문화관과 주변 전경

난관을 넘어 결과를 염어내기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인 사이 협업도 중요하지만, 기업·기관과 조율하는 일도 중요한 협업 과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를 다루는 곳이니만큼 기관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기관 담당자의 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하여 사업 이해부터 진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 퍼실리테이터와 참여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훌륭한 전시와 공연을 염어낸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를 소개한다.

* 인터뷰이

김민지 퍼실리테이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한국의 고미술품, 유물을 주로 소장하고 있다. 소장 유물 약 33만 점으로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박물관 중 하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국립중앙박물관	공모사업	김민지(미술)	신채경(연극), 이성준(음악), 이현지(미술), 정유미(미술)

국립중앙박물관에 매칭을 지원한 예술인이 많았다고 들었다.
참여 예술인 매칭을 결정할 때 기관과 어떠한 식으로 협의했는지 궁금하다.

참여 예술인들의 장르 구성에 관해 기관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사업 초기 기관은 니즈가 광범위했고 일단 복합적으로 많은 예술인과 협업만을 기대했다. 기관이 니즈를 구체화하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를 높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여러 자료를 통해 공유하고 제안하며 사업의 방향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것이 예술인 매칭 전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의 문화유산을 예술인을 통해 재발견하여 다채로운 스토리텔링으로 많은 관람객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우리는 그에 부합하는 문학가,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웹툰 작가, 공연자를 참여 예술인으로 선별하고자 했다. 지원자가 많아 결정이 쉽지 않아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 지원한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기관과 퍼실리테이터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또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물어가며 예술인을 신중하게 결정했다.

(기관-퍼실리테이터)

함께하다: 협업하는 다양한 방식

기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나가며 여러 단계의 협의나 절차가 필요했을 것 같다.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듣고 싶다.

기관은 6월 매칭된 예술인들을 만나 니즈를 전달했고 예술인의 의견과 제안을 반복적으로 주고받으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리해갔다. 기관과 예술인 양쪽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다가보다 예술인이 설득력 있는 실행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안하고, 기관은 평가 및 진행 여부를 내리는 방식이었다. 또한, 사업 담당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반려되면 새로운 계획서를 준비해야 했다. 이때 예술인들을 독려하는 일도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반까지도 기관과의 협업 방식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진행에 속도를 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 와중에 사업 초반부터 소통해오던 총 책임자 두 분이 갑작스럽게 연이어 인사 이동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부서 담당자와 예술인 모두 당황했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후반부에 들어선 시점에 자원 및 예산 축소가 논의되어 당황스러웠다. 다시 되돌아보아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진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예술인들의 동의하에 진행해오던 사안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황미숙 담당자님을 만나 예술인들의 의지를 진심으로 전달하고 계획안 검토 및 실행에 관해 도움을 요청했다. 황미숙 담당자님은 예술인들의 기대를 우려하시고 어려울 수 있는 지점에 대해 답해주셨다. 하지만 황미숙, 정유림 두 담당자님은 새로 오신 단장님과 과장님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다시 이해시키는 것부터 집행예산을 증액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알려주시는 등 다각도로 도와주셨다. 후반부에는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과 격려해주셨다. 두 담당자님이 많이 도와주시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민지, <호르는 빛>, 2019



정유미, <멈춰진 숨>, 2019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낸 설득의 전략은 무엇이었나.

협업에서 상대의 언어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의지 그리고 소통에 부합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움직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퍼실리레이터는 기관과 예술인 사이에서 설득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양쪽 관계를 이해하고 돋는 존재다. 또한, 기관이 추구하는 의견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예술인이 최종적으로 작품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정리해가며 기획하는 일도 중요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퍼실리레이터에겐 특히나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예술인이 기관과 협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경우, 일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개인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 활동에 임하도록 제안하고 활동의 의미에 관해 자주 대화를 나눴다. 모든 활동이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발현되길 바랐고 퍼실리레이터로서 진심으로 노력했다. 변수를 해결하기란 늘 쉽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기관과 예술인 그리고 나까지 더욱더 끈끈한 팀워크를 쌓았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모두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신채경 희곡 X 이현지 디자인, <극,접>, 2019



이현지, <산보>, 2019



김민지 퍼실리레이터, 국립중앙박물관 정유림·황미숙 주무관, 신채경·이현지·정유미·이성준 참여예술인



이성준 예세이 X 김민지 설치, <과거로의 산책>, 2019

문학을 다르게 읽는 법 청색종이 & 메타로그아트서비스

문학을 고독한 예술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영감을 활자로 담아내는 과정부터 독자가 그걸 읽는 시간까지, 홀로 만들고 향유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는 문학을 품는 다양한 방식을 제안한 곳들이 눈에 띈다.

1인 출판사 청색종이는 문학 이외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 만나 색다른 방식을 실험해보고자 사업에 참여하였다. 말놀이에서 시작한 리서치는 ‘시와전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문학을 소재로 단순히 읽고 쓰는 것에서 나아가 시를 해체해 재조립하고 전시를 여는 등 다양한 실험이 눈길을 끌었다.

* 인터뷰
김태형 대표

청색종이: 문학을 알아가기

김태형 시인이 운영하는 청색종이는 문학을 색다르게 감상하는 방식을 나눠보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문학 외에 다른 장르를 중심으로 참여예술인을 선정하여 문학을 감상하는 새로운 시선을 찾고자 하였다. 청색종이는 그간 근대 시인들의 시집을 복간하고, 수제 염색으로 책을 만드는 등 책을 경험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며 문학을 가깝게 느끼게 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기업 대표는 참여예술인과 만나 더 실험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길 원했다.

예술인들은 한데 모여 ‘문학에서 미술로, 미술에서 다시 문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노는 방식을 생각했다. 김태형 시인의 시를 인쇄해서 자르고, 섞어 늘어놓고, 시어를 선택해서 재조합하는 놀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은 한 명의 저자를 특정할 수 없고 함께 모여 만든 것이니 가상의 필자를 설정하여 책을 내보자는 아이디어로 발전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낭독회 ‘낭독증의 밤’이다.

낭독회는 청색종이에서 계속해오던 행사였다. 그런데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는 ‘시 대화’, ‘시 놀이’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낭독회를 진행하였고, 각자 관심이 가는 젊은 시인들의 시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시와전 프로젝트’로까지 연결되었다. 기업 대표가 남미 시인의 시집 제목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쓴 시를 소재로 하여, 예술인들이 떠올리고 만든 것으로 전시를 펼쳤다. 청색종이와 함께한 예술인 중 유일한 문학 장르 예술인인 소종민은 이미지를 다루는 예술인의 작업 과정이 문학 작가가 창작하는

청색종이

문래동에 있는 출판사 겸 서점이다. 김태형 시인이 운영하는 1인 출판사로, 다양한 편집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청색종이 인문학교’ 같은 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문인들의 문학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래동의 예술인과 교류하고 다양한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문화를 이끌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청색종이	공모사업	왕희정(미술)	강래오(미술), 나현정(미술), 서유진(미술), 소종민(문학), 이향안(미술)

나아가다: 예술로 넘어 확장하는 예술



청색종이 김태형 대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모양을 잡고, 색을 선택하고, 선을 그리는 과정이 시인이 조사 하나하나 비교하며 고민하는 과정과 비슷해 보였다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에도 전심전력하는 모습, 그것이 예술인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기업 대표와의 미니인터뷰 – 청색종이 김태형 대표

문학을 주제로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든 점이 인상적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문학 장르보다 시각 예술인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처음부터 결과를 예상한 것은 아니고 모여서 함께 궁리하다 보니 기존과는 다른 형태가 나왔다. 모여 있으니 이야기가 이어지고 여러 상상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놀다가 전시나 놀이의 형태로 만들게 되었다.

예술인들이 본인의 시를 해체해서 작업으로 만들어 전시하기도 했다. 작품을 자를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하다.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잘려 나간 것들은 단어 조각일 뿐이다. 그것이 원래 시였을 뿐이지, 사실 잡지에서 오려낸 단어라 해도 큰 상관은 없지 않은가. 대신 잡지에는 패션이나 혹은 해당 분야에 관한 용어가 많을 것이고 나의 시에는 시적인 단어가 있다는 차이 정도이다.

‘낭독증의 밤’은 진행 방식이 흥미로운 낭독회였다.

이전에 진행한 낭독회는 낭독 중심이라기보다 강좌나 독서 모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 이번 낭독회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시를 해체해서 새로운 시를 다시 만들었다. 마치 바둑을 두는 것 같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도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 그렇게 만든 시를 낭독하기도 하고 두 팀으로 나누어 겨루기도 했다.



시와전 프로젝트 중 <詩와 展> 전시 전경



'낭독증의 밤' 행사

메타로그아트서비스는 도시와 건축물의 관계를 고민하는 자율 영리 공간이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메타로그아트서비스는 인문학, 예술 도서를 판매하는 보안책방만의 특색을 표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여기에 현대미술을 융합하면 좋겠다는 예술인의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약 3개월 동안 시각작가 1명과 소설가 1명을 매칭하여 워크숍과 북토크를 진행하였다.

메타로그아트서비스(보안책방): 문학을 대하는 다양한 방식

독립출판물 및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책을 취급하는 작은 책방이 많아지면서 서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책과 관련된 행사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메타로그아트서비스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예술인들은 여러 서점을 함께 돌아다니며 리서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책방 운영자와 함께 논의하였다. 다른 책방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불필요하게 비교하여 과부하를 겪은 시기도 있었으나 산통 끝에 모두 정말로 원하는 책방의 모습을 찾아 나갈 수 있었다. 이후 북클럽을 총괄했던 김주성 예술인이 현대미술 워크숍과 북토크를 결합한 형태의 북클럽을 제안하여 보안책방 운영자와 예술인들은 북클럽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만들어나갔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매달 시각작가 한 명과 소설가 한 명을 매칭하여 워크숍과 북토크 형식으로 북클럽을 진행하였다. 그중 11월 북클럽에 <말 좀 끊지 말아줄래?>의 최정나 소설가와 김주성 참여예술인이 참여하였다. 북클럽의 마지막 행사이기도 했던 당시 북토크에서는 이 책의 독특한 서술방식으로 시작하여 마치 연극의 지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3자가 상황을 관찰하는 듯한 표현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북토크 전에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참여자가 롤링 페이퍼 형태로 문장을 조합하여 텍스트를 완성하는 작업을 했다. <말 좀 끊지 말아줄래?>와 연결할 수 있는 문장들을 제시하여 북토크 전에 책의 내용을 미리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었기에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주식회사메타로그아트서비스

도시와 건축물의 관계를 고민하는 자율 영리 공간이다. 숙박업 및 임대업, 책방 영업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협업과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경제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문화예술생산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영리사업을 통해 사회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룰모델이 되고자 한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주식회사메타로그아트서비스	공모사업	김다정(미술)	김주성(문학), 이소의(미술), 정현석(미술), 허나영(미술)

북클럽은 책을 읽은 사람도, 읽지 않은 사람도 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때로 사람들이 책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술은 멀리 있어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책을 통해 세상을 사유하고, 책을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노력 중 하나가 장르의 특정성에서 벗어나 다른 장르의 예술인이 가진 시선을 빌려서 낯선 즐거움을 누려보는 것이다.



11월 <말 좀 끊지 말아줄래?> 북토크 현장



<책의 책들> 전시 전경

11월 '문장과 당신의 문장' 워크숍 현장

피자와 예술로 세상을 평화롭게 주식회사 피스앤피스

피스앤피스 김세영 대표는 피자를 통해 문화를 퍼뜨리고, 사람들 삶에 다가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피스앤피스가 운영하는 치즈웨이브 시청본점은 소공동과 북창동 사이에 있어 젊은 회사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인연을 맺은 지 두 번째 해를 맞은 피스앤피스는 손님들에게 피자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직장인의 애환'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모인 손님들의 작품은 예술인들과 만나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파티 형식으로 열린 전시에서 예술인과 손님, 지역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다. 환상의 호흡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꾸린 기업 대표와 퍼실리테이터를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인터뷰이

윤하얀 퍼실리테이터, 김세영 대표

윤하얀 퍼실리테이터

간단한 자기소개와 기업 소개를 부탁한다.

나는 힙합 프로듀서로 재즈와 힙합을 섞은 음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한 피스앤피스는 피자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화를 가미한 프로젝트를 지향하여, 전시나 공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피자 안에 평화를 담아 사람들에게 피자 문화를 전파해나가겠다는 포부가 있다.

피스앤피스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다른 기업에 비해 피스앤피스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피스앤피스는 주 고객층인 직장인의 애환을 담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 및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다고 했다. 성과를 내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달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니즈를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가 먼저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더라. 아차 싶었다. 그때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준비했다.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손님이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그리고 그걸 받아서 작업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도 그때쯤 나왔다. 모은 그림으로 전시는 딱딱하지 않게, 파티 형식으로 디제잉과 티셔츠 프린팅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피스앤피스

피스앤피스는 이태원 UPP(Universe Peace Project, 우주평화기획)의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피자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의 행복을 만들고자 한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주식회사 피스앤피스	공모사업	윤하얀(음악)	김보배(미술), 도성일(음악), 박미옥(미술), 이정주(미술), 이현희(미술)

나아가다: 예술로 넘어 확장하는 예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유의미한 결과란 무엇일까.

사업의 측면에서는 기업·기관의 니즈를 예술인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낸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피스앤피스 대표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고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커뮤니티 아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이런 부분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의 음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하고, 기업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말이다.



윤하얀 퍼실리테이터





피스앤피스 김세영 대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작년부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던 한 작가님이 소개해주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작년에 그분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같이 협업도 하였다.

예술인들이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할 때

도리어 힘을 빼라고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기업·기관이 하고 싶은 것과 예술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나의 의견에 맞춰주려고 하더라. 기업으로서 감사한 일이지만,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의견에만 맞추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협업하려면 서로 친해지는 것이 우선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2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작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작년에는 미술과 영상 작가들 중심이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참여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 이번에는 음악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장르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참여한 예술인 모두 정말 열심히 해주어서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 열정에 나도 뭔가를 더 해야 할 것만 같았다.



피스앤피스 김세영 대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듣고 싶다.

장점이 많다. 우선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예술인의 시각으로 피스앤피스의 사업을 바라봐주길 바랐다. 예술인의 시선에서 보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파악하고 상업적인 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안을 받을 때도 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피스앤피스는 피자를 팔더라도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자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형태에 제약은 없다.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도 하고, 피자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을 돋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예술인들과 함께 만든 파티도 문화적 실천의 일환이 아닐까 싶다.



100년 후의 미래 시흥에코센터

시흥에코센터는 공공을 위해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바닷가와 오래된 염전을 매립하고 그곳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공장 지역과 주거 지역 사이를 길게 가로지르며 완충지대로 기능하는 녹지지대 근처에 시흥에코센터가 있다. 이곳은 설립된 지 3년 정도 지난 신생 기관으로 교육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따라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였다. '어서 와, 공연은 처음이지?' 출여서 '어공처'라는 극단을 만들고 시민과 예술인, 그리고 기관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 본문은 최정수 퍼실리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을 가상의 일자 형태로 각색한 것이다.

시흥에코센터

시흥시 환경정책과에서 설립한 환경교육 전시시설로 1층에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2층에 다수의 교육 시설이 있다. 평일 단체 방문객과 주말 개별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시흥에코센터

공모사업

최정수(미술)

권순미(연극), 유현주(연극), 정경미(미술), 정영신(연극)

나아가다: 예술로 넘어 확장하는 예술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2120년 어느 날'

연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문명인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여러 재앙이 발생한다.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난다. 주인공이 눈을 떠보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 시대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캡슐로 영양분을 공급받던 미래인은 원시인과 같이 갯벌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들이 먹는 쌀도 먹는다. 문명인과 원시인이 섞여 살며 생기는 충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왜 환경이 중요한지 질문을 던지고 연극은 끝난다.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환경이 파괴된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연극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시흥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시흥 특산물인 쌀이나 인근 갯벌의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했다. 아마추어 연극인들이니 내용 전개나 세부적인 요소는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 또한, 예술인들은 조명, 사운드, 영상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야기가 실감 나게 전달되도록 힘썼다.

드디어 11월 3일 시흥에코센터의 다목적 공간에서 공연이 열렸다. 관람객 절반은 사전 신청받았는데 빠르게 마감되었을 뿐 아니라 신청자 전원 공연장을 찾았다. 현장 신청도 마감되었을 뿐 아니라 자리가 없을 줄 알고 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다는 후문을 들으니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우면서도 아쉬웠다. 기관에서 지원한 예산이 총 500만 원 정도였음에도 관람객들이 하나의 큰 무대를 봤다고 느껴서 기관 담당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다.

이어서 11월 9일에는 시흥시 공장과 주거단지를 가로지르는 완충녹지인 곱슬누리숲에서 진행된 '예술로 누리는 하루' 사업에 공연단으로 참여하여 작품을 10분가량 줄여서 재공연하였다. 공연 자체가 환경에 관한 내용이고 시민 배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무대를 만들 수 있었으며, 덕분에 참여 배우들에게 소정의 출연료도 지급할 수 있어 기분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최정수 퍼실리테이터



예술로 휴식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상담부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시민들의 민원과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온종일 전화응대를 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기 어려운 상담사들을 위해 예술인과 휴식할 수 있는 예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예술이 휴식이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자.

프로그램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의자에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상담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을 참여예술인과 함께해보길 희망하였다. 담당 퍼실리테이터는 기관이 원하는 바는 존중하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예술교육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기관에 의견을 전달했다. 사전활동 기간에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선호하는 예술 장르만 우선 정해보았다. 크게 미술치료, 문학, 무용 3가지 분야로 나누었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난 예술인을 중심으로 매칭했다. 예술인이 선정된 이후 ‘예술로 휴식’이라는 주제 아래 내부 프로그램을 각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예술인 자율에 맡겼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

미술, 무용, 문학 장르를 기반으로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미술 프로그램은 대화 내용에 그림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유를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참여자들이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자는 것이었다. 녹말을 가지고 슬라임 놀이를 하는 등 잠시나마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보았다. 담당 예술인이 미술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에 참여자의 심리 상태를 간단하게 진단해보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질병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건강보험과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설립되었다.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및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이며 신청부서인 고객상담부는 서울고객센터(3개 위탁업체 400여 명)를 지원·운영하는 부서로 전화민원 해소를 통해 국민불편 최소화와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공모사업	이요안나(미술)	김수진(무용), 김지원(미술), 민지혜(미술), 심은정(문학)

나아가다: 예술로 넘어 확장하는 예술



문학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 스스로 예비 작가가 되어 글을 써보았다. 참여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두 시간 넘게 글쓰기를 이어갈 정도로 열의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무용 시간에는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하였다. 스스로 마사지하는 법도 알려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소리를 들으며, 향을 활용해 치유의 시간을 갖는 등 오감을 자극하여 감각을 일깨웠다.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

‘예술로 휴식’ 프로그램에는 서울고객센터를 구성하는 3개 협력사의 상담사들 96명이 참여했다. 근무시간 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배려해주어 참여자들 호응이 매우 높았다. 1기 이후 2기 모집 때는 커리큘럼을 수정해서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마감되기도 했다.

예술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본인이 하던 작업 외에 자신이 직접 해낼 수 있는 분야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예술에 대한 적극적 참여 의지가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용기를 갖고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또한, 누군가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분들의 일상에
예술교육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파장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희망과 쓰임을 떠올렸다.”

- 심은정 참여예술인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교감을 통해 오히려 예술인들이 격려와 휴식을 선물 받았다고 전한다.
예술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칠 때
참여자들이 예술을 통해 즐거워하고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경험이 주는 좋은 점은, 참여자들의 열린 마음, 워크숍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응원, 감사의 말들이 우리 예술가들의
자존감 향상과 열정,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 김수진 참여예술인

마침표가 아니라 그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한 기관이다. 자체 선거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1960년 중앙선거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굴곡진 한국의 현대사와 함께 걸어오며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기관 홍보뿐만 아니라 선거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선거 관련 사료를 예술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작업을 확장하여 일민미술관과의 공동기획으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모사업	박혜수(미술)	양경열(미술), 정윤선(미술), 조은하(미술), 홍유경(미술)

연속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한 예술인들의 이전 개인 작업



홍유경, <어떤 들판>, 2015



양경열, <Public Indifference>, 2019



조은하, <기억 소리_혁규>, 2017

나아가다: 예술로 넘어 확장하는 예술

정치와 예술 그 사이

참여예술인 선발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 학예사와 사료들을 함께 살펴보고, 강의를 듣고, 다 같이 토론하며 시간을 보냈다. 함께한 시간을 토대로 공동 작업과 개인 작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나갔다. 참여 기간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예술은 예술인의 생각과 철학을 풀어내는 활동이어야 하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향되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내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작품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예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료 자체에 시대성 또는 정치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향되어 보이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작품 활동에서 섬세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했다.

활동 초기에는 예정에 없었지만 25만 권의 사료를 함께 훑어나가며 공동 작업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2020 Election World Collection’, 표어 단어 사전을 만들었다. 포스터가 등장하면서 표어가 가진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예전 표어 중에 흥미를 끄는 것들이 많았고 이는 곧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작가마다 선거 사료, 정치잡지, 유튜브를 통한 설문조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단어 검색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여 현재의 가치가 반영된 단어 모음집을 만들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니 2,500개의 단어가 모였고 이를 다시 선별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약 25만 권에 달하는 사료를 보고, 토론하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이 사업이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작업이었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2020년 전시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료의 양과 가치, 2020년 국회의원선거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전시를 위한 기획자가 필요했다. 따라서 기관과 협의하여 일민미술관에서 전시와 기획을 맡기로 했다.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전시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공간이고, 시민이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광화문 광장 바로 옆이자 ‘정치 1번지 종로’라는 상징성이 더해지기에 기관과 작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기관과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참여예술인은 2019년 활동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극점에 있다는 정치와 예술 그 사이에서 고민한 예술인의 활동 결과는 오는 2020년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새일꾼 1948-2020: 여러분의 대표를 뽑아 국회에 보내시오> 전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윤선, <요코하마_그 욕망_순환 속의 도시>, 2017



공동 작업 <2020 Election Word Collection>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명화 주무관, 정윤선·홍유경·조은하·양경열 참여예술인, 박혜수 퍼실리테이터

예술로, 관계맺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공동체에서 하는 역할 살펴보기

76~79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과 예술인 - 임산

고민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 생각하기

80~81

예술로 환경 돌아보기 -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82~83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세계의 변화 - 주식회사 보노보씨

어울리다: 나누고 채우기

84~89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본다 - 사진공간 배다리

90~91

우리가 만났을 때 - 장애여성네트워크

바라보다: 서로 마주하며 공존 모색하기

92~95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난민 알리기 - 아디

96~99

예술을 원하는 우리 -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대화하다: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과 이야기하기

100~103

예술이 평계가 되어도 좋다 - 사재산마을

104~107

곧 만날 우리의 이야기 - 삼돌이마을

108~111

다 함께 완성한 하나의 이야기 - 흥은청소년문화의집

치유하다: 예술로 힐링하기

112~115

예술로 리커버리! - 나들목바하밥집

116~119

이대로도 괜찮다 - 사단법인 공감인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과 예술인

임산

영국 랭커스터대학에서 미디어미학과 문화이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9년부터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월간미술』 기자, 아트센터나비 큐레이터를 지냈다. 《미술과 건축의 만남: ‘사이’에 대한 탐구》, 《소리 공동체》 등의 전시회를 기획했고, 주요 저서로 『컨텍스트 인 큐레이팅 1』, 『청년, 백남준: 초기 예술의 융합 미학』, 『큐레이팅을 말하다』(공저), 『큐레이팅 사이와 변주』(공저),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공저) 등이 있다.

‘예술은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는 언명은 공동체로서의 사회의 해방을 향하는 인류가 오래도록 예술에 대해 품은 기대와 믿음을 대표한다. 이에 동반하는 일련의 개념과 원칙은 문화를 창조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예술적 실천이 질문하고 검증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은 예술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대의에 필요한 어떤 규정이나 모델을 당위적으로 명시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소통의 실천은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사회의 본질상 어느 특정한 모습으로 완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행형의 환경에서 예술은 전통적인 관습적 정체성이 제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와의 비평적인 상호성을 구축하며 문화적 삶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 복합적이면서도 대안적인 과정과 영역은 사회의 건설적 변화를 견지하겠다는 문화 정치적 의식을 키운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원동력으로 새로운 창안과 상상력을 가꾸어 나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바로 그러한 예술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구축함으로써, 예술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총체적이고 무한한 희망의 신념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는 공동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잠재된 긴급함과 유의미함을 드러낼 특유의 형식을 개발하는데 예술을 필요로 한다. 예술에서의 장르의 법칙과 그것의 미학적 소비의 관례가 개인과 지식의 권위에, 관조와 해석의 분별없는 도식에 기댈 때 사회는 예술을 대상화한다. 그때 예술의 아름다움은 공동체의 삶에서의 갈등을 특정한 ‘사건’으로 치환할 뿐이고, 예술과 사회의 존재론적 조건을 박제화할 뿐이다. 그렇기에 예술과 사회가 서로 이중구속의 형태로 관계한다는 시대의 긴장에 대한 의식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면밀한 행동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예술의

신화가 자기 증식하는 사회는 스스로 병적 징후들을 퇴적하며 예술과 사회의 상호적 조율 능력을 비효율적 운동으로 평하하는 데 익숙하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예술의 세련된 미학적 상징보다는 다소 투박하더라도 생동감 넘치는 대화와 협업의 관계 맺기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순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의 형식이 생활의 양식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문화 노동적 창의성이 개발되어야 한다.

2019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이 시대 공동체의 문화적 차원과 소통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한다. 그들은 자신이 예술인으로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창의적 기술과 정신을 공동체의 호혜적 삶과 연루시킨다. 그들에게 예술은 표현의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 공동체와의 대화 속에서 마법 같은 현실을 일깨우고 갈등과 소외의 환경을 대면하는 실천을 통해서, 예술은 인식의 노동을 체화하는 자기 갠신적 과정을 통해 수행적 단계로 발전한다. 따라서 경계와 주변의 힘을 빌려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불모의 상태를 지양하고, 어울리고 대화하는 변증적 노력을 중심에 두고 호흡하는 유기적인 운동체의 리듬을 지향한다. 이러한 모습의 예술은 단순한 호의적 관찰과 재현의 전형을 탈피하여, 사회의 총체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주시하는 예술인의 시선에 동반된다. 그리하여 예술인은 자신의 실천이 지니는 확장된 의의를 사회 속에서 확인하며 그 의지에 대한 문화적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사업에서의 예술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대화와 협업의 실천 속에서 민주적인 활력과 상상의 현재를 꾸려나가며 사회와의 소통을 도모한다. 그러한 행동적 의식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훈련경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문학, 음악, 연극, 미술, 영화, 무용, 사진, 디자인 등

각 영역에서 다져온 감성과 기교는 협신과 공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술인의 특징적 미디어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재료가 되고,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창의성을 개발하면서도 개선과 변화의 어젠다를 함께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형식들을 구성하게 된다. 이때 서로의 차이는 공동체 연대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역사의 보수적 규범이 만들어 온 관습의 거리감을 극복하는 밀거름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개방과 교류의 과정에서 예술인은 자신의 예술교육에서 익힌 창작의 방법론을 문화적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조직화하는 데 응용한다. 주류 예술계가 아닌 현실 공간에서 다듬어 가는 이러한 예술형식의 사회화는 형식 자체의 진보는 물론이고, 예술가 직업군의 문화노동 가치에 대한 공공적 인식을 안착시킬 ‘오래된 미래’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체 문화의 다면적 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한 예술과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회 참여적 예술인에게 요구된다. 세계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예술인의 인지 방식은 자신의 예술적 표현으로 의미 있는 혁신을 창출하려는 사회적 욕망을 지니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개인이 보유한 전문적인 형식의 카논을 초월하는 실험 속에서 집단적인 조직의 기획을 통해 새로운 미적 생명력을 생성할 수 있다. 본 사업에서 예술인은 공동체의 현재에 자신의 기술적 지식을 결합함으로써 서로를 참조하는 긴밀한 연관성 속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인 창작의 틀을 벗어나 공동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다양한 예술적 방법론을 공동체와의 대화와 협업 속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 사이 일종의 ‘공통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삶의 왜곡된 형태를 폭로하고 저항하는 활동적인 경험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공동체 문화를 예술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노동과 사회의식의 조건으로 전환하는 시도에서부터 예술의 사회적 소통 가능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예술인 복지 정책의 성격을 지니며 출발했다. 예술인은 공동체의 삶 곳곳에서 만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형성하고,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예술, 예술인의 역할을 다소 구체화할 가능성을 발견해 나간다. 이제 올 한해 그 결실을 정리하고 사업의 의의를 다시 돌아볼 시점이 왔다. 기존 예술 제도의 목적과 관심의 외곽으로 밀려난 공동체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자적 권위와 권리로서의 실체에서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대화한 예술인의 능동적인 실천은 분명 예술의 권위적 협의성을 극복하며 예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당대의 전략을 개발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창작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규율이 예술인의 문화 정치적 의식을 쇠락시키고 그 노동의 사회성을 애써 외면하게 했음을 인정한다면, 본 사업은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예술 관념 자체의 혁신을 추동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을 수 있다. 비록 국가의 기획으로 작동한 하나의 문화개발 체계이지만,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과 시민은 이미 체질화된 예술과 사회의 성장 메커니즘을 비판적인 연대의 시선으로 조망하는 의욕을 새롭게 내면화한다. 이는 예술과 예술인이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견인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성찰의 과제를 제시한다. 즉 역사에 흐르는 수많은 노동의 존재와 산물을 주목할 수 있는 예술의 힘을 환기하고, 예술적 실천과 그것에의 동참이 공동체 삶의 지평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음을 의식하게 한다. ‘예술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거창한 클리셰를 현실적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는 그 과정은 앞서 언급한 환기와 의식을 사회적 실천으로 체화할 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성찰은 이제 예술과 사회의 소통이라는 의제를 소박하고 도식적인 계몽적 제도의 틀과 그것의 공공적 가시화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소통’의 의도와 실천이 문화 정치적 깨달음으로 발화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화와 협업의 노력이 개인과 체계를 넘어 공동체의 낮은 곳에서부터 재구성되는 자생적인 비평적 행로로 돌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예술로 환경 돌아보기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굿바이카리싸이클링은 기존의 폐차장 및 폐부품 재생 판매업체와는 다르게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사업을 다방면으로 실시하는 기업이다. 친환경 이슈와 건강한 삶이 화두가 되는 이 시대에, 무언가 폐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재활용하여 되살리는 과정을 예술적으로 조명하고 지역의 삶과 함께 호흡하는 협업을 만들기 위해 여섯 명의 예술인이 함께하였다.

▣ 이슈 해결

굿바이카리싸이클링	폐차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폐배터리 재생상품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을 요청했다.
예술인	대량생산과 소비의 시대에 사라져가는 노동과 상품의 가치를 돌아보고, 건강한 소비와 재활용의 의미를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찾는 방안을 모색했다.

▣ 다각도로 바라보기

활동 방식:

- ‘폐차장 영화제’와 ‘폐차장 갤러리’ 프로젝트 진행
- 폐차장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기획
- 폐차장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설치미술 작품 전시



단편영화팀 활동 현장



폐차장 갤러리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폐차, 중고차, 중고 부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의 재활용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기획사업	문정현(영화)	강세진(영화), 김소희(영화), 박도영(미술), 이동열(영화), 정일건(영화)

고민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 생각하기

주요 내용:

구분	담당	세부내용
폐차장 갤러리	박도영	폐차 과정과 노동자의 일상을 기록해 폐차장 현장에서 미디어 프로젝션 전시를 진행했다.
영화모임	김소희	폐차장이 있는 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억’이라는 주제로 영화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했다.
홍보영상	정일건 이동열	굿바이카리싸이클링이 연구·생산하는 폐배터리 재생상품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단편영화	문정현 강세진	예술인들의 전체 활동 과정과 폐차장 및 본사 노동자들의 노동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 빛과 그림자,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

폐차장에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깨끗한 환경을 영위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폐차장은 오히려 꼭 필요한 곳이다. 예술인들은 친환경 폐차 및 재생산업에 집중하는 굿바이카리싸이클링의 활동을 알리고 폐차장을 지역의 혐오 시설이 아닌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 그리고 노동의 의미, 그 이면의 문제들을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번 협업은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를 극심히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세계의 변화 주식회사 보노보씨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를 먹이로 착각해 죽어간 동물들의 이야기는 이제 낯선 뉴스가 아니다. 심각성은 알지만, 막상 문제를 해결하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로 느껴져 지나치기 일쑤다. 사회적 기업 보노보씨는 가까운 일상부터 관심을 두자고 이야기한다. 지구 반대편 북극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의 분리수거가 우리에게는 더 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업 이후 주변 환경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두게 되었다는 예술인들의 소회를 통해 작은 습관에서부터 환경을 지키는 법을 살펴본다.



주식회사 보노보씨

문래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업사이클 관련 교육 및 사회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예술, 자원 순환 등에 관심을 두고 대중에게 환경문제를 알리며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주식회사 보노보씨	공모사업	박민수(미술)	김윤하(미술), 이우동(대중예술), 이예지(미술), 조혜주(미술)

▣ 이슈 해결

주식회사 보노보씨	환경 캠페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원 순환 캠페인 영상 콘텐츠를 예술인들과 기획하고 만들고자 하였다.
예술인	‘그린 히어로’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예술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였다.

▣ 단계별로 활동 쌓기

시작	“우리는 과연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출발 : ‘지구를 위해서’라는 거창한 난제보다 생활의 작은 습관부터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과정	문래동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기 : 보노보씨 측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해 알아갔다.
결과	‘그린 히어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보노보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보는 “플라스틱 로드”부터 자원 순환과 관계된 인물들을 찾아 인터뷰하는 시리즈물 “그린 히어로를 찾아라”까지 예술인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했다.
후기	추후 보노보씨에서 운영할 자원 순환 카페에서 조혜주 예술인의 비닐 뜨개 코스터를 전시 및 사용할 예정이다.



‘그린 히어로’ 캠페인 영상

고민하다: 지속 가능한 환경 생각하기

▣ 예술인들의 시선 – 환경에 관해 다시 생각해보기

“환경문제에 관해 시나리오를 준비하던 중인데 환경 관련 기업에서의 활동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다. 보노보씨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은 충분히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처리에 관한 고민과 해결 그리고 관련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이우동 참여예술인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환경문제에 훨씬 민감해져서 주변에도 알리기 시작했다. 추후 개인 작업 활동에서 환경문제를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도하게 되었다.” - 이예지 참여예술인

“평소 환경이나 동물권 이슈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번 기회에 보노보씨와 함께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지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환경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 일러스트나 벽화 작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계기를 얻었다.” - 조혜주 참여예술인



이예지·조혜주·이우동 참여예술인, 박민수 퍼실리테이터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본다 사진공간 배다리

사진공간 배다리의 이상봉 관장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은퇴를 준비하며 제자들을 위한 공간을 꿈꾸었다. 시각장애 사진가를 위한 전문 갤러리를 오픈하며 제자들을 중심으로 '잠상' 팀을 모아 함께 활동해왔다. 활동이 무르익어가자 사진 작업을 넘어 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방안을 찾던 중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만났다.

▣ 이슈 해결

사진공간 배다리	시각장애인 사진 모임 '잠상' 팀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며 시각장애인이 폭넓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예술인	사진의 한계를 벗어나 미술, 퍼포먼스,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접목해 창의적인 실험을 시도하여 시각장애 사진 작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했다.



사진공간 배다리 이상봉 관장

사진공간 배다리

사진 갤러리로 시각장애 사진을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사진 교육, 촬영, 전시, 기기 지원, 프로젝트 개발, 출판, 해외전시 등의 사회활동을 돋고 작품 판매도 진행한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사진공간 배다리	공모사업	정용덕(미술)	김송일(연극), 김현호(미술), 문지혜(미술), 이정민(무용)

어울리다: 나누고 채우기

▣ 서로에게 눈을 뜨기

활동 방식: 잠상 팀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작업 활동 및 결과물을 전시로 공유한다.

진행 과정:

구분	내용	사례
'시각장애'에 관해 알아가기	정안인의 경우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관련 내용 공부하기	이상봉 관장님의 도움을 기반으로 시각장애 예술에 대해 알아가고, 공부하며 프로젝트 진행
대화의 방식	정안인에게 익숙한 표현방식 바꿔 말하기	손으로 부피감을 표현하며 '이만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먹만큼', '얼굴만큼' 등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미션 교환하기	잠상 팀과 참여예술인이 일상의 사소한 순간을 나누고 도전하는 미션지를 만들고 교환하여 수행하기	* 미션 활동지(86~87쪽) 참조
워크숍	서로 다른 장르의 참여예술인이 각자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술을 접하는 첫걸음을 제시하고 표현 방식에는 제한이 없음을 공유하기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고 편안히 호흡하며 발성하는 방법 제안, '말랑한 마음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찰흙의 촉감을 느끼는 시간 마련 등
〈예일반도〉 전시 개최	"예일반도"는 예술, 일상, 반복, 도전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제목으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도전한 결과를 예술이라 생각하고' 서로 교환한 미션을 수행한 결과물 전시	

* 정안인: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

예술인들이 잠상에게 보낸 미션

1. 하루 중 감사하거나 행복한 순간들을 찾아서 사진으로 표현해보세요. 대상이나 사물을 직접 찍어도 좋고, 자신을 셀카로 혹은 추상적인 표현들로 촬영하여도 좋습니다. 또 그 순간을 기억해두었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촬영하여도 좋습니다. (가능한 매일 한 장의 사진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2. 각 요일에 정해진 색깔이 들어 있는 사진을 찍어서 모으세요.

(월-빨강, 화-주황, 수-노랑, 목-초록, 금-파랑, 토-남색, 일-보라)

3. 길을 걷다 눈에 들어오는 자연물(돌, 나뭇잎, 솔방울, 나뭇가지 등)을 하루에 한 개 이상 가지고 와서 모으세요. 15개 이상 모으면 모이놓은 자연물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서 마음 가는대로 배치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블록처럼 쌓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모은 자연물을 배치하여 사진을 찍고 제목을 지으세요.

4. 프로젝트 동안 (긍정적 혹은 부정적) 소리가 포착된다면 그 소리의 근원을 찾고 그것을 촬영하고 녹음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왜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메모하세요.

5. 매일 동네 산책 혹은 직장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날의 특이점을 정리해보세요. (재밌는 일 발견 혹은 사람들의 말 기록하기)

6. 2주 동안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1분씩 아무 말 없이 손잡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예. 매일 아침 엄마랑 1분 동안 말없이 손잡고 서로를 느끼기)

7. 누군가에게 나의 일상을 영상이나 사진에 담도록 요청하세요. 발견되는 혹은 알게 되는 순간들을 사진에서 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작해보세요.

8. 만화, 소설 등 책 혹은 영화 속 인물처럼 살아보세요. (예. 영화 <슈퍼맨>을 봤다면 슈퍼맨처럼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기)

9. 100명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습을 찍어 달라고 하세요.

10. 가장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는 장소와 낯선 장소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사진에 담으세요.

11. 자연 속에 있는 나를 찍어 주세요. 단, 셀피 또는 렌즈를 응시하면 안 됩니다.

12. 미술관에 가서 큐레이터에게 보고 싶은 색의 그림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그 그림에 관해 설명을 들으세요. 허락한다면 녹음도 하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촬영하도록 하세요. 촬영할 수 없다면 그림 제목과 작가를 기록하세요.

13.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보고 싶은 풍경을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인 장소, 지명을 밝히지 않고 서술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풍경과 가장 비슷한 곳을 가서 풍경 사진을 찍어 달라 부탁하세요. 동행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14. 부모님의 옷을 입고 부모님 방 또는 부모님이 짓었을 적 관계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은 그 장소와 내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15. 인천을 벗어나 홀로 여행을 떠나세요(서울 제외). 준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만난 사람, 먹은 것, 봤던 풍경 등) 최대한 많이 기록하고 사진당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16. 기억에 남는 꿈이 있나요? 자신의 꿈이 진짜 일어난 현실인 것처럼 글을 써보세요. 사람들이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속을 수 있도록 증거 사진을 만드세요. 증거 사진은 음식, 물건, 장면 등 어느 것이든지 좋습니다.

잠상이 예술인들에게 보낸 미션

1. 화초를 키우면서 그 화분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담기.
2.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지금의 기분, 감정, 상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나 포즈를 찍고 하고 싶은 말 한 줄 짧은 글로 남겨서 찍기.
3. 개인 작업을 진행할 때 그 시간에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요약하기.
4. 눈을 감고 자신의 외출 복장을 코디하고 사진 찍기.
5. 일주일 최소 2번 행복 또는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기록하기.
6. 일주일 최소 1번 아침에 일어나 거울에 비친 모습 기록하기.
7. 희미하게 보이는 광경에 의미를 담아서 촬영해보기.
8. 휴대전화 음성 기능을 켜고 사진 촬영해보기. 집안에서 눈을 가지고 활동해보기.
9. 어린 시절 사진 3장과 비슷한 풍경에 가서 같은 포즈로 사진 찍기.
10. 시각장애인에게 안내받으며 느낀 점을 써보고 사진도 찍어보기.
11. 자연에 있는 것을 담기(동물, 곤충, 식물, 바위, 나무, 계곡 등)
12. 모델이 되어서 포즈를 취하면서 배경이 보이는 길거리나 건물 앞에서 사진 촬영해보기.
13. 함께 미술품 전시나 사진 갤러리를 관람하고 공원에서 사진 촬영하기.



☞ 우리 모두 같은 곳을 본다

정안인인 예술인들은 사업 초기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 오히려 잠상 팀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타인에 더 열려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 난감해하는 정안인을 대했던
 경험도 많을뿐더러 눈이 어두운 탓에 오히려 온몸이 눈이 되어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한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양쪽 모두 벽을 허물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화되어 사는 법을 체득하였다.



(위) 워크숍 현장 (아래) <예일반도> 전시



<예일반도> 전시

우리가 만났을 때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장애여성의 삶을 꾸준히 기록했으나 기록의 방식에서 늘 아쉬움을 느껴왔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예술인과 함께 이런 고민을 해소하고자 했다. 예술인들은 장애여성을 꾸준히 만나면서 지금까지 기록되지 못한 장애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일반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 이슈 해결

장애여성 네트워크

‘장애’와 ‘여성’을 분리하지 않고 ‘장애여성’이라는 존재로서 겪어 온 이중적 차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장애여성의 삶에 귀 기울이는 작업을 희망했다.

예술인

일상적인 삶의 기록을 통해 ‘장애여성’이 마주하는 차별 지점들을 일반 시민과 나누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 장애-여성-예술이 만나는 방식

예술인은 저마다 1명의 장애여성을 주기적으로 만나 인터뷰했다.

인터뷰이는 미혼과 기혼, 20대부터 50대, 발달장애인부터 화상장애인까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예술인들은 첫

만남에서 ‘장애여성’이라는 틀 안에서 인터뷰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점이 장애여성을 이해하는 데 도리어 방해 요소였음을 느끼면서, 장애여성의 삶이 모든 여성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만남을 거듭할수록 일상생활에서 읽지 못했던 여러 부분이 새롭게 읽히면서 작가로서 세상을 더욱더 넓게 읽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여성이 평등을 누리는 사회, 차이와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여성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장애여성네트워크

기획사업

남경순(영화)

김진(미술), 이은지(영화), 제소라(미술)

어울리다: 나누고 채우기



김진, <송사탕 구름과 구름>

▣ 의미 확장하기

장기간 타인을 만나 그의 삶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은 한 인간에 대한 앎을 넘어 그 사회를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예술인들은 장애와 여성,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사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장애여성을 만나면서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각자의 개별성을 지닌 독립된 존재라는 점, 어느 한 범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인터뷰이가 가진 고유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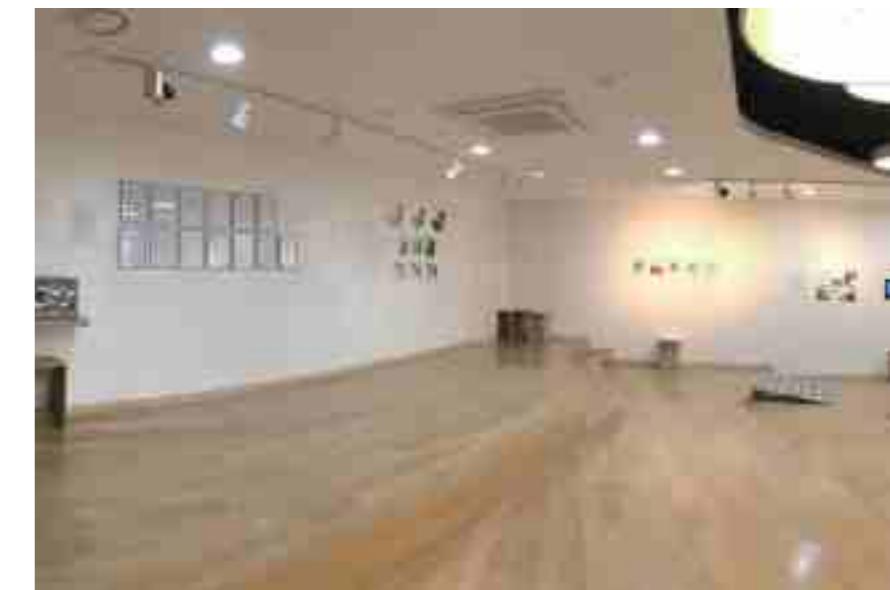
남경순, <수미의 빙>



제소라, <손으로 짓는 일상>



이은지, <여기, 우리의 자리>



<우리가 만났을 때> 전시 전경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난민 알리기 아디

1951년 제네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UN) 난민협약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난민을 규정한다. 현재 심한 박해를 받는 로힝야족 난민들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얹혀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그 안에서 한국의 사진작가와 비정부기구 아디는 로힝야족이 처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 이슈 해결

아디	예술인과 시각 매체를 활용하여 난민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예술인	기관에서 취재해온 내용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노하우가 있는 예술인들이 영상 작업을 진행하였다.

▣ 수만 킬로미터 밖에서 난민의 실상 알리기

활동 방식: 로힝야족의 상황을 한국 사회 시민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영상 제작

▣ 평범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계기로 한 작가의 개인 작업에서 나아가 대중에게 난민의 실상을 올바로 알릴 수 있는 영상 작업을 아디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 리더예술인 외에 다른 예술인들에게 ‘난민’이라는 단어는 여느 한국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서 그들을 만나니 우리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영상보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고 그 일상이 위협받지 않길 바라는 점은 모두 같다는 마음을 전하는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예술이기 이전에 각자의 재능으로 공공선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조진섭 리더예술인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

한국의 비영리단체로 난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연합(UN)에 편지를 쓰는 등 당사자의 인권기록과 응호 활동을 지원한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아디	기획사업	조진섭(사진)	서동실(영화), 소준문(영화), 정원석(영화)

바라보다: 서로 마주하며 공존 모색하기

조진섭 리더 예술인의 사진 작업



미얀마 로힝야 사람들이 배를 타고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이들은 국경수비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새벽에 도착해 숨어있다가 해가 뜨고 난 후 방글라데시 군인들의 진행 아래 검문소로 향하고 있다.



몬순이라 불리는 우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난민촌 내 집들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지원받은 대나무로 텐트에 외벽을 세우고 수로를 정비한다.



보급받는 날.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보급소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생필품을 나눠준다. 그러나 그 양이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라 몇몇 로힝야 사람들은 현지인들과의 거래를 통해 현금화한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반찬거리와 보급품으로 받지 못한 물건들을 구매한다.



난민촌 안에 있는 보급소에서 한 노인이 아이에게 입담배를 구매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쌀과 식용유 등 생필품을 보급받는다.

예술을 원하는 우리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2000년대 이후 국제교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을 오가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 아래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에 낯선 것도 현실이다. 차이를 넘어 누구나 예술을 누릴 권리로 찾아가는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이하 AMC)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만난 자리를 찾아보았다.

▣ 이슈 해결

아시아미디어 컬쳐팩토리	선주민과 이주민이 소통, 교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예술인	예술인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이주노동자·이주민들과 공연하는 것을 제안했다.

▣ 따로 또 같이

활동 방식: AMC에서 매년 주최하는 <서울이주민예술제>에 예술인들이 스며들어 축제를 함께 즐기고 공연을 선보이는 활동 진행

예술인 역할 들여다보기:

이름	담당	내용
강화정	사전 기획 및 총괄 진행	- 퍼실리레이터 사전활동 단계에서부터 축제 준비 시작
길서영	개막공연 담당	- 매주 토요일 이주민들과 퍼포먼스 워크숍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개막공연으로 공유 - 춤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움직임을 찾을 수 있도록 독려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모여 문화·예술 활동으로 즐거운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단체로, 주요 사업으로는 이주민문화예술공간 프리포트, 서울이주민예술제가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공모사업	강화정(연극)	길서영(무용), 아마리 미호(음악), 이찬욱(음악), 장수영(영화), 추유선(미술)



이름	담당	내용
아마리	뮤직파이프	- 뮤직파이프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예술제 개막 특별 공연으로 제안
미호	공연 담당	- 이주민 보컬팀 <지구인의 노래> 연습 진행 및 이주민 뮤지션 섭외
이찬욱	축제 음향 담당 & 뮤직파이프 공연 담당	- 축제 전체에 필요한 음향 전반의 관리, 운용
장수영	홍보 영상 제작	- 제8회 서울이주민예술제 메인 영상 및 섹션별 홍보 영상 제작, 이주민예술제 영상 기록 - M-tuber 워크숍에 참여해 이주민 예술가들의 영상 제작을 도움
추유선	영상 전시 (설치 전시)	- 이주민의 공통적인 정서에 초점을 맞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노동환경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생일'이라는 주제로 엮어 이주민들이 만든 초단편 영화와 함께 설치 전시 -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들이 벵골어(방글라데시어)로 과거, 현재, 미래의 생일에 관해 글을 적고 그 글자들을 바탕으로 설치 작업 및 개막공연 무대 설치

바라보다: 서로 마주하며 공존 모색하기

▣ 예술을 원하는 우리

서울이주민예술제에서 예술인들은 AMC 활동가와 모여 ‘아이고 밴드’를 만들어 뮤직파이프 공연을 선보였다. 국적이나 언어, 문화를 떠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술을 매개로 시간을 나누며 관계를 쌓아갔다. AMC 정소희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인간이 인간이므로 지니는 하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예술이라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술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또한, AMC 마문 활동가는 “예술가라고 하면 예술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전한다. 그는 노동자도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예술가도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술은 자기 활동이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므로 예술을 즐기고 예술로 마음을 나눈다.



위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찬욱·장수영·아마리 미호 참여예술인, AMC 마문 활동가, AMC 정소희 대표, 강화정 퍼실리테이터, 추유선·길서영 참여예술인.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뮤직파이프다.



제8회 서울이주민예술제

예술이 평계가 되어도 좋다 사재산마을

강원도 횡성에 있는 사재산마을의 농촌유학센터에는 10명 남짓한 초등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협업 농협사업으로 매칭되어 함께한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예술인들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술에 관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화를 만들며 아이들이 직접 출연하거나 촬영하고 편집도 해보면서 체험과 추억을 동시에 쌓았다.

▣ 이슈 해결

사재산마을	사재산마을 농촌유학센터 아이들이 예술과 가까워지고 농촌유학센터의 활동이 널리 알려지길 바랐다.
예술인	아이들과 함께 짧은 영화를 만들고 연극 관련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



이준영 리더예술인, 함혜정·임주미 참여예술인

사재산마을

2007년부터 농촌체험 마을,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해온 마을이다. 특히 농촌유학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아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자연과 어우러져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농촌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마을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사재산마을	협업 농협사업	이준영(연극)	강장원(미술), 임주미(무용), 함혜정(연극)

대화하다: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과 이야기하기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그림자 체험 프로그램



연극놀이 체험

▣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활동 방식: 초등학생들과 함께 단편영화 “몬스터카드” 제작

영화 제작 과정:

단계	세부내용
구상	-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쌓고 영화 제작에 필요한 아이디어 찾기
대본 작성	- 참여예술인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놀이처럼 이해할 수 있게 유도하여 아이들 주도로 대본 작성 - 릴레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완성
연습	- 무용 및 연기 연습하기 - 대본의 묘사를 직접 보여주며 연기 시범 진행 -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더해 줄거리 발전
촬영	- 아이들과 예술인 모두 처음 하는 시도로, 직접 촬영 및 편집 진행
상영	- 단편영화 상영제 개최

▣ 추억은 방울방울

사재산마을의 예술인들은 예술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다. 같이 연기하고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올리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했던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져서 아이들 모두 처음이라는 어색한 마음을 거둬내고 자발적으로 연습하고 즐기며 명연기로 보답했다. 마지막 상영회 자리는 가족과 선생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어쩌면 예술은 하나의 핑계일지도 모른다.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면 예술은 얼마든지 핑계가 되어도 좋다.



난타 체험



아이들과 영화 만들기



그림자 체험

곧 만날 우리의 이야기 삼돌이마을

그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수많은 기업·기관·마을이 거쳐 갔다. 예술인은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평소에 시도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다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소외된 곳을 조망하고 드러내는 일 역시 예술이 감당하는 몫이다. 삼돌이마을에서 활동한 예술인들은 미디어에서 쉬이 접하던 아름답게 포장된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모습을 담아냈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는 우리가 곧 마주할 모습이기도 하다.

▣ 이슈 해결

삼돌이마을	삼돌이마을 영상을 제작하여 마을 홍보에 활용하고자 했다.
예술인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 마을이 예술인을 받아들이는 시간

활동 방식: 마을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 제작
진행 과정: 낯선 마을 주민을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섭외하는데 ‘시간’만큼 좋은 것은 없다. 활동 초반부터 마을 동아리 모임이나 부녀회 모임에 직접 찾아가 안면을 익히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이 예술인들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며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약 10여 명을 섭외하였다. 그 결과, 마을 소개를 담은 영상과 어르신들 인터뷰를 예술인 각자의 시선에서 편집한 다큐멘터리 두 편, 총 3개의 영상 결과물을 얻었다.

삼돌이마을

박힌 돌(원주민), 굴러온 돌(귀농인), 앞으로 굴러들어올 돌(예비귀농인)까지 함께 어울려 산다는 의미에서 ‘삼돌이’마을이다. 마을을 ‘놀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살러 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마을의 인물과 인프라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마을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삼돌이마을	협업 농협사업	오헤린(미술)	이창수(연극)

대화하다: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과 이야기하기

▣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

처음에는 어르신들 심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는데 어떤 질문을 해도 어르신들은 ‘아프다’라는 말로 운을 떼셨다. 인사말로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지’ 여쭤보면 매번 몸 아픈 이야기부터 하셨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늙은 몸 이야기를 보여주는 식으로 다큐멘터리 방향을 바꾸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하였으며, 동시에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산업화 35개국 기대수명’에 관한 논문에서 남녀 기대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0.7배속으로 훌려가는 듯한 삼돌이마을 어르신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곧 다가올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본다.





다큐멘터리 영상 중에서



마을 소개 영상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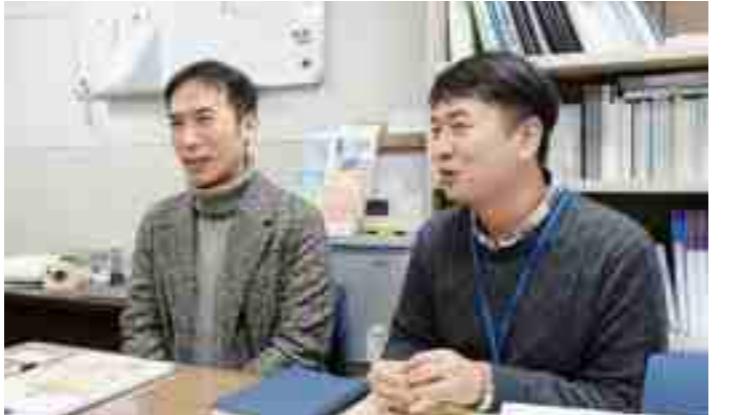
다 함께 완성한 하나의 이야기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훗날 혹자들은 지금의 세기를 갈등의 시대라 정의할지도 모르겠다. 지역, 성별, 세대 간 갈등은 정치 성향이나 신념 같은 거대한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도 만연하다. 홍은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로, 진학부터 문화예술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세대간 통합을 미션으로 하는 청소년 동아리 ‘세울림’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함께하였다.

▣ 이슈 해결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동아리 ‘세울림’이 지역 어른들과 함께 만든 동화를 공연으로 제작하고자 하였다.

예술인 기존 구연동화 형태에서 나아가 정식 공연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이선진 퍼실리레이터, 홍은청소년문화의집 홍준용 청소년지도사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구립 공공기관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체험 교육,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공모사업	이선진(연극)	김미래(미술), 이미보(음악), 이춘남(연극), 임정향(영화)

대화하다: 같은 공간 속 다른 시간과 이야기하기

▣ 낭독극으로 완성된 모두의 이야기

활동 방식: 지역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진행 과정:

제작하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짐.

이야기 만들기 게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팀별 작업으로 구체화하고, 여기에 예술인들이 살을 붙여 삽화와 편집 작업을 진행.

모두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마이크 앞에서 글을 읽는 낭독극으로 공연 형태 결정.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더하여 공연 진행.

참여그룹별 역할 들여다보기:

구분	역할	세부내용
참여 기관	전문가 섭외 및 모객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 섭외 및 프로그램 홍보, 제작 지원
시니어 그룹	소재 제공 및 제작 지원	홍은 지역의 과거 모습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청소년 그룹과 함께 동화책 및 공연 제작
청소년	동화책 및 공연 제작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동화책 제작 및 공연
참여 예술인	자문 및 제작 지원	삽화와 편집 및 실제 동화책과 공연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토대로 자문 및 제작 지원

▣ 다른 세대와 장르 사이에서

'세울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다. 지역의 어르신들은 사회의 주류에서 조력자로 역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청소년 및 예술가와 함께 활동하면서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미술을 비롯하여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이 모여 작업하다 보니 참여한 예술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얻고 타 장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각자 삶의 패턴은 다르지만 하나의 책과 공연을 만들기까지 모두 다른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대 간의 벽을 넘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를 얻었다.



예술로 리커버리! 나들목바하밥집

나들목바하밥집은 무료급식, 빈민자활, 노숙 예방 같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돋는다.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을 넘어 '리커버리(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돋고 사회적 인간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함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과 연대해 더욱더 풍부한 '리커버리'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예술인들은 스스로 '리커버리 예술단'이라 명명하고 창작놀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이슈 해결

나들목 바하밥집	자존감 및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는 예술 프로그램 기획을 요청했다.
예술인	그룹 활동으로 다양한 문화, 취미를 공유함으로써 전방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창작놀이로 자존감 불어 넣기

예술인들은 '리커버리'를 화두로 한 나들목바하밥집의 방향성에 크게 공감하고 각자의 작업에서 지역성과 리커버리를 연계할 방안을 고민하였다. 예술인들은 '리커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물적 지원을 넘어 문화 활동을 함께한다면 전방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사진이나 미술, 인문학 수업과 전시회, '리커버리 야구단' 같은 활동에 참여하며 내적인 회복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창조적인 쉼', '건설적인 회복' 등의 주요 슬로건이 협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창작놀이 워크숍'을 기획하게 되었다.

나들목바하밥집

무료급식, 빈민자활, 노숙 예방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돋는 기관이다. 기본적인 생활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임시 주거, 행정 지원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존감 및 사회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리커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나들목바하밥집	기획사업	서영주(연극)	김지애(음악), 염지희(미술), 이병기(영화), 황경현(미술)

치유하다: 예술로 힐링하기

▣ 예술과 휴식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회복이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가능한 것일까. 예술인들의 이러한 고민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자발적 회복 사업이자 자발적 문화 생태 운동'이라는 창작놀이 워크숍의 콘셉트로 이어졌다. 예술 작품 그리고 창작 과정에도 곧 '리커버리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예술인과 기관 모두 변화를 겪었다. 예술인들은 분명한 활동 정체성을 위해 '리커버리 예술단'이라는 단체명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기관에서도 이러한 예술협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2019년의 활동을 시즌 1로 정하고, 2020년에도 리커버리 예술단 창작놀이 프로그램 시즌 2를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리커버리 밴드 활동 및 영상 제작을 위한 모금 사업을 함께하며 기관과 예술인의 연대를 확장하고 있다.





이대로도 괜찮다 사단법인 공감인

사단법인 공감인은 각박한 사회에서 낯선 타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너지는 마음에 손을 내밀고 듣는하게 지지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관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고 침침해있거나 관계의 고리가 끊어진 사람들을 이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예술인들은 각자의 이유로 자립하지 않는 ‘비자립청년’을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예술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예술 톡, 놀이터’ 프로그램 현장

사단법인 공감인

사람들 마음에 웃음을 전하고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활동가 집단’이다. 2013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시민 힐링 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2017년부터 카카오임팩트와 ‘속마음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사단법인 공감인

공모사업

전성현(문학)

김혜영(미술), 백주희(무용), 윤수향(연극), 임금님(연극)

치유하다: 예술로 힐링하기

▣ 이슈 해결

사단법인 공감인	예술인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연령별, 대상별 치유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주길 요청했다.
예술인	비자립청년(저활력청년)이 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청년’이라는 낙인을 받는 현실에 반대하고, 예술을 매개로 이들을 치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예술 톡, 놀이터’ 프로그램 현장

▣ 예술 톡, 놀이터

시작: 비자립청년을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책, 논문, 신문 기사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사전연구 및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과정: 워크숍 참가자가 이색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새로움과 성취감을 느끼고 타인과의 공동 작업으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살아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고, 이대로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결과:

<예술 톡, 놀이터> 프로그램	
1차	서울숲, 움직임 놀이
2차	예술로 캠핑
3차	석고 본뜨기, 액션 페인팅
4차	소금 만다라

- 서울숲에서 공간을 탐색하고 자연물을 수집하며 나무에 여러 색상의 줄을 거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체험하여 마음을 열고 나에 대한 신뢰감 키우기
- 다섯 개의 텐트에 각각 미션을 설정해둔 후 그룹을 이룬 참여자들이 각 텐트를 돌며 미션을 수행
- 책을 읽거나 음악을 선정해 듣고, 젠가를 쌓고 무너뜨리는 과정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즐기는 순간 함께하기
- 참여자들이 자신의 손을 석고로 본떠보거나 다양한 도구로 벽이나 바닥에 그림을 그림
- 자신의 몸에 애정을 갖는 시간과 동시에 타인과 작업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 형성
- 감정 카드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 갖기
- 전지에 그린 그림을 색을 더한 소금으로 채워보기
- 이색적인 예술 경험을 통해 새로움과 성취감을 얻고 타인과의 공동 작업으로 연대감을 느끼는 시간 마련

▣ 예술, 마음을 나누는 매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유년 시절에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으로 상처받는다. 그러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통로로 결국은 사람이다. 타인에게 손 내밀고 싶어도 크고 작은 생각들로 주저할 때가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로 대화의 물꼬를 털다. 그리고 예술을 매개로 마음을 함께 나누며 보듬고 어루만지는 시간을 보냈다.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예술을 누리는 방법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공감인과의 협업에서 느낄 수 있었다.



예술로, 뿌리내리기

예술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방법 이야기하기

122~127
128~133

연대하다: 지역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확장하는 방법

지역과 아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예술 커뮤니티 - 강릉 지역 예술인 집담회
지인에서 동료로 함께 성장하기 - 인천 지역 예술인 집담회

134~137
138~141
142~145

자리하다: 지역의 거점 공간에서 예술로의 거점 공간으로 진화하기

지역의 매개자, 예술가, 향유자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 - 초롱이네도서관
관심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법 - 무명서점
예술가들의 진짜 이야기, 옆집 아저씨가 예술가래! - 깨북

146~147
148~151
152~155

연결하다: 흩어진 예술가를 한데 모으기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 롯데쇼핑(주)전주점
초보 퍼실리테이터의 월별 일지 - (주)호밀밭
지역의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예술: 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안태호

지역과 이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예술 커뮤니티 - 강릉 지역 예술인 집담회

올해 강릉에는 세 개의 기업·기관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전혀 다른 성격의 기업들이지만, 참여 예술인들은 협업 과정을 통해 서로 만나고 교류하면서 협업 이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강릉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 예술인과 강릉이 좋아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이주해온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커뮤니티는 다른 곳보다 두드러지는 끈끈함과 친밀성으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강릉 지역 세 개 기업·기관의 예술인들이 함께 일궈낸 강릉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조망해본다.

- 심명진

(영화, 공모사업-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퍼실리테이터, 이하 '심') 전공은 미술이었지만, 영화를 하는 예술인이 되었다. 강릉으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지는 약 1년 3개월 정도 되었다. 2018년에 서울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올해 처음 강릉에서 참여하였다. 인디하우스에서 강릉의 예술인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진혜원

(음악, 공모사업-메이븐커피, 퍼실리테이터, 이하 '진') 나디아라는 예명으로 노래하고 곡을 쓴다. 2018년 9월에 강릉으로 이주했다.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하고 싶어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했다. 강릉시 교동에 있는 메이븐커피에서 자유로운 주제로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네트워킹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다. 강릉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강릉 지역에서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인들과 활동을 진행했다.

- 최제현

(미술, 기획사업-깨북, 리더 예술인, 이하 '최') 강릉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이후 여러 곳을 다녔지만, 현재는 강릉에 살고 있다. 동네예술가로 불리길 원한다. 올해는 독립서점 깨북, 예술인들과 함께 동네를 말과 글로 살피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가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 강릉 지역을 다루는 페이퍼를 발행했다.

연대하다: 지역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확장하는 방법

올 한해 강릉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수도권 외 지역에는 참여기업·기관 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강릉에는 세 개의 참여기업·기관이 있다. 어떤 곳이 있고 예술인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궁금하다.

최 우선 강릉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5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처음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강릉에 기업이 없어 태백에 가서 참여했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이 강릉 지역의 기업·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을 소개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기획·제작·제작·판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성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공모와 기획사업의 형태로 3곳이 참여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3곳에 강릉 지역 예술인, 이주 예술인, 타지역의 예술인이 골고루 섞여 있다는 점이다.

심 인디하우스의 참여 예술인들은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영화, 공연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상상하게 되었다. 강릉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예술인들을 소개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는 이주해온 예술인으로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 사업을 계기로 여기 두 분을 알게 되어 많은 힘이 되었다. 자주 만나서 서로의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진 메이븐커피에서는 아카이빙, 그리고 도시 재생을 주제로 '우리 동네 우주인'이라는 사진집을 만들었다.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와 함께 사진집을 전시하며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했다.

최 독립서점 깨북을 중심으로 '예술로가다 공사중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월간 페이퍼를 발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작가들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내부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칭이 끝났을 때부터 다른 기업·기관의 퍼실리테이터, 참여 예술인들과 적극적인



깨북 활동사진



메이븐커피의 예술협업활동 결과 '우리 동네 우주인'

만남을 시작했다. 각 기업·기관의 주제는 지역의 이야기로 닿았고, 우리들의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 네트워킹은 자연스럽게 심화하고 확장되어 갔다.

진 특히 깨북의 예술인들은 시각 분야가 많다. 최제현 리더예술인이 작업실에 있는 예술인들을 끌어내어 함께 길을 내는 작업을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총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페이퍼를 발행하고 나올 때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페이퍼에 담은 내용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각자의 작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하는 내용이었다. 예술인 대부분이 결과 중심의 활동을 해오다가 깨북처럼 열린 파티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분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파티 자체가 활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주해온 예술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만약 그런 계기가 없었다면 섬처럼 고립되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었을 것 같다.

강릉의 협업과 네트워크

한 다리 건너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장점으로 인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이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진 강릉 지역의 예술인들이 아주 예술인 또는 타지역에서 온 예술인들에 대해 열려있고 배려심이 깊다.

심 강릉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예술인들을 많이 만났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역의 커뮤니티나 기업·기관과 유기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미 커뮤니티가 견고하거나 조직 내에서 예술인들이 섞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맥락에서 최제현 리더예술인의 노력이 고무적이다. 내년에는 강릉 지역에 더 많은 팀이 생겨날 것 같다. 예술인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고, 자연스레 지역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최 현재는 차근차근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KTX가 생겼고, 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국가 정책의 흐름, 문화와 관광을 강조하는 지역 정책의 방향성이 맞물려 내부에 변화의 욕구가 있다. 이런 시점에 예술인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재미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인들은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모험가들이지 않은가. 이 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해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 그래서 작업실에만 있던 예술인들을 끌어내고 협업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인들이 많아지고 다양해져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협업의 과정에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의 강릉, 그리고 앞으로의 강릉

앞으로 강릉은 변화가 필요하고, 실제로 지금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현재 강릉 지역 예술인들의 상황과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풍경을 듣고 싶다.

심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을 기획하고 상상하는 것부터 이미 판이 벌어진 것이라고 본다. 강릉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나니 서울에서 예술인들을 데리고 와 지역 예술인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졌다. 강릉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소개하고 싶다.

진 제주에 불었던 아주 신드롬이 강릉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아주 예술인과 동네 예술인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거점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 깨북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 지역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작품 발표를 해도 피드백을 받을 수 없고, 창작보다는 하청 구조의 일을 할 수밖에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활동사진

없는 상황이다.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서로 이야기해주고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열다섯 명 생겼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살며 작업하는 이들, 이주해온 예술인이나 타지에서 온 사람들 모두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좌절한 현실을 바꾸어 나갈 힘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보았다. 서로를 지지할 힘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축을 잘 활용하고 끌어안고 싶다.

- 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강릉의 더 많은 예술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지역에 융화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품어주었고, 덕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 지역에 스며들 수 있었다. 강릉에 정말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예술인과의 접점은 적은 것 같다. 괜찮은 예술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강릉의 차별화된 지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강릉에서 예술인들을 좀 더 귀하게 활용하면 좋겠다.
- 심 개인적으로 강릉이 너무 좋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다. 누구나 가깝게 찾아와서 치유 받을 수 있는 멋진 도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강릉은 빈 도화지 같다. 이곳에서 앞으로 멋진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된다.
- 최 익숙하다 못해 지쳤었는데,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네트워크 안에서 ‘강릉이 너무 좋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니 강릉을 새롭게 만나는 동력이 되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좋은 에너지를 가진 고립된 작가들을 한데 모으고 조율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난 5년간 조율자의 역할을 배웠다. 나아가 행정가나 기획자의 눈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능력도 생겼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해야 하는 나이와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술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일들을 하면서 자연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일들을 강릉에서 해나가고 싶다.



최제현 리더예술인, 진혜원·심명진 퍼실리레이터

지인에서 동료로 함께 성장하기 - 인천 지역 예술인 집담회

인천은 서울과 가까운 대도시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 중소도시가
서울에 흡수되며 개성을 잃어갈 때도
인천은 특유의 매력을 잃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예술인들과 인천의 개성에 끌려 자리 잡은
지역 예술인들이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내에서도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킹은 끈끈하다. 끈끈하면서
열려있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으로,
기관에서 기관으로 연결고리를 확장하며
예술 세계를 넓혀나가는 인천 지역을
들여다보았다.

- 김푸르나

(미술, 공모사업-추억극장 미림, 퍼실리테이터, 이하 ‘김’)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사라져가는 지역이 가진 이야기와 관련된 개인 작업을
해왔다. 참여예술인으로 처음 연을 맺은 추억극장 미림(이하 미림극장)과
올해는 퍼실리테이터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함께했다. 올 한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같이 미림극장의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고,
극장 안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 이호진

(사진, 공모사업-스페이스 빔, 퍼실리테이터, 이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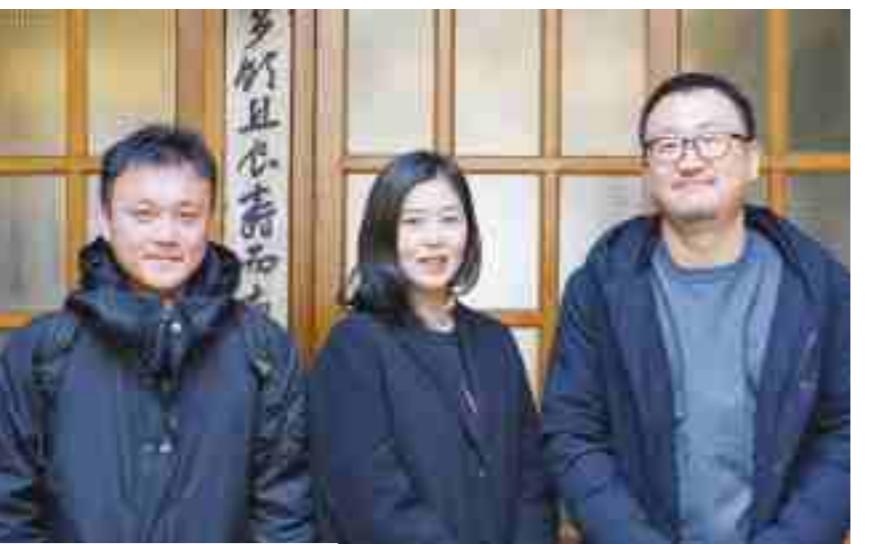
장소와 일상을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한다. 올해 스페이스 빔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근 생태공원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스페이스 빔지기들이 이곳의 의미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연극을 준비해 선보였다.

- 조은성

(영화, 공모사업-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퍼실리테이터, 이하 ‘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부평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총 44명의 예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출판물로 발행했다.



이호진·김푸르나·조은성 퍼실리테이터

연대하다: 지역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확장하는 방법

연결, 연결, 연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에서
지역의 네트워킹 거점으로

인천은 도시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예술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김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다. 인천
지역 작가들은 서로 잘 알고 자주 뭉치는 것 같다고 하더라. 한 다리
건너면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고 마주친 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

조 개인적으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역
네트워크가 생겼다. 2~3년 지나니까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끼리
안부도 주고받으며 끈끈해졌다. 그간 인천에 살았어도 활동은 주로
외부 지역에서 하곤 했는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다른
예술인들을 알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다. 이번에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부평구 예술인 아카이브 책자를 발간하며 네트워크 파티도 열기로
했다. 지역 예술인을 서로 소개하고 함께할 일을 모색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막상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일정에 쫓겨
그다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관심사나 능력을 알게 되면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작가로 살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별로
없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다른 장르의 예술인과 교류하고,
다른 예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
세계도 넓어지고 자연스레 협업도 늘어나게 된다.

이 서울은 기업·기관이나 예술인이 많다 보니 모이려면 오히려
정확한 프로젝트나 주제가 있어야 한다. 인천은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적고, 참여기업·기관도 적다 보니
서로 돋고 협업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밖에 없다. 공통의
관심사가 커뮤니티 아트라는 점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참여기업·기관을 고를 때도 지역에 의미가 있는 지점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서로 다른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세 분이 이전부터 미림극장을 연결고리로 하여 알고 지내셨다고 들었다.

이 미림극장 기관 담당자인 부장님이 마당발이다. 미림극장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몇 해 참여하여 그곳을 거쳐 간 예술인이 꽤 되는데 부장님이 행사할 때마다 다 초대를 해주신다. 그러다 보면 예술인들이 자기 지인도 데리고 오고 자연스럽게 모인다. 이때 인사하고 다음에 다른 곳에서 만나면 더 반갑다.

조 저도 미림극장을 통해 여러 예술인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한 아카이빙 사업을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각자 알고 지내는 인천 지역 작가나 비평가를 소개해줬다. 개인적으로 진행 중인 다큐멘터리 작업에도 여기 두 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지역 예술인에게 인천이 더 특별한 이유

참여기업·기관을 선택할 때부터 특정 지역과 기업·기관에 관심이 있었다면 각자 인천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거주지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다.

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할 일을 파악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을 쓰게 된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잘 아는 지역에서 빨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인천 지역의 특이점이 있다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중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이나 예술공간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의 이야기를 담길 원하는 곳이 많다.

조 거주지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다. 부평구문화재단을 선택한 이유도, 선택받은 이유도 집에서 가깝다는 점이었다. 10분 거리라서 언제든지 기관 담당자를 만나러 갈 수 있다. 그리고 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추억극장 미림 공간 구성 프로젝트



부평구문화재단 책자 발간 기념 네트워킹 자리



스페이스 빔 외부 환경 개선 작업

이 환경이 아직 무르익지 못해서 오히려 다양한 일을 해볼 기회가 많은 곳 같다. 앞서 김푸르나 퍼실리테이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상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천에 산다는 점이 내게 플러스 요인이고 하고, 예술인들이 직접 움직여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만들 여지가 많다는 점도 중요한 동기다.

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한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의 기업·기관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지역에서 더 많은 기업·기관이 참여하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할까?

이 우선 기업·기관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업을 소개하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한다. 정보도 부족하고, 사업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참여예술인이나 참여기업·기관이 소개하더라도 단편적인 정보밖에 줄 수 없으므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상세한 정보가 담긴 링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듣고 싶다.

김 내년에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기획사업 부문에 지원해보고 싶다. 올해 미림극장과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림상회’에서 인연을 맺게 된 식물가게 주인과 마음이 맞았다. 그 친구는 식물을 다루는 예술인에 관심이 많아 따로 리서치도 해두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관심도 많다. 협업활동으로 알게 된 기업·기관 사람들에게 홍보한다면 사업이 점차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6개월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라서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

- 이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내년에 스페이스 빔과 기획사업 부문에 지원해보자고 눈의 중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자체는 계속 참여하고 싶은데 심의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아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
- 조 올해는 사업의 목표가 명확한 기관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했는데, 개인적 성향 자체가 나서서 일을 주도하는 편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내게 적합한지는 고민이 있다. 다들 기획사업을 이야기해서 생각났는데 지리적 위치가 불리한 기업·기관에게도 기획사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 영종도서관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지원한 퍼실리테이터가 없어서 무산되었다고 들었다. 마침 부평구문화재단 참여예술인 중 두 분이 영종도에 살고 계셔서 다음엔 영종도서관과 연계해 기획사업 부문에 지원해보면 어떨지 제안하였다.



스페이스 빔 연극 현장

지역의 매개자, 예술가, 향유자 모두를 위한 길을 찾아 초롱이네도서관

낙엽이 물들고, 찬 기운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하는 어느 날 찾아간 초롱이네도서관은 초등학교 옆 통나무로 지어진 소담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초롱이네도서관은 1999년에 시작하여 2019년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다. 2000년 현재 통나무집에 자리를 잡으면서 전국 12개 작은도서관과 협의회를 만들고 충북 지역을 넘어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초롱이네도서관은 오랫동안 책을 매개로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내온 세월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약을 예술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았다.

기관의 시선:

지역의 기관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만난다는 것

올해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초롱이네도서관은 사업에 관해 알고는 있었지만,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2019년 20주년을 맞아 활동의 확장, 대상자 확대 등 제반 사항을 고민하던 시기에 퍼실리레이터로 함께한 조송주 예술인을 만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책을 소장 및 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로의 확장을 고려하던 터라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초롱이네도서관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예술인 인력 지원 외에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료비 및 제작비 예산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꾀하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 분야의 전문 예술인과 초롱이네도서관 브랜딩 사업 및 책을 읽으며 쉼을 얻는 ‘야쉼해서(夜쉼해書)’라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예술인이 각자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하나씩 고르고 본인의 예술

세계와 매칭하여 참여자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특별함을 더했다. 책을 고르고 읽는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세계를 참여자에게 공유하였다. 이 밖에도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하는 희곡과 연극, 단편 만화와 굿즈 상품 기획 및 전시 등 도서관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다양한 변주를 시도했다.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관장은 어떤 예술인을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가장

초롱이네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수도권에는 공립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이 대부분인데 지방에서는 대체로 사립으로 운영된다. 초롱이네도서관은 그중에서도 오래된 터줏대감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기관	사업유형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초롱이네도서관	공모사업	조송주(미술)	김성재(연극), 김윤섭(미술), 신용재(미술), 이길한(연극), 최재영(미술)

자리하다: 지역의 거점 공간에서 예술로의 거점 공간으로 진화하기

기대하고 설렜던 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먼저 무언가 제안하기보다 어떤 것을 같이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이러한 협업의 경험은 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인연이 이어지면 활동의 폭은 자연스레 넓어지니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연결된다.



예술인의 시선: 초롱이네도서관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까지

2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킨 초롱이네도서관은 작지만 내실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19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청주에서 열렸는데 전국 단위 행사임에도 청주라는 중소도시에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작은도서관 시스템이 만들어지던 시절부터 도서관 환경을 개척하고 유지한 이들의 내공이 있었다. 과거와 미래의 교차 지점에서 예술인들은 전시나 독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초롱이네도서관의 세월을 흡수하고 로고 작업, 굿즈 제작 등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올해 6년 차에 접어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지역의 예술가가 최소한의 예술 활동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면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송주 퍼실리레이터는 지역에서 예술인이 생존하기 위한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지역 문화재단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거나, 둘째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공방, 학원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얻거나, 마지막으로 지역의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학생 수가 줄면서 지방 대학들이 가장 먼저 타격받기 시작했고 필요한 강사 수 역시 줄어들어, 이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지역의 예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올해 충청권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총 3곳으로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와 충주에 각 1곳씩 있고, 충남



김성재 참여예술인의 <초롱이는 왜?> 작업 중 일부

지역에는 참여기업·기관이 없다. 지역에서 예술인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지원하더라도 참여기업·기관 수가 적어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참여기업·기관과 예술인이 함께 장기적 사업을 모색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선택적 복지로 지방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재정 또는 인력이 부족한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매칭된다면 향유자, 매개자, 예술가 모두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문화 거점으로 나아가는 길

앞으로 지역에서 더 많은 기업·기관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초롱이네도서관 관장 및 운영팀장에게 의견을 구해보았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지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을 널리 알리는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인력 및 정보망이 촘촘한 수도권과는 달리 지역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격기관인지 등을 흘로 고민하다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초롱이네도서관도 관련 사업을 알고 있었지만, 심의 절차나 지원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예술인이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 어떠한 고민 끝에 지원하게 되는지 등을 정리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한정된 인력이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작은 기관의 특성상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무형의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초롱이네도서관과 연계된 주변의 작은 기관 중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장점을 듣고 경험하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 외에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비 등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에 지원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양질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고, 만일 예산이 없다면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형태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향후 적은 예산이나마 콘텐츠 제작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지역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오혜자 관장은 예술인 한 명이 곧 하나의 도서관이며, 그들이 고민하고 키운 하나의 세계와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서로 존중하고 결합할 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기업·기관과 예술인, 그리고 일반 시민인 향유자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분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분명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더 넓게 퍼뜨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초롱이네도서관 오혜자 관장, 박준성 운영팀장, 조송주 퍼실리레이터

관심에서 관계로 나아가는 법 무명서점

이주 예술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제주에서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향한 수요가 커졌다. 제주시에 있는 무명서점은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와 교류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북 토크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주최하며 이주민과 지역민 사이에서 네트워크의 공간으로 자리한다. 올해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획사업에 참여한 무명서점은 제주의 해녀 '삼춘'들을 조명한다. 예술인들의 교류 공간이자 동네 책방인 무명서점을 둘러싸고 어떤 예술협업이 이루어졌는지 들려본다.

거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풍경일 수 있지만, 지역의 작은 마을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한다. 도시에 살던 예술인들에게 제주살이는 로망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을 옮기며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나눌 누군가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만나서 인사를 나누지는 못해도 어떤 예술인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 무명서점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들에게 무명서점은 일종의 사랑방이다. 예술씬이라고 거창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정주민과 이주민, 서로에게 녹아들기

제주에는 관당 문화가 있다. 이웃사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든 제주의 정서를 담고 있다. 주민들의 결속을 뜻하며 서로 돋고 가족 같은 정을 나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외지인에게는 선뜻 다가가기 힘든 벽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에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소소한 모임이 생겨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하나둘씩 곁을 내주면서 자연스레 지역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다.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렇게 무명서점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제주 고산 지역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기획사업으로 이어졌다.

무명서점

제주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독립서점으로 제주 지역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 소통의 창구가 되고자 한다.

초기에 제주 '할망'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 한 명의 할망을 한 권의 책으로 풀어내는 기획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무명서점	기획사업	강지혜(문학)	윤상지(미술), 이민형(음악), 장보영(문학)

자리하다: 지역의 거점 공간에서 예술로의 거점 공간으로 진화하기

'해녀 삼춘'의 삶을 조명하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다 보니 다른 곳에도 비슷한 기획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졌다. 할망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고산 해녀 삼춘들'이라는 공연팀에서 활동하는 할머니와 인연이 닿아 결과물의 바탕이 되었다.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해녀 트로트를 만들어 부르고, 고산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마을 지도를 만들면서 총 네 개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할머니는 예술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예술인들은 문어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이라는 사실 등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인식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각자의 세계를 공유하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폭이 확장되며 즐거움은 배가 된다. 무명서점을 통해 알게 된 '고산 해녀 삼춘들'의 메인 보컬 이임생 할머니와는 해녀 트로트를 만들어 불렀다. 해녀 삼춘의 이야기가 들어간 노래를 만들면 좋겠다는 예술인들의 아이디어에 뮤직비디오를 더한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함께 즐기고자 만든 영상에 눈물짓기도 하는 해녀 할머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 먹먹했다는 예술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예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새로운 시작, 관심에서 관계로

누구나 타인의 삶은 낯설다. 예술인은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데 그들에게도 삶은 일상이다. 서로 삶의 터전에서 영원히 타인이 아닌 이웃이 되기 위해, 예술인들은 가장 잘하는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낯선 직업, 낯선 이웃이 다가갈 때 할머니들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아마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던 예술인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호기심을 호의로, 관심을 관계로 쌓아간 무명서점에서의 예술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업 담당자와의 미니인터뷰 – 무명서점 정원경 서점원

무명서점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2015년 제주에 내려와 2017년 10월에 책방을 열었다. 우연히 지금의 공간을 소개받고 지나치기엔 아까운 공간이라 고산으로 이사해 책방을 시작했다.

책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확실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알려야 하는 목표가 있다. 그들과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획으로 이어졌다. 예술인의 존재로 할 수 있는 기획의 폭도 넓어졌다. 혼자서는 하지 못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의도하기보다는 물 흐르듯 이어졌다.

모객이나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나.

모객은 쉽지 않다. 흔히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지만 모객이라기보다 공유나 관람의 차원인 것 같다. 그럼에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기도 하다. 오프라인을 통해 모객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기보다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 지인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오는 편이다.



<해녀의 눈물> 뮤직비디오 상영회를 찾은 지역주민들



할머니들과 윤상지 참여예술인이 함께 그린 그림 전시



<해녀의 눈물> 뮤직비디오 중에서

과거에 프로그램을 함께한 예술인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번 프로젝트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나.

늘상 만나던 사람들이라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는 공간이 있고, 작가들에게는 재능이 있는데 함께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구심점이나 계기가 없었다. 재능의 발휘가 무급이나 자유로운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구체적인 예술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제주에 다양한 성격의 문화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주의 현재 상황과 그 안에서 무명서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주에 독립서점이 100개 넘게 생겼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제주는 지금 다양한 문화 콘텐츠나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각 지역이나 마을마다 활동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다. 그 안에서 지역 예술가가 참여한다면 수준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의 문화 활동이 기업의 이윤 창출 정도로 머무르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인과 결합한다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무명서점도 지역 예술인들이 찾아주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누가 찾아오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정해지고, 성장해나간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인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풍부해졌으면 한다.

예술가들의 진짜 이야기, 옆집 아저씨가 예술가래! 깨북

기획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깨북과 참여예술인들은 지역 사회와 예술가 사이의 통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활동 기간 동네의 이슈와 예술가의 삶에 얹힌 이야기,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다룬 월간 페이퍼를 여섯 번 발행하였다. 발간한 페이퍼는 깨북을 비롯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인근 카페나 문화 관련 기관에 배치되어 정보 유통의 기능을 하였다. 이외에도 SNS 운영 및 지역 예술가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소소한 행사를 개최하여 예술과 지역이 어떻게 함께 호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예술인 본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페이퍼는 독자가 자연스레 예술이 지역과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깨북과의 만남

지역에서 동네 예술가로 또 참여 예술인으로 오랜 시간 활동해온 최제현 리더예술인을 주축으로 깨북과 인연이 닿은 5명의 예술가가 모여 기획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강릉에 급격하게 불어온 변화의 광풍 속에서 예술인의 역할을 고민하던 중이었다. 참여기업 깨북은 동네 책방으로 독립 출판물을 소개하고 책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나아가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거점이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업 대표의 바람도 있었다. 참여예술인과 기업 대표를 모두 알고 있던 리더예술인은 양쪽이 만나면 재미있는 일들을 함께 도모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매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옆집 예술가, 예술가 우리의 이야기

사업을 진행하는 6개월 동안 여섯 개의 페이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6개의 공사 현장이라는 콘셉트 아래 매달 한 명의 예술인이 자기 자신을 주제로 이야기를 담았다. 1호에서는 공통의 주제로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다루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2호는 ‘옆집 아저씨가 예술가래’라는 제목으로 동네에 있지만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예술가를 조명하고 부각했다. 세 번째 페이퍼에서는 예술인들이 처한 환경을 보드게임판으로 만들어 소개하기도 했다. 페이퍼에서 다를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직업으로서의 예술인, 강릉의 인식, 사회적 역할로 이야기들이

깨북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독립서점으로 독립 서적 유통과 출판을 겸하고 있다. 현재 강릉에 다양한 문화공간이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 예술인들이 모이고 만나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깨북	기획사업	최제현(미술)	강중섭(대중예술), 고기은(대중예술), 김동길(미술), 윤의진(미술)

자리하다: 지역의 거점 공간에서 예술로의 거점 공간으로 진화하기

이어졌다. 나중에는 개인의 성장사를 공유할 정도로 회의 내용이 깊어졌다. 누군가 마치 집단 심리 상담을 하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까지 농담처럼 나누었을 때, 비로소 삶을 나누는 협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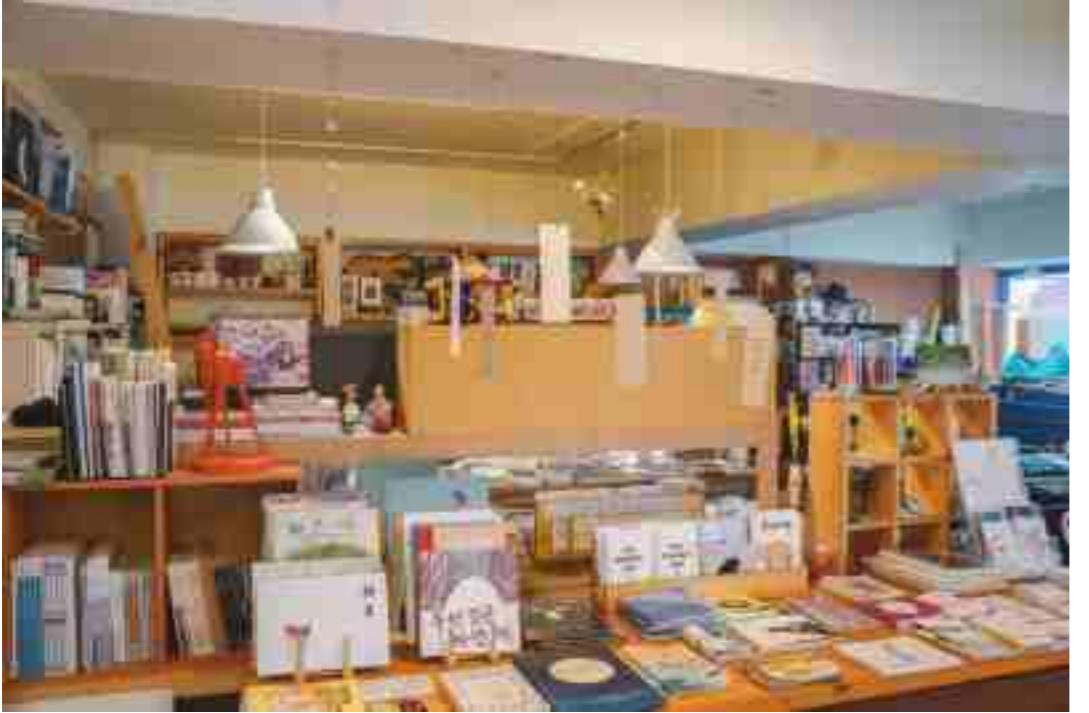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깨북 안상현 대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다섯 명의 예술인과 깨지지 않는 한 팀을 이루었다는 점을 꼽았다.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킹도 중요한 성과지만, 페이퍼를 비치할 배포처를 찾는 과정에서 생긴 네트워크도 괄목할 만하다. 알음알음 연결된 곳이 15군데에 이르고, 지역사회와 자연스레 관계를 맺게 되었다. 배포처 중 한 군데 사장님은 예술인이나 기업 대표보다 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도 했다. 소량이기는 하지만 우편으로 받아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팔로워들과도 소통했다. 만남은 다음 만남으로 이어졌다. 깨북과 예술인은 강릉을 주제로 종이 제품을 제작하였다. 기업 대표에게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화하는 능력이 있다면, 예술인은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인적 네트워크에서 출발한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동료가 생기면 보다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깨북 활동사진

깨북의 사례는 협업의 주제 자체가 ‘예술가의 삶’에서 출발하여 예술인들이 뿌리내린 강릉의 공동체로 이어졌기에 더욱 의미 있었다. 작은 연결고리로 시작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만남의 규모가 커졌다. 지역의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제품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확산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기업이 분명한 중심축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성과는 예술가들과 밀고 당기며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확이다.



최제현 리더예술인, 깨북 안상현 대표

기업 대표와의 미니인터뷰 – 깨북 안상현 대표

어떻게 깨북을 시작하게 되었나.

원래는 디자인 회사였다. 편집 활동을 하던 중에 작은 책방에 들렀다가 다양한 콘셉트의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간이 부러워 시작하게 되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처음 참여했다고 들었다. 기획사업에 참여한 동기가 궁금하다.

리더예술인과 한 동네 주민이라 알고 지냈다. 다양한 예술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끌렸고, 깨북을 좀 더 알리고 싶었다. 독립서점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예술가 및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의 활동하는 삶이 서로 자연스럽게 뭉쳐져서 좋았다. ‘예술로가다 공사중’ 페이퍼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기간과 페이퍼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 실지 못한 아쉬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미처 담지 못했지만,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나.

‘폼(form)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스템 안에서 예술가를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계약서(form)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으면 조금 더 단단하게 예술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기업 대표로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기대하는 바 또는 지역에서 기업·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언이 있다면 듣고 싶다.

기획사업으로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는데 만족도가 높아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모사업은 어떤 예술가들과 함께하게 될지 불확실해서 주저하게 되고, 기획사업에 다시 한번 지원하자니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1년 동안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례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사업의 심화 영역이 따로 생겨서 별도의 트랙으로 경쟁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예술로가다 공사중' 월간 페이퍼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롯데쇼핑(주)전주점

문화예술계에서 인력과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또한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의 참여기업·기관 수가 참여예술인의 수에 비해 적어 원활하게 매칭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지역은 밀집도가 낮아 예술인들이 모여 협업하려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일부 예술인들은 활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활동지를 옮기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역의 현실에서 분투하며 작업을 이끌어온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사례가 더욱 눈에 들어왔다.

전주, 군산, 광주 지역의 작가들이 한데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를 통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지역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았다.

롯데쇼핑(주)전주점(이하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는 기업과 예술인,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10월부터 크리스마스 관련 전시를 진행하였다. 맨 처음, 기업은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있는 백화점 건물 옥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곳에서 설치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사업에 지원하였다.

한편 이우상 퍼실리테이터는 2016년 협업 농협사업에 참여예술인으로 활동하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인연을 맺어 2018년까지 참여했다. 2019년에는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면서 지역 예술이 처한 현실을 매칭 단계에서부터 마주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서 선발된 퍼실리테이터의 수가 적다는 것이었다. 전라도의 경우 광주와 전북에 선정 기업·기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선발된 퍼실리테이터가 1명이었다. 그러나 보니 퍼실리테이터와 매칭되지 못한 기업·기관이 생겼고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기업·기관이 줄어들게 되었다.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참여예술인이 10명 이상 선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롯데백화점 전주점 이외에 다른 기업·기관을 지원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우상 퍼실리테이터와 참여기업은 재단과 협의를 통해 참여 인원을 늘려 전라도 지역에서 선정된 예술인 중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그런데도 예술인들 거주 지역이 전주, 광주, 군산으로 흩어져 있어서 회의하거나 활동 보고 등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았다. 기본적으로 만남은 기업에서 가지되, 퍼실리테이터가 종종 광주나 군산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주나 광주에는 함께하는 예술인이 여럿이라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지만, 홀로 군산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특히 힘들어했다. 퍼실리테이터가 예술인들의 활동 일수와

롯데쇼핑(주)전주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전라북도 상권 내 유일한 백화점 업태 단독점포로 2004년 개점 이래 15년 넘게 고객서비스 부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내 초록우산 재단 연계 기부금 증정, 아동복지재단 봉사활동 등 CSR 활동을 통하여 지역 상생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롯데쇼핑(주)전주점	협업사업	이우상(미술)	김판묵(미술), 문창환(미술), 백상옥(미술), 서완호(미술), 유지원(미술), 이권중(만화)

연결하다: 흩어진 예술가를 한데 모으기



이우상 퍼실리테이터

시간을 쟁기다 보니 한 달에 15일 넘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매달리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끝까지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관해 이우상 퍼실리테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기업을 선택할 때 대기업이라서 끌렸던 점도 있지만, 퍼실리테이터로서 자신이 전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참여기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닌 기업·기관이 줄어들거나 기반이 약화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한다. 참여기업·기관이 줄어들면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기업·기관 담당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나 리더예술인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지속해서 예술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꾸준히 이야기한다. 홀로 작품 세계를 이어가고 있는 예술인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서로를 연결하여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준다. 참여기업·기관 - 퍼실리테이터 - 참여예술인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 안배와 최소한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제 더 많은 예술인이 그리고 더욱더 많은 기업·기관이, 더 많은 시민이 예술을 향유하고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크리스마스 전시



초보 퍼실리테이터의 월별 일지

(주)호밀밭

올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는 기업·기관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여 활동하는 형태의 협업이 다수 이루어졌다. 부산(2명), 대전(1명), 대구(1명), 포항(1명)의 예술가들이 부산에 있는 출판사 호밀밭에 모여 진행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술인들이 어떻게 '함께 작업'할 수 있었는가를 알아본다.

* 본문은 허윤정 퍼실리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을 가상의 월별 일지 형태로 각색한 것이다.

2019년 봄의 어느 날. 평범한 낮밤 생활을 꿈꾸며.
나는 만화가다. 오늘도 혼자 마감하느라 밤을 새웠다. 공을 들이느라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얼마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공고가 뜬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과 작업하면 사회성이 길러지지 않을까? 사업을 신청해보아야겠다.

2019년 4월. 내가 퍼실리테이터가 되다니.

신난다. 퍼실리테이터에 합격했다. 행운이 따랐는지 내가 사는 부산의 '호밀밭'이라는 출판사와 매칭에 성공했다. 만화가로 활동하며 동료작가들과 단편만화집을 출간한 적이 있다. 독립출판에 관심이 많았는데 딱 적합한 기업을 만난 기분이다. 기업은 부산의 핫플레이스 광안리에 있다. 호밀밭은 인문예술 공간 '생각하는 바다'를 운영하는데 이곳에는 북카페, 독립서점 등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사업도, 퍼실리테이터도 처음이라 걱정되기도 했지만, 재단에서 개최한 퍼실리테이터 워크숍을 듣고 나니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예술인들과 매칭되기 전까지 기업과 의사를 조율하는 사전 활동 기간도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싶다. 호밀밭 대표님은 출판사나 공간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다. 그렇다면 영상 분야의 예술인을 우선으로 뽑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주)호밀밭

2008년 문을 연 도서출판 호밀밭은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행본을 출판하는 한편 여러 분야의 기획 출판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시대와 소통하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독자들과 유쾌한 소통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려 노력한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주)호밀밭	공모사업	허윤정(만화)	강현민(연극), 김상민(영화), 이대한(대중예술), 정혜숙(문학)

연결하다: 흩어진 예술가를 한데 모으기



이대한 참여예술인이 진행한 '슬기로운 음악생활'

2019년 5월. 첫 참여, 첫 실수.

드디어 예술인들 매칭 기간이 다가왔다. 1차 매칭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매칭 승인 버튼을 눌러야지!

앗! 망했다. 내가 먼저 승인하지 않으면 지원했던 예술인들이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다른 기업·기관으로 옮겨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1차에 영상을 다루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다 놓쳐버린 꼴이 되었다. 내가 미숙해서 기업이 가장 원했던 장르의 예술인을 모두 놓친 것 같아 속상했다.

2019년 6월.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

드디어 참여예술인들이 매칭되었다. 만화가, 축제기획자, 연극 연출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등 다양한 장르, 연령, 지역의 예술인들이 매칭되었다. 부산, 대전, 대구, 포항 등 거주지가 다양했다. 나이 차이도 있지만, 각자 다른 지역에 있어서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마음과 물리적인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겠다.

2019년 7월. 일단은 프로젝트 시작.

매칭 직후에는 기업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는 사실 독립출판 자체에 관심이 많았기에 호밀밭을 1지망으로 지원했다. 활동 기간에 때마침 호밀밭에서 진행하는 편집자 양성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판에 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또 호밀밭의 편집자가 편집자 생활을 다룬 에세이 <저도 편집자는 처음이라>를 출판했는데 그와 연계하여 4컷 만화와 컷툰을 제작해 출판사 SNS와 블로그, 그리고 네이버 도전만화 코너에 주 2회 올리는 협업도 진행했다. 만화는 16화로 완결되었고, 네이버 베스트 도전만화로 승급되는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다.

이대한 참여예술인은 호밀밭과 이전부터 연이 있어 '생각하는 바다'에서 음악감상 커뮤니티 '슬기로운 음악생활'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음악 앨범을 한 트랙씩 감상하고 감상평을 나누는 커뮤니티인데, 기업이 이 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이대한 참여예술인에게 사업 참여를 먼저 제안했다. 그래서 매달 한 차례씩 '슬기로운 음악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도 편집자는 처음이라> 웹툰

2019년 8월~10월. 서서히 드러나는 위기, 위기 속에서 발견한 기회.

점점 불안정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부산의 출판사인데 부산 사람은 2명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구, 포항, 대전에 있으니 서로 만나기가 참 쉽지 않다. 올해 대구 경북권에 참여기업·기관이 없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대부분 부산의 기업·기관으로 지원해야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로 지역이 멀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다. 한 달에 7번 모여 협업해야 하는데 대구나 포항에서 오는 예술인들은 부산까지 왕복 3~4시간이 걸리니, 오는 것 자체도 무척 힘들어했다. 만남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협업 활동을 빨리 기획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충실히 사전 리서치를 해보기로 결정했다! 활동지역이 다양하다 보니,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지역별로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9년 11월. <주간예술인: 가족을 보는 다섯 가지 시선>

위기를 발판삼아 진행했던 리서치는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으로 이어졌다.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가족이 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일까? 11월 한 달간 매주 ‘생각하는 바다’에서 <주간예술인: 가족을 보는 다섯 가지 시선>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만화가인 나는 가족 캐리커처 그리기 원데이 클래스를, 이대한 참여예술인은 가족의 일상과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담긴 <2014 양희은> 앨범으로 음악감상 커뮤니티를 진행했다. 김상민 참여예술인은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 감상 커뮤니티를, 강현민 참여예술인은 ‘역할극으로 풀어보는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연극입문 프로그램을, 정혜숙 참여예술인은 ‘엄마를 울리는 편지쓰기’라는 시·산문 쓰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평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보다는 특정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라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매칭하여 통일감 있고 개성 있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었다. 예술인들과 다 같이 모여 어떤 주제로 할지,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 우리끼리 프로그램 시연도 해보고, 다른 문화예술기획 사례를 풍부하게 조사하는 등 특히 기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들었다. 늘 혼자서만 작업하던 내가 이렇게 여럿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경험은 정말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2019년 겨울 어느 날.

만화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하면서 나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낮밤도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 특정 사람들과 매주 만나는 경험을 대학 이후에 처음 해보았다.

퍼실리테이터 워크숍 때 5년 차 퍼실리테이터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겠다. 예술인들의 일정 관리, 재단과 기업과의 연락, 그리고 하기 어려운 뒷일까지 모두 퍼실리테이터의 몫이기 때문이다.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한다는 게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 2018년 웹툰 작가로 데뷔하여 2019년 초부터 만화교육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나의 활동을 알게 된 정혜숙 참여예술인이 이후에 기획한 독서캠프 공모사업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10월에는 울릉도로, 11월은 포항 봉좌마을로 독서캠프 웹툰 강좌를 다녀왔다. 포항의 다양한 예술인들도 만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혜숙 예술인과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귀한 인연이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바다’라는 멋진 공간을 알게 된 것도 무척 기쁘다. 사실 공간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바다’에서 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일정상 함께하지 못했다.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만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만화감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 이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모처럼 집을 벗어나 만화의 형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과 소통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지역의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예술: 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안태호

대학에서 국문학을,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배웠다. 글을 쓰고 싶었지만, 지금은 유명한 소설가가 된 동문들 덕분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예술가의 길을 포기한 조금 슬픈 과거가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활동가, 퀄처뉴스 편집장, 부천문화재단 팀장, 제주문화예술재단 팀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수문화재단,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등의 이사와 함께 웹진 <예술경영>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여전히 만화를 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www.facebook.com/taeho.an

2019년 문화예술계를 결산하는 화두는 무엇보다도 지역화의 흐름이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역분권’을 표방한 정부 차원의 분권 진행은 오히려 속도가 더뎌 보인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 지역분권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예술인 복지사업 역시 지역과의 협력 또는 이관이 논의되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다. 어느새 사업을 시행한 지 6년이 지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80%가 넘는 참여자들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사업 관계자들이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지만, 예술인 등록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업 참여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광역문화재단들과 함께 지역 사업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어떻게 확산할지 기대되는 지점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역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에 관해 재인식해야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남사당파 등 전문예술집단을 뜯파라고 불렀고 생활인들이 꾸린 놀이패를 두레패라고 불렀다. 두레패는 뜯파로부터 화려하고 전문적인 기량을 배우기도 했지만, 마을 단위의 굿판이나 대동놀이를 주관하며 전승 주체를 자임하고 나서서 오히려 뜯파에게 마을 고유의 예술적 원천을 제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지역문화를 논하는 말들이 부쩍 늘어나며 위화감이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지역문화를 어딘가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며 지원을 논하는 말들의 흥수가 마뜩잖았다. 한국의 문화 운동에서 지역문화의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서울로 대표되는 ‘중앙’의 소비문화에서 더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 지역 활동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취지가 컸다고 한다. 말하자면 두레패의 전승과 지혜를

구하는 움직임이었던 거다. 그런데 이제는 두레패의 건강함을 논하는 말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지역문화의 열악함을 토로하는, 혹은 측은해하는 시선만 남아있는 것이 가끔은 견디기 어렵다. 물론 여러 한계지점도 존재하지만, 최근의 지역사업에서 주민 주체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 지역에 발 딛고 있는 두레패의 싱싱한 역동을 되살리는 것 같아 반갑고 기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서울 vs 지역’의 구도를 염두에 둔 비교는 사실 조금 마뜩잖은 지점이 있다. 서울 역시 하나의 지역일 뿐이다. 마치 중앙과 변방을 상정한 듯 위계를 설정하면 지역문화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예술인의 수, 활동의 양, 인프라의 정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차이를 고스란히 무시할 수는 없다. 지역-서울의 대조는 불합리한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유용한 비교의 틀을 제공한다.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모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전체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에서 그 활동의 성과가 어떻게 삼투되는지 정밀하게 추적하는 일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맥락과 의미를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우선 협업의 기회 창출과 소통역량의 신장을 꼽을 수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많은 요구사항 중 하나가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의 운영이다. 지역에서는 동료를 만나서 함께 작당하고 모의할 만한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로 올수록 타인과 교류할 기회는 적어진다. 이는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활동이 일상화되고 타인과의 접촉이 점차

줄어드는 시대적 특성이 깊게 배어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일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풀이 적은 데다 교류의 기회도 많지 않으니 갈증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다른 장르 예술인들의 교류가 가능해지도록 물꼬를 트는 측면이 있다. 다른 주체들을 만나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의미 중 첫순에 꼽을 만하다. 동시에 협업 과정을 통해 대화와 소통의 역량이 자라는 것도 큰 소득이다. 장르별로 또 예술인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예술인 사이의 협업과 다른 분야와의 만남은 개인에게 커다란 자극으로 작용한다. 새롭게 익힌 기술은 사회생활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작업 태도와 방법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예술인에게 이런 과정은 다양한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협업과 소통의 경험은 지역 예술인들의 연결을 촉진한다. 예술인들은 사업에 참여하며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연결의 경험을 통과했을 것이다. 활동의 다른 이름은 만남이다. 일을 만드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연결과 사회적 자원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지역의 힘이 되고, 개인에게는 자신감으로 남는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서 연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이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다양한 주체들의 교차로에서 생겨나는 크리에이티브를 향해 기대감이 자라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만나고 일을 벌이며 돌아난 자신감이 다른 궁리와 시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지역에 유사한 영역의 사업들을 촉발하기도 했다. 작가들의 협력과 지역 주체들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문화재단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할 순 없다. 공공예술과 커뮤니티 아트의 유행 역시 지역의 문화예술기관들이 예술지원의 방법론을 재고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동시에 작가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조우하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뚜렷한 흔적이 느껴진다.

그런 차원에서 비예술 영역과 만남의 기회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수도권이든 지역이든 아무 상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쓸모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학적 차원에서는 ‘무쓸모의 쓸모’가 성립하기도 하고, 쓸모에 대한 강박으로 예술을 곡해하는 일이 현실에선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간 예술과 예술인이 사회적으로 유통되어 온 방식을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지점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는 존재한다. 조금 과장하자면 골방에 유폐되어 훌로 알 수 없는 일에 몰두하는 수상쩍은 사람과 창의성이 번득이는 낭만적인 천재 사이에서 예술가는 오랫동안 오해받아 오지 않았던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생활인으로서,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의 감각을 발현함으로써 예술가에 덧씌워진 신비화된 낭만적 이미지를 간신히 기회가 된다. 동시에 예술이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를 환기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른 장르 예술인들과 완전히 다른 영역의 기업이나 기관을 만나며 생겨나는 다양한 갈래의 길들은 예술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다.

활동을 통해 기획역량이 자란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예술인들은 기획부터 실행, 마케팅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직무를 요구받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창작에만 몰두하는 예술가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예술인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제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밀도 높은 언어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작가는 오로지 작품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례였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관해 설명하는 일 자체를 구차하게 느끼는 이들조차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참여자들은 다양한 주체와의 의견 교환과 합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작업이 세상과 만나게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금 인식하게 됐을 것이다. 예술인이 곧 기획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예술인은 자신의 작업을 객관화하는 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동안 운 좋게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예술인들을 받아들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담당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업 심의에 참여해 다양한 예술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솔직히 어떤 측면에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성과가 조금 얼떨떨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연구예산마저 견제를 당하던 시절이 있었다. 놀라지 마시라. 겨우 15년 전의 일이다. 물론 사업 자체만 보자면 복지 차원의 성격과 예술 활동의 경계를 넓히는 시도 사이의 간격 혹은 중첩 덕에 여전히 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갖는

성과는 우리 사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1,000명의 예술가가 몇 년에 걸쳐 사회와 소통하며 만들어낸 효과는 분명 추적해볼 가치가 있다.

예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종종 예술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피력하는 기관 종사자들이나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예술인들을 만난다. 억압이나 모순은 언제나 중층적인 형태를 띠기 마련이다. 지역의 곤란함을 논하는 이야기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호랑이 같은 예술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앞서 이야기한 많은 효과가 꼭 지역이라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것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충만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들이다. 몇몇 활동만으로 세계를 바꾸기에는 이 세계가 너무 복잡해져 버렸다. 그러나 예술이 어떤 문제에 관해 사람들의 인식에 충격을 주고 생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씨앗들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바뀐 행동은 세상을 바꿀 근거가 된다. 지역의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응원한다.

예술로, 키우기

2019년 신설된 기획사업 알아보기

158~159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路(로) 기획사업 소개

160~167

기획사업 참여 예술인 175명과 함께하는 가상 간담회 - 주성진

이어가다: 사업의 연속과 확장

168~173

예술, 공간을 풀어내다 - 필동2가 아키텍츠

만들다: 또 다른 가능성 찾기

174~177

장애와 비장애, 소통과 협업 - 아티

일으키다: 지역 아카이브와 예술인 협업의 새로운 방식

178~185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예술路(로) 기획사업 소개

올해 신설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기획사업은 사전 기획을 통해 구성된 팀을 선정하여 전년도에 함께 활동했던 프로젝트를 (연속)지원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협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신규 팀을 지원한다.

이러한 선정 방식의 변화는 기존 사업의 ‘매칭’ 및 ‘만남과 탐색’ 단계를 생략하게 하여 좀 더 집중된 예술협업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에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전체 지원규모(약 1,000명)의 약 20%(36팀, 총 175명)를 기획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 40%로 확대하여 점차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나아가 향후 다년 지원의 방향성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 2019년 기획사업

지원 대상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및 기업(사회적 기업)·기관이 한 그룹이 되어 예술협업 활동 사전 기획을 통해 기업·기관의 이슈를 해결, 혁신하고자 하는 팀

- 팀별 기업·기관 1곳, 리더예술인 1명 및 참여예술인 3명 이상~5명 이하 구성
- 팀별 예술분야 2가지 이상 혼합 구성 필수

* 예술분야는 예술활동증명상 분야 구분에 따름

지원 기간

프로젝트별 특성에 따라 5월~11월 중 활동 기간 선택

- 활동 기간: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선택 가능

활동 내용

- 활동일수: 월 10일, 30시간 이상
- 월 1회 팀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및 개별 결과보고서 제출

선정 심의

-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서류심의 및 2차 PT심의

기획사업 참여 예술인 175명과 함께하는 가상 간담회

문화용역 주성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프로젝트

매니저(PM), 문화파출소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컨설턴트 등을 맡아 공공과 현장 사이에서

역할을 찾아 방황 중이다. 최근에는 다수의

문화기획 교육과정에 멘토를 사칭하며

청년들에게 문화기획을 배우고 있다.

www.facebook.com/sungjin.choo

사실 기획사업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기획사업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논의되어왔다. 처음에는 예술가 고유의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업 현장에 접목하는, 예술가가

과업이 아닌 작업으로 느끼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예술가가 가진

장점을 가장 잘 발현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부끄럽지만) 한때는

사업 예산 방어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려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행정의 효율성, 즉 매칭과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을 섭외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되었다.

2019년 기획사업이 현실화된 가장

실질적인 이유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한정된

재단의 인력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고,

상위기관에서는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참여예술인을

대하는 사업의 태도보다는 지원 규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문자 그대로 재단 담당자가

몸을 갈아 넣고, 예술인들이 현장의

문제를 몸으로 맞받아가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사업은 이상을 향한

새로운 걸음이라기보다는, 타협적이고

현실적인 뒷걸음으로 선택되었다.

그럼에도 기획사업은 여전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있어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것이

비록 뒷걸음질 치다 잡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잡은 기획사업을

(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운영하고,

(예술인의 입장에서) 잘 활용하는가가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기획사업이 생겨난 이러한 현실적 맥락

때문에, 앞으로 기획사업의 지속과

확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첫해

사업의 기록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지켜볼 수는 없었다.

다만 초기부터 기획사업을 주장하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마음의 빛도 있어

결국 이 지면을 맡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이 지면에서 내가 더 이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상상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남은 지면에

내 의견과 상상 대신 올해 기획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들이 시스템에 남긴

의견을 정리해 남기고 전하고자 한다.

일종의 재구성된 가상 간담회랄까.

175명 참여 예술인의 의견은

기획사업의 활동 시기 및 기간,

기획사업의 가치, 열흘이라는 활동

시간 증빙의 문제, 활동 증빙 방식,

리더예술인의 역할, 참여기업·기관

관리, 기획사업의 성격 및 지원 방식,

기획사업 운영 및 행정, 전문역량의

지원 필요성으로 나눠볼 수 있었으며

기술한 순서대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제 주제별로 참여 예술인 175명의

의견을 살펴보자. 필자는 예술가들의

의견 사이사이 개인적인 의견과 확인된

정보를 조금 덧붙여 보겠다. 사회자

정도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건너뛰고

훨씬 더 중요한 참여 예술인의 의견만

읽어주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과연 2019년 첫해 기획사업은 참여

예술인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아있을까?

기획사업의 가치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기획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너무나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이 놀라웠다. 서로 잘 알기에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획사업이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

“기존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과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이 매칭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나 니즈를 예술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해나 연구 기간이 부족해 예술적 협업 자체가 ‘과업’이 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획사업은 매우 탁월했다.”

사업 공모 단계부터 예술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0팀, 200명 선정에 183팀, 885명이 지원하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지원자 대부분이 이미 사업을 경험하며 구조상의 문제점을 겪었고, 기획사업의 새로운 구조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 후에도 대다수 참여 예술인이 기획사업의 기본 방향을 지지하였다. ‘사업 진행과 행정 부담, 사람 간의 문제가 줄어들어 프로젝트 자체에 몰입할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 물론 모두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것은 아니었다.

“어째서 이 사업은 예술인들을 사회와 분리된 계층으로 분류하고 인위적으로 편입시키려는 입장을 견지하는가. 예술인의 활동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과를 내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술인들의 활동에 물리적인 시간을 설정하여 정량화해서 행정의 기준을 만족해야만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 초기부터 늘 어렵고 개선을 바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행정기관의 예술 창작 지원 사업과 자칫 차별성이 없어질 수도 있어 우려된다. 물론 기업 및 기관과 예술가의 협업이라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풀지 못한 문제를 향한 반복된 지적도 눈에 띠었다. 기획사업의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타 사업 부문과 비슷한 형태로 변화해간다는 의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획사업의 활동 시기 및 기간

가장 많은 예술인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사안은 기획사업의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 가지 심도 있는 결과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본 사업의 특성은 예술이 기관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된다는 것인데, 기관에서 예술인들의 역할을 찾는 데 상당 시간 소요된다. 아무래도 제약사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더 다양한 시도와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해본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 기간 내에 워크숍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진행해야만 해서 참여자들이 단순히 체험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

김빠지는 소식을 먼저 전하자면 2020년까지는 활동 기간이 연장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의 전체

예산에 변화가 없는데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수가 줄어드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획사업 참여팀 중 19팀(52.8%)이 참여기업·기관과 추가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구두 또는 문서로 협의하였다고 한다. 물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상상보다도 더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기획사업을 무기로, 참여기업·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때부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활동기간을 넘어서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만큼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은 6개월이고, 우린 8개월이 필요하다. 2개월은 너희가 투자해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연속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도 눈에 띠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단에서 2019년 사업에 대한 연속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2년 단위의 지원 사업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만세!

열흘이라는 활동 시간 증빙의 문제

5년 동안 식지 않는 마법의 뜨거운 감자, 의무 활동 일수 10일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었다.

“10일 30시간이라는 제한이 왜 생겨났는지는 알지만, 이 속박이 매우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협업은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10일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불필요하게 만나는 일도 벌어졌다. 기획사업의 경우 두 달간 의무 활동 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은 매우 좋았다.”

“영상 편집의 경우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3~5회에 걸쳐서 작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완성하는 작업 환경이 될 수 없다. 작업 종류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동이 가능한 작업 시간과 횟수가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기획사업에서는 의무 활동 일수의 폭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업활동 및 개별활동 일수를 변경하고 전체 모임 등을 유도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10일 활동이 불필요한 제약을 만들고, 활동을 위한 활동을 만들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협업과 분업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과업을 분업의 개념에서 단순히 N분의 일로 나누어 진행한다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지닌 가능성과 매력을 반은 잃으리라 생각한다.

내년에는 기획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조금 더 유연해진 환경에서, 앞서 언급된 의견들처럼 더욱더 좋은 활동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자유도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활동 증빙 방식

“지난 사업과 비교해서 활동 과정 중 특이점은 날짜가 들어간 사진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활동 내용 중심의 사진 기록이 아닌 출석(참석한 예술인 중심의 인물사진)과도 같은 사진 기록이 사업 활동 기록에 있어 어떤 의미로 남는지는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용 사진으로만 봐서는 협업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없다.”

“활동 보고서 형식이 작업의 특성과 여러 상황을 고민했을 때 좀 더 편하고 자유로운 작업 노트의 성격을 지녔으면 어떠했을까. 예를 들면, 한 권의 책처럼 작업을 자유롭게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사진에 날짜가 찍히는
‘형식’의 변화는, 사진의 ‘내용’도 바꾸어 놓았다.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인 의심과 막연한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전한다.”

‘합리적 의심’과 ‘막연한 신뢰’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어떤 작업을 하든 내 작업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일은 어차피 필요하다. 활동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방식은 혁신적인
시스템이고 예술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달 10장의 활동
보고서는 예술인들의 자기 작업에 대한 성실함이며
동시에 자긍심의 한 표현이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작성하는 활동
보고서는 사회에 문화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아카이빙이 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공공은, 지원 사업은, 재단은, 재단의
직원은 어느 정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첫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일지는
대부분 읽는 재미가 있었다. 활동을 스케치로 제출한
예술가도 있었고, 활동 대상의 신원을 노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활동마다 참여한 인원들이 다 같이 손을
모은 사진을 첨부한 뒤 활동 내용을 소설처럼 기록한
예술가도 있었다. 재단 직원은 각자 매달 300개 이상의
활동 보고서를 읽는다. 참여 예술인은 매달 하나의
보고서를 쓴다. 주어진 형식을 넘어서는 아이디어가
예술인에게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욕심일까?

리더 예술인의 역할

새로움은 늘 혼란을 만든다. 새롭게 명명된
‘리더예술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리더예술인은 일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리더가 퍼실을 포함하여 참여예술인의 역할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니 그 두 개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리더예술인의 역할이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한다.”

“리더예술인의 역할이 퍼실리테이터와는 조금 다른
듯한데 닮아있다. 이 지점이 뭔가 애매하다. 조금
더 분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이 편중되다 보니 옆에서 볼 때
힘겨워하는 것 같았다. 보고서를 돌아가면서 쓸 수
없을까 생각했다.”

“...리더예술인은 매우 소모적인 일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퍼실리테이터가 도입되었던
두 번째 해에도 유사한 혼란이 있었다. 퍼실리테이터의
다양한 방식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퍼실리테이터를 추적 조사하여 그들의 방식을
자료화하고 공유했었다. 리더예술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행정적으로 리더를 지정하는 것과 별개로
각 팀에서 자신의 팀을 어떤 리더십으로 운영해
나아갈지 스스로 제안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팀은 ‘전문 경영인’처럼 사업 품질 관리,
소통, 행정만 전담하는 리더를 두고 운영하고, 또
다른 팀은 전체 회의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 처리는
균등하게 분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단은 자연스레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새롭게 기획사업에 참여하는
팀들에게 가능한 방식과 각각의 장단점을 담은 일종의
메뉴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기업·기관 관리

기대와 달리 기획사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에서도
기업·기관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했다.

“기관과 예술인들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함께 이번
사업을 계획했지만 어쨌든 기관의 대표가 시설의
책임자로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나 상상력은 사업장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맞춤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활동으로 작은
변화가 생기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 다만 우리는
재단의 경제적 후원을 받고 있고, 실질적·경제적
후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이 값진
노동으로 일궈낸 무형의 결과물을 온전히 인정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기업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
원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다. 협업사업
또는 다른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도 기업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또한, 기업·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업 종료를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공유되지 않으면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불평등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재단의 매뉴얼 마련과 공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담당자와 잘 조율한 기획이라도 변수는 있다.
기획사업 성격상 리더예술인이나 참여예술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기관 측에서 자신의
변경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서 더는 진행하지
않을 때 사업이 종료되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기업 측의 행위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예술인을 구제해주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중간에
기업이 잘못하더라도 미리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리더예술인에게 지나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기획사업의 성격 및 지원 방식

“1인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에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1인
기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범위를 넓혀준다면
지속적이고, 더 알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앞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면 예술인과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독특한 콘텐츠를 형성하여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업 종료
이후 그 시스템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술인의 부가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수익 사업에 대한 제한은
없다. 기업의 정의가 ‘영리를 얻기 위한 조직’이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기업의 문제를
예술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기업의 문제는 결국
돈으로 귀결된다. 기관이나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도
물론 관여할 수 있다. 명확하게 금지되지 않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은 모두 가능하다.
겁먹지 말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장르 예술인을 포함해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약은 때에 따라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결과물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기관의 니즈에서 조금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와 시각예술가는 정말 다른 직종인데, 종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는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곤 한다. 물론 참여 작가 중에 디자인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예술인의 역할이 정형화되면 위험하다.”

복수 장르 예술인의 구성은 재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디자이너와 시각예술가가 다른 직종임은 물론이고, 이 땅의 수많은 시각예술가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정의하는 것은 예술의 다양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일이다.

전문역량의 지원 필요성

컨설팅, 홍보 등 기획사업 진행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요청이 많이 눈에 띄었다.

“전문적인 멘토링을 통해 협업 활동의 전문화 추구, 기획사업의 구체적 방향, 리더예술인의 정확한 포지션 및 위치 확정, 기획 및 홍보, 제작을 위한 자금 확보 관련 교육 등이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전문적인 예술과 일상의 협업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홍보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이드 라인이라도 제시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중략) 협업 활동을 알차게 기획하고 수행했는데 많은 관객과 함께 그 결과를 나누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향후 사업에서는 현장 모니터링에 투입하는 역량을 참여 예술인들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기타 사업 운영 및 행정 관련

“다른 기획사업팀들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궁금한데 알 수 있는 채널이나 루트가 없다. 주변 예술인들 활동을 구경하긴 했는데 재단에서 공지해주었으면 한다.”

“사업 종료 후 활동기관에서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사업 참여기업·기관이나 유사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젝트 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나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

재단에서 참조해주었으면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은 예술활동증명이 쉽지 않다. 주변에 이 사업을 추천하여 예술활동증명을 제안했지만,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거나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하면 경력 없이 3~5년이 지나 예술활동증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출산하면 적어도 3년은 제대로 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경력 단절 여성 예술인을 위한 기회나 사업, 프로젝트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재단에서 꼭! 참조해주셨으면 한다. 예술활동증명 과정에서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경력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바로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

“모바일용 웹사이트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G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예술인으로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활동 증빙 방식은) 조금은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었다. 예술인 중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앱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정해진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다.”

천 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낀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지.

“협업하면서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에 모두 동감했다.”

가장 가슴 아팠던 문장으로 마무리를 대신해본다. 기획사업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예술, 공간을 풀어내다 필동2가 아키텍츠

올해 기획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필동2가 아키텍츠는 광주 봉선동에 짓고 있는 근린상가를 중심으로 예술인과 협업을 진행하였다. ‘인공간격’이라는 주제 아래 ‘역사를 품은 땅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완공 직전 특수한 현재를 골라 지역민과 공유’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았다. 예술인들은 단순히 클라이언트 의사에 따라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짓고 사람을 연구하는 필동2가 아키텍츠의 작업 방식이 흥미로워 함께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획사업을 통해 건축물 짓는 과정을 함께 살피며 ‘공간’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았다.

- 조경빈

(기업 대표, 필동2가 아키텍츠 건축사무소 소장, 이하 ‘조’)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일을 한다. 단순히 건축물 한 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도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 정현준

(리더예술인, 연극, 이하 ‘정’)

연극배우이자 연출 및 공연기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간을 해석한 결과물, ‘인공간격’

‘인공간격’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필동2가

아키텍츠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했는데

처음부터 결과물을 예측하고 시작하였다.

정 기획사업에 지원하면서 공간의 매력을 표현한 결과물을 필동2가 아키텍츠와 함께 만들고 싶었다. 조 소장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건축물을 짜어내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취향,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요소를 생각하고, 건축물을 지으며 사람을 연구하고 공간을 짓는 소장님의 방식이 흥미로웠다. 기획사업을 통해 ‘공간’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인공간격’이라는 명칭에는 인간이 맨땅에 성격을 갖는 공간을 만든다는 뜻을 담았다. 여기서 ‘간격’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건축물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사이 등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

필동2가 아키텍츠

건축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건축사무소로 서울 양재동에 있다. 단순히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맥락과 흐름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와 공간에 어울리는 설계를 지향한다. 2018년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는 기획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6층 규모의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예술인과 협업을 진행하였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필동2가 아키텍츠	기획사업	정현준(연극)	김은혜(영화), 김현진(연극), 우혜민(연극), 이영진(음악), 정찬영(연극)

이어가다: 사업의 연속과 확장

조 보통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완성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골조 공사가 끝나면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기지만, 우기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멈춰있어야 하는 시간에 그곳을 예술 활동을 펼칠 무대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정 그래서 결국 인공간격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격을 좁히자는 것도 반대로 늘리자는 것도 아니라 간격 자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실 간격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자꾸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논의 끝에 나온 의견이 ‘간격에 이야기를 채우자’는 것이었다. 건축물과 공간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해당 건축물을 활용하여 뮤직비디오를 촬영해 건축물이 주제이자 주인공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광주광역시 봉선동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봉선동의 의미와 삶의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도 만들었다.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정 큰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 주변에서 저절로 관심을 둘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였다.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민원이 많았다. 그래서 주민에게 ‘당신은 누구인지’ 질문하며 다가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주민들은 봉선동을 이른바 ‘죽은 동네’라고 많이들 언급했다.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동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단순히 집값이나 상권 형성 등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다가갔더니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독특했다. 그는 봉선동이 가진 가능성을 보았다. 광주는 오래된 도시고 여러 지구가 번갈아 가며 활성화된다. 최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세워지며 구시가지와 주변 위성도시들이 변화했다.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구시가지를 살리는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함께하며 그 결과물이





정현준 리더예술인, 필동2가 아키텍츠 조경빈 소장

훗날 뒤돌아볼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클라이언트도 흥미로워했다.

기업 대표이자 건축가로서 이번 협업에서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조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한정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을 만나니 대화의 주제가 다양했다. 각자의 관점에서 건축물과 공간을 보고 이야기하는 점이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사용하는 어휘부터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정현준 리더예술인은 연극 예술인인데, 연극이나 뮤지컬을 만드는 과정이 건축물을 짓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건축물을 바라보고 대화가 오간다는 것이 흥미로웠고, 나 자신에게도 건축물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건축도 하나의 예술에 속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어 좋았다.



‘인공간격’ 프로젝트

새롭게 찾은 가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필동2가 아키텍츠와 정현준 리더예술인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만나 올해는 기획사업으로 함께하였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자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

정 작년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 만나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 실제 진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각자 사용하는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노력이 필요했다. 기업 관계자와 예술인 사이에 표현의 방식이 달라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풀어간 적도 있다. 그런데 올해는 기획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계획해둘 수 있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술인들이 해보고 싶었던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주변 주민을 더 많이 만나고, 클라이언트와 건축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조 기업 입장에서는 기획사업에 참여하면서 계획서를 같이 만들며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었다. 결과물도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고, 과정도 매끄러웠다. 공모사업의 경우 결과물에 대해 열려있다 보니 반대로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본인이 지은 건축물을 주제로 예술인이 만든 또 다른 창작물을 보고
있노라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조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 건축물을 다 지으면
건축사진작가에게 의뢰한다. 건축물이 올라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설계사무소에 보통 익숙한 뷰가 있는데 건축사진작가에게 맡기면
건축가의 시선과는 또 다른 장면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건축사진작가에게 의뢰한다. 예술인과의 작업에서도
건축물에 대해 기준에 접하지 못했던 다른 시점을 얻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정 협업 과정에서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결과물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다. 예술인들이 쓴 글이나 그 과정을 소장님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다. 그러니 예술인들도 건축물이나
건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었다.
반대로 소장님은 예술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안하셨다.
'예술활동증명'이라는 틀이 없어도 필동2가 아키텍츠 소장님은
충분히 예술가라고 예술인 모두 생각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나 결과가 건축물을 짓고자
찾아오는 클라이언트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이 되나.

조 물론이다. 공간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진, 영상, 도면 등
무엇이든 좋고, 전부 필요하다. 특히 영상은 일반적으로 만들기
어려우니 이번 기회를 통해 제작한 영상이 앞으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데 많은 힘이 될 것 같다. 건축물이 단순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와 비장애, 소통과 협업 [아티]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브랜드 아티는 기획사업으로 올해 처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제작해온 아티는 여러 장르의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함께 티셔츠 제작, 영상 및 음원 제작, 가방 디자인, 디스플레이 용품 제작, 마케팅 리서치 활동 등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아티타임, 파티타임’이라는 전시 형태의 파티 모임을 통해 이러한 협업의 결과물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기획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예술인 스스로 자신이 예술인임을 먼저 증명하여 확인받고,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공고가 올라오면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한 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기업·기관과 매칭되는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올해 함께 협업할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협업 상대를 만나기까지의 지원, 매칭 과정은 짧지 않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업을 함께하고 싶은 구성원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작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이 예술인 복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술인 자신의 작업으로 이어지고 활용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과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직접 지원서를 작성하고 공개된 자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과의 그룹 면접을 거쳐 선발되는 절차는 때에 따라 장애가 있는 예술인에게 시도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예술인 본인이 탁월한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 누구 못지않은 예술적 깊이와 노력을 증명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선발 과정에 함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기획사업으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한 ‘아티’ 팀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술인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상태에서 팀을 꾸릴 수 있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기획사업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이와 같은 한계를 훌륭히 극복해냈다.

아티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활용한 아트 상품을 개발하고 장애 아티스트를 교육하며, 예술인과 여러 협업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장애·비장애 아티스트 그리고 다양한 예술적 관점을 지닌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콘텐츠를 디자인, 제작하고 이를 전시, 발표, 판매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아티	기획사업	김지수(미술)	김명규(음악), 문춘선(미술), 이태용(미술), 정경화(미술), 한부열(미술)

만들다: 또 다른 가능성 찾기



아티 황교준 대표, 한부열·김명규(위) 참여예술인, 김지수(아래) 리더예술인, 문춘선·정경화 참여예술인

아티타임, 파티타임

여섯 명의 예술인과 팀을 이룬 아티는 패션과 그래픽 작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예술가인 척하다’라는 뜻의 ‘arty’에 t를 하나 덧붙인 아티(ARTTY)는 이름처럼 예술가의 작업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다. 아티가 예술가와 컬래버레이션하고 그것을 확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김지수 리더예술인이 다른 예술인들을 모았고, 다양한 예술인이 모인 만큼 협업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기획을 시도할 수 있었다. 또한, 자폐성 장애가 있는 한부열 예술인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주제를 확장하여 장애 예술과 소통, 장애 예술 그 자체를 주제로 하는 협업도 함께해볼 수 있었다.

다양한 예술가가 모이다 보니 아티와의 협업도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아티는 예술인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술인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과 협업할 여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예술인들은 오브제를 활용한 가방 같은 새로운 상품



한부열x황교준 티셔츠 제작 및 판매



'아티타임, 파티타임' 행사 현장



'아티타임, 파티타임'에서 선보인 이태용x김지수 작업



타오바오 런칭 라이브 방송 중 진행한 한부열 참여예술인의 라이브 드로잉

개발을 시도하기도 하고, 오브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품을 진열할 때 무대와 마케팅을 변형하는 키네틱 작업도 하였다. 시각 작업을 하는 한부열 참여예술인의 작업은 아티의 상품으로 그래픽화되었고 활동 막바지에는 이 모든 협업 과정을 모아 '아티타임, 파티타임'이라는 행사로 기획하여 결과물을 전시하고 파티를 진행하였다. 특히 '아티타임, 파티타임'에서 진행된 김명규 참여예술인과 한부열 참여예술인의 협업 퍼포먼스는 한부열 참여예술인의 라이브 드로잉이 물리적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행된 컬래버레이션으로, 전혀 다른 장르의 두 예술인이 퍼포먼스 작업을 만들어낸 사례가 되었다.

장애와 비장애, 예술과 협업

아티와 함께한 이번 협업에서 모든 예술인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점은 협업을 통해 장애와 소통에 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애가 간혹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조심스레 헤쳐나가면 그곳에는 다른 예술인의 순수한 예술성과 열정이 있으니 이렇게 소통함으로써 서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김지수 리더예술인은 "내가 벽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벽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양한 예술인이 모였을 때 누군가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가 상대를 받아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닌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아티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인들은 여러 장애 아티스트의 작품을 만났고 예술인 저마다 홀로 작업하던 것을 넘어서 작업의 세계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었다.

장애 예술과 함께함으로써 예술인들은 소통과 장애, 비장애에 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황교준 아티 대표는 장애 예술인도 비장애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까워지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작업 세계를 나눌 수 있음을 언급했다. 장애가 예술에서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사업으로 아티에 모인 예술인들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더 많은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왔다.

새로운 모델을 만드다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

도시에는 시대의 생활과 양식을 반영한 수많은 건축물이 있다. 그중 일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공공에서 관리되지만, 대다수 건물은 시간 속에서 사라져간다. 특히 경제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던 시대를 지나며 근대의 건조물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쉽게 사라졌다. 근래 들어 이 시기 건조물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으나 쉽게 소비되거나 무분별하게 개조되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재생공방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예술인과 협업하여 지역의 자산과 가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카이브 하고자 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의 방향을 공공에 제안하고 시민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기획사업을 찾게 되었다. 인천 구도심 신흥동을 중심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 건축물을 예술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그들의 시간을 들여다본다.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

건축작업 중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오래된 건축자산, 벼려진 빙집, 골목 안쪽 활용이 어려운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참여기업	사업유형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	기획사업	오석근(미술)	고경표(미술), 김수환(미술), 노기훈(사진)

- 이의중

(기업 대표, 건축재생공방 대표, 이하 '이')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인천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여 지역 사람들과 자원을 활용해 협업하면 지역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기획사업에 지원했다. 이전부터 인천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오석근 작가를 리더예술인으로 하여 팀을 꾸렸다.

- 오석근

(리더예술인, 미술, 이하 '오')

건축재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 건축재생공방에 기획사업을 제안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모으면 더 쉽고 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기획사업이다 보니 멀리 있는 풀 안에서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술인이 가장 재미있게 활동할 기업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 고경표

(참여예술인, 미술, 이하 '고')

독립 큐레이터이자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의중 대표와 인천 내항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했다. 그때 인천 원도심 이슈에 주목하면서 서로의 관심사와 일의 합이 잘 맞아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 김수환

(참여예술인, 미술, 이하 '김')

시각예술가로 페인팅,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홍보물 등을 작업한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한 인천 구도심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 2년 전부터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과 멀어져 관광객처럼 오가며 오히려 이곳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 노기훈

(참여예술인, 사진, 이하 '노')

사진, 영상, 미디어 관련 작업을 한다. 지하철 1호선을 따라가며 사진을 찍는 기록 작업을 했고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면서 인천의 지역적 맥락에 관심이 갔다. 인천 사람들의 정체성 예를 들어, 지역에 관한 자부심, 억제된 욕망, 서울에 자장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콤플렉스 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시설이나 건축물을 생명체로 보았을 때, 유기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라지는 데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노기훈·김수환 참여예술인,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대표, 고경표 참여예술인, 오석근 리더예술인

새로운 도시 연구조사 모델의 가능성

기획사업은 기존 공모사업과는 다르게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함께 주제를 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제가 인천 지역의 아카이빙인데 어떤 기준으로 예술인을 구성하였는지 궁금하다.

오 인천 구도심의 지역적 가치를 알리고 건축재생공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김수환 예술인은 기록 드로잉을 잘하고 웹 플랫폼도 만들 수 있다. 고경표 예술인은 역사박물관 연구자 경력이 있어 지역 역사, 아카이브 작업, 구술사 자료 정리, 연구조사 등에 특출나다. 노기훈 예술인은 일반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항공·드론 촬영도 가능한 사람이라 도시를 다른 시점으로 보여주며 가치를 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안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도시의 가치나 의미를 같이 찾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도 많이 만나게 됐다. 원도심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는 조은성 감독(현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에서 퍼실리테이터 활동 중)이나 일본의 유스케 작가 등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서로의 관계망이 확장되고 도시의 가치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많이 생겨서, 그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시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구체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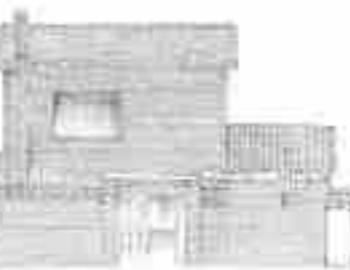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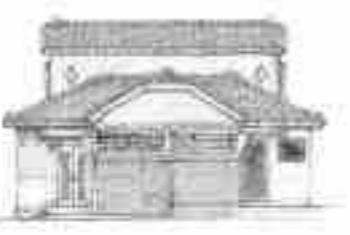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듣고 싶다.

오 초반에는 건축재생공방과 인천 신흥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연구 및 기록 작업을 했다. 어떤 마을에 대해 역사적, 건축적 측면을 공유하고 발견하며 쌓는 기록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기업과 예술인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함께 연구 작업하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도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파생된 모든 결과는 모두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도시 및 마을 연구조사는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거나 특정 용역업체에서 한다. 이번 기획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사는 예술인이 기업과 함께 기록하고 연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아카이빙 대상으로 신흥동 지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 기획사업 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신흥동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있었다. 용적률이 되지 않는 공간에 2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다. 아파트가 생기면 그 뒤편 가옥에 사는 사람들의 일조권이나 생활권이 방해받게 된다. 인천에서 이렇게 논의나 충분한 합의 없이 하루아침에 동네가 사라진 전례가 몇 번 있었고 신흥동의 가치에 다들 공감하고 있었기에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기로 다들 뜻을 모았다.

오 해당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부윤관사는 다행히 인천시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 활동의 큰 보람이다.



김수환, 신흥동 건축물 드로잉

사업 초반에 신흥동 지역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면, 사업 후반부로 오면서 건축재생공방 브랜딩에 힘쓰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 ‘건축재생’이라는 표현이 근래 많이 오염되었다. 그러므로 건축재생공방에서 이야기하는 건축재생의 정의를 알리고, 건축재생공방을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시를 기록할 때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텐데 건축재생공방과 예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오 아무래도 지역의 역사와 가치다. 행정가들은 건축의 가치나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오래된 동네는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니 가치를 발굴하고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축가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축물인지 파악하고, 연구자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 변해갔는지 살펴보고, 시각작가는 여기서 다양한 층위를 발견해서 시각언어로 표현한다. 건축재생의 의미와 함께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전문가들이 기록하고 알리는 과정이었다.

고 인천만 하더라도 서울과는 상황이 다르다. 서울에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도 많고 내용도 많이 알려졌지만, 인천은



노기훈, 신흥동 건축물 외부 사진

관광지화되거나 반대로 아직 알려지지 않아 방치된 곳이 많다. 주목받지 못한 가치나 역사성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할 수 있었다.

오 결국 도시 정책, 정체성과 맞물리는 이야기다. 인천에서의 삶이 어땠으면 한다는 즉, 삶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다. 단순히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고쳐 쓴다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부족하다. 있는 것을 보존하고 고쳐 쓰면서 축적된 결과를 미래로 연결하는 게 건축재생의 정의다. 지역에 이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사회에 있다 보면 주변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아 더 성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일을 크게 확대하고 싶어도 재원이나 자원이 부족해서 제한되는 것이 지역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같이할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 인력, 공간 등 지역적(로컬) 자원이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이뤄지면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지역형 작가·기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앞서 오석근 리더예술인이 언급했듯, 지역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일은 특정 일부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계속하던 곳에서 관례처럼 성의 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을 기록할 때 그곳을 가치 있고 매력적인 곳으로 기억하려면 다양한 시각과 결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역에 애정을 갖고 사는 작가가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사업은 기업의 단기적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 두고 같이 성장할 자양분을 쌓는 과정으로 생각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신흥동에 가서 기록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인천시의원부터 인천도시공사 본부장, 인천시립박물관장, 도시역사관장 등 한자리에서 다 만나게 되더라. 실제로 도시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일이 이처럼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 다 같이 느꼈을 것 같다.

보람찬 협업을 향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서 프로젝트 결과 이외에 개인적으로 얻은 성취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예술인의 작업 방식이나 결과물이 다양해 사물이나 도시를 볼 때 남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놀라웠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일종의 힌트를 얻은 것 같다. 주어진 상황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목표를 너무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해야겠다고 느꼈다. 어쩌면 이 점이 지역에서 살아남는 기업의 태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노 다양한 팀원이 여러 파트에서 함께하니까 하나의 대상에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리서치 활동 자체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넓혀주어 작가로서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 개인적으로 잠시 잊고 있던 추억을 되살리게 되었다. 또한, 건축가와 밀접하게 작업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의중 대표와 작업하면서 건축물에 관해 많이 배웠다. 지나가다 훑깃 보던 건물도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형성되는지 알게 되는 등 건축사의 측면에서 건축물 보는 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고 작가들이 굉장히 성실해서 이들과 마라톤 하는 것처럼 꾸준히 호흡을 맞춰나가며 일하는 방식을 배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이 더 고민이고 더 큰 숙제 같다. 책이나 전시 이외에 이 기록을 더 잘 알리거나 보여줄 방법을 찾고 싶은데 한계가 느껴진다. 대중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가 어려워 돌파구를 고민하고 있다.

이 한마디 보태자면, 민간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 거점이 생겼으면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자연스럽게 지원해주고, 모으고, 디지털화도 해주고, 그런 곳이 생기면 자료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노기훈, 신흥동 건축물 외부 사진



노기훈, 신흥동 드론 영상



오석근, 신흥동 건축물 내부 사진

이전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인도 있다.
기존의 공모사업과 이번 기획사업은 어떤 점에서 달랐는지
소회를 듣고 싶다.

노 처음에 기획사업 참여를 제안받았을 때 단박에 대답하지 못했다. 이전에 영업 이익에 목표를 둔 기업과 협업한 적이 있다. 그때는 협업 자체가 피로하고 기업과의 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영리적 성격의 프로젝트라 함께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몸통 같은 플랫폼을 구축하면 팔다리가 뻗어 나가듯 확장되어서 다양한 기업·기관이 좋은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김 기획사업이 아니라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통 공모사업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바가 특정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개는 프로젝트가 기업 위주로 돌아간다. 이번 경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실현하는 데 속도가 훨씬 빨랐다.

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초기에는 퍼실리레이터가 기업·기관을 섭외할 수 있었다. 그때 기업의 니즈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프로젝트를 구축했더니 재미있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매칭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업·기관과 예술인이 서로 이해하고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너무 지난하게 진행된 것 같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자체가 예술인의 환경을 바꾸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텐데 점점 예술인의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변질하는 것 같아 회의적으로 느낀 때도 있었다. 기획사업은 초기의 사업 취지, 곧 예술가치 확산에 좀 더 가까운 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초기부터 여러 모델로 분리해서 진행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다. 참여하는 기업의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어딘가는 전략적으로 기획사업 형태로 하고 또 다른 어딘가는 복지의 개념이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는 등 사업을 더 세분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오석근, 신흥동 건축물 내부 사진

노 또한, 예술인도 이 사업에 참여할 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신의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면서 갈등과 충돌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인도 있는 것 같다.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의 성장 또한 이 사업의 취지로 이해하고 자신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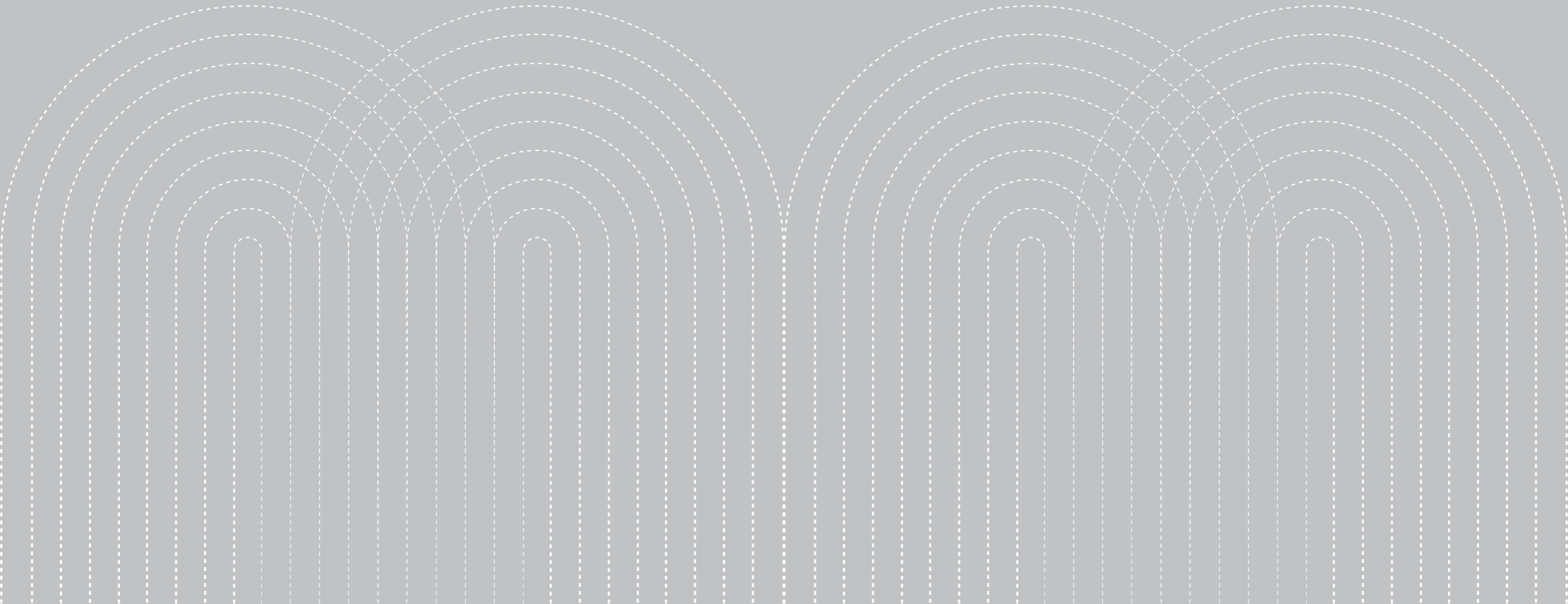
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자체를 올해 처음 알게 되어 이전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옆에서 지켜보니, 예술인들이 기간 내 특정 시간 활동했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열심히 찍던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고안되면 좋을 것 같다. 작업하다 보면 작업량이 많을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어서 전체 활동 시간을 프로젝트 기간 중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188~189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路(로) 현황 통계

190~198

매칭 일람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路(로) 현황 통계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에 총 1,001명의 예술인 및 207개 기업·기관·마을이 참여하였다.

구분	공모사업	협업사업	기획사업	합계
퍼실리레이터(리더예술인)	124명	48명	36명	208명
참여예술인	536명	118명	139명	793명
기업·기관·마을	124개	47개	36개	207개

사업에 참여한 퍼실리레이터(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의 성별, 연령별, 장르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	(단위: 명)			(단위: 명)								
	구분	남	여	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퍼실리레이터(리더예술인)	90	118	208		퍼실리레이터(리더예술인)	4	108	81	13	2	-	208
참여예술인	316	477	793		참여예술인	94	497	171	28	3	-	793
합계	406	595	1,001		합계	98	605	252	41	5	-	1,001
백분율(%)	40.6	59.4	100.0		백분율(%)	9.8	60.4	25.2	4.1	0.5	-	100.0

(단위: 명)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퍼실리레이터(리더예술인)	16	78	8	-	17	6	5	40	28	6
참여예술인	41	321	22	1	71	11	37	186	78	18
합계	57	399	30	1	88	17	42	226	106	24
백분율(%)	5.7	39.8	3.0	0.1	8.8	1.7	4.2	22.6	10.6	2.4
										1.1
										100.0

사업에 참여한 기업·기관의 유형별, 업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협업 농협사업 제외)

유형별			
구분	유형	개수(개)	분포(%)
기업	대기업	6	3.6
	중견기업	1	0.6
	중소기업	33	19.7
	1인기업	20	12.0
	기타	25	15.0
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17	10.2
	문화예술 관련	25	15.0
	사회복지·의료기관	13	7.8
	기타	27	16.1
합계		167	100.0

업종별					
유형	개수(개)	분포(%)	유형	개수(개)	분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	17.4	숙박 및 음식점업	11	6.6
기타	26	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	3.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10.2	부동산업 및 임대업	5	3.0
교육서비스	15	9.0	공공행정·국방 및 서비스업	4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	8.4	건설업	2	1.1
도매 및 소매업	13	7.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	1.1
제조업	12	7.2	금융 및 보험업	1	0.6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1	6.6	합계	167	100.0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路(로)
참여기업·기관·마을 및 예술인

매칭 일람

공모사업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1	(사)녹색교육센터	유혜인	강수연, 기푸름, 민경희, 신유현
2	(사)생명의숲국민운동	박형근	김지연, 손배영, 정진미, 흥혜진
3	(사)한강학술문화교류네트워크	김상규	김건희, 김동혁, 나미나, 이소정
4	(주)다담커뮤니케이션즈	안종민	김종명, 박은주, 천정하, 최영도
5	(주)도서출판작은책	허상례	김재형, 장현정, 장혜원, 홍은애
6	(주)돈티비	신미정	김연재, 임영우, 한재용, 황두하
7	(주)마누파ーム	정은혜	김영진, 박진솔, 송기두, 송세진, 양영신, 양정모
8	(주)붉다	조숙현	김나현, 김민중, 김찬우, 문학진, 이승은, 조미예
9	(주)세정	김유진	김가람, 염상애, 이수진, 이지선, 최윤호
10	(주)우리술	신하정	김나래, 김택규, 윤진실, 임진세, 황도연
11	(주)유쾌한	서요한	김선동, 양은영, 이경미, 최경아
12	(주)코오롱	박준하	김승택, 양은혜, 이설애, 조해영
13	(주)티테크이앤씨	김영미	권주하, 김현성, 박준석, 허지행
14	(주)호밀밭	허윤정	강현민, 김상민, 이대한, 정혜숙
15	PAAP	정진화	김지혜, 이다솔, 이태석
16	강원문화발전소협동조합	김미남	박대순, 손영은, 이재현, 이정옥
17	강원인재육성재단	양재광	김우진, 김윤정, 안명호, 조혜진
18	강화여성의전화	권설틴	김이삭, 박주연, 양이배, 전보람
19	개똥이네문화놀이터	권우정	박선영, 안미선, 장윤실, 전서연, 한겨레
20	갱도	성수연	배선희, 이강아, 조영민, 최정문, 한윤미, 허철주
21	공간 듬	박지한	김경은, 김문선, 안상훈, 이정은
22	공간 음팡	이정현	김나영, 안용해, 오금숙, 이소희
23	과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윤영욱	박현지, 우진우, 유수미, 조수정
24	과천중앙고등학교	정기훈	김병준, 박해선, 정순주, 표영은
25	광명기독교청년회	김형관	강희수, 안경진, 윤혜진, 최성균
26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김은정	이정희, 최종룡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27	구하라담비	김형범	강현구, 강훈구, 김미애, 김지현, 박희주
28	국립중앙박물관	김민지	신채경, 이성준, 이현지, 정유미
29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이요안나	김수진, 김지원, 민지혜, 심은정
30	노들장애인야학	최은혜	김제형, 송민우, 임진희, 조세영
31	녹색연합	이현주	강신혜, 우민정, 이지수, 최희정
32	대명여울빛거리상인회	한주희	길덕호, 신지영, 이근준, 이한서
33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김비	김선영, 박지연, 박지형, 전찬영
34	더플래닛	황혜신	김두영, 배지연, 조아라, 지근우
35	리미티드블루	조성호	강민지, 박시현, 이승희
36	리스페이스(RESPACE)	이수정	김현영, 오창동, 최윤희, 최초아
37	마을과집한국사회주택협동조합	이미정	박혜진, 양윤화, 윤정로, 정가윤, 최송화
38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정명우	손주영, 송민정, 오희원, 임승택
39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진영	라정인, 박수현, 윤이나, 허승화
40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김정혜	신은희, 윤나리, 은종훈, 이다해, 전귀언
41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최은숙	김용현, 김채린, 이해련, 최예슬
42	메이븐커피	진혜원	김건일, 김형진, 유명훈, 허정이
43	목요일공방	고윤후	김은숙, 두연주, 송민철, 차민엽
44	문화예술협동조합아이야	원태웅	구시연, 엄태준, 이선영, 최양선
45	복합문화공간 야시시	정희영	강효정, 김기태, 김준호, 이경조
46	블루닷	이은아	강대진, 김리아, 노제현, 손혜경
47	사단법인 공감인	전성현	김혜영, 백주희, 윤수향, 임금님
48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조혜령	김동석, 서민정, 서성훈, 이동엽, 전보배
49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박하늘	강희진, 손은지, 여선화, 이정희
50	사단법인 자문밖문화포럼	임정희	김진, 박승원, 유성진, 정은송
51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	신지선	김덕환, 오희정, 피리라, 하민희
52	사단법인 허임기념사업회	박선영	강인대, 문남규, 안영주, 이승용, 전혜윤, 황재희
53	사단법인구로시민센터	배유리	강은정, 김보람, 염기현, 장혜진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54	사단법인엠씨에프	최명주	박유영, 장우석
55	사진공간 배다리	정용덕	김송일, 김현호, 문지혜, 이정민
56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심명진	김동훈, 김진유, 최상아
57	서울시설공단	박정혜	박정인, 이승찬, 현남
58	서울시설공단	정한나	강현우, 곽혜은, 김보은, 심아빈, 이윤신
59	서울일반노동조합	윤형근	김성재, 이지영, 이진희, 장윤미, 정유하, 최보영
60	서울프린팅	조경재	이성준, 이승주, 임선구, 전은숙
61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보람	김나경, 김선기, 심우섭, 이인의, 이재홍, 최영환
62	서초문화재단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신영섭	권진희, 김경순, 김인영, 이지은, 이현주, 정지은
63	선유마을 재활용 공작단(선유문화공방)	유병덕	김정변지, 김혜나, 김호성, 박소연
64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잔디	김경인, 박성진, 윤성일, 이계원
65	성미산문화협동조합	김슬기	강정아, 송주호, 이지숙, 최서윤
66	세계술문화박물관	유용성	김라연, 임미나, 차화섭
67	손과얼굴	황수현	윤자영, 이인강, 이해진, 임유정
68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두진	민광숙, 박병호, 신희무, 안현선, 이윤정, 장윤희
69	스튜디오 멜랑꼴리	금잔디	문용일, 박정희, 염소진, 조성욱
70	스페이스 빔	이호진	김성수, 박준석, 임진순
71	시흥에코센터	최정수	권순미, 유현주, 정경미, 정영신
72	아름다운재단	정원연	김혜움, 이한나, 이희경, 진형민
73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강화정	AMARI MIHO, 길서영, 이찬욱, 장수영, 추유선
74	아트버스킹	하수민	김유미, 김정남, 오경선, 유은지, 윤풀름, 정의석
75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정재민	박은하, 서소형, 안진우, 전혜주
76	안티카	김혜원	김유진, 박송이, 신승은, 신혜정, 윤혜진
77	앤디오 주식회사	김시연	박영, 손나예, 윤찬목, 이송이, 이은영, 정효정
78	앨리	전보형	신희준, 유희선, 이소정, 장덕래, 정용희, 지혜원
79	에버그린팝스 오케스트라	정원기	강예은, 백승서, 이명신, 장진수
80	에이씨씨프로젝트협동조합	손상민	권성옥, 박은혜, 신근영, 안효찬, 정지현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81	에이플레닛	장영원	김지영, 우혜지, 이강준, 정기엽, 허선영, 황선정
82	에코샵홀씨	조성원	김홍근, 박현진, 서지현, 성필하, 송지인, 안광노
83	오픈아트	박선옥	김소은, 서상현, 손진영, 이강인, 조정현
84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정은주	김덕원, 박순영, 신웅, 흥재희
85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임순옥	김진국, 신혜경, 양우창, 홍정희
86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사운택	곽은미, 곽한울, 김윤호, 원을미, 표현우
87	유한회사 자연과별가평천문대	이혁종	김지영, 이나경, 이수경, 이지
88	은파산업	김화용	고재욱, 윤수희, 조혜진, 홍민기
89	자큰북스	김정민	강현석, 고명희, 김태결, 오의택
90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서호연	신수연, 신형식, 이민경, 정민지
91	재단법인 여해와함께	천휘재	우혜민, 이원영, 채충명, 한정은
92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조은성	고진이, 유광식, 조경아, 황선화
93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홍은경	박다예, 조광희, 한지아, 허왕정
94	제주 자락	장유권	목정훈, 박설아, 이지연, 최바람, 활동규
95	주식회사 네오위즈	이지연	감승민, 김양지, 이수윤, 정성택
96	주식회사 메디아이플러스	정미진	신재은, 이동수, 이상학, 최유영
97	주식회사 보노보씨	박민수	김윤하, 이예지, 이우동, 조혜주
98	주식회사 브로콜리픽쳐스	박용재	강지숙, 김재욱, 윤미연, 조연희, 최종구
99	주식회사 비어포트브로이	황동윤	김수진, 성태향, 신현재, 윤상필, 최은해
100	주식회사 인아크	박고은	김현진, 유주리, 최효원, 한지훈, 허주혜
101	주식회사 피스앤파스	윤하얀	김보배, 도성일, 박미옥, 이정주, 이현희
102	주식회사메타로그아트서비스	김다정	김주성, 이소의, 정현석, 허니영
103	주식회사사진방	박지영	김여진, 문해주, 정연주, 허성, 황설하
104	주업커뮤니티센터	송숙희	박문아, 서정애, 윤상은, 전형숙
105	종소기업중앙회	강수경	박소연, 송호철, 오건훈, 허선정
1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혜수	양경열, 정윤선, 조은하, 흥유경
107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임현진	권수경, 김한솔, 이예슬, 한선경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108	진주시민디미어센터	문승영	김장영, 정진경
109	책방, 국자와주걱	최연정	김영빈, 김태욱, 이성권, 이송이, 이현정
110	책인감	김준성	김영록, 김지예, 박은영, 황정원
111	청색종이	왕희정	강래오, 나현정, 서유진, 소종민, 이향안
112	초롱이네도서관	조송주	김성재, 김윤섭, 신용재, 이길한, 최재영
113	추억극장 미림	김푸르나	김기범, 김은선, 윤대희, 이성재, 장시연, 허새롬
114	카페 보스토크	김태덕	TAMURA RYO, 강예솔, 유현정, 장일수, 조의주, 최정선
115	크리에이티브필	이혜정	박새라, 박소영, 이관현, 정연
116	티엔지컴퍼니	신선영	김우중, 박미라, 오은희, 이수진
117	파주나비나라박물관	김은희	김원진, 박예진, 서정배, 한정원
118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오지원	김민정, 김유경, 송광찬, 신선우, 이소연, 정성훈
119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정현진	고윤정, 이다은, 이미화, 조수경
120	한국마사회	정희성	김은혜, 박정하
121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조은비	김문경, 김태원, 손현준, 이재혁
122	한스피크(HanSpeak)	권아람	박지은, 양준화, 옥민아, 한석훈
123	함께나눔 큰나무	조예환	박성진, 이동주, 장재원, 정나원
124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이선진	김미래, 이미보, 이춘남, 임정향

협업사업			
농협중앙회 연계			
순번	마을명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1	가파마을	이수정	박용화, 이자연
2	갯벌노을마을	한동석	김석이, 황민규
3	고추장익는마을	윤일석	박성수, 전준모
4	구병리마을	정혜연	구소영, 류민아
5	금곡마을	임용현	김승희, 양길호
6	깐치멀마을	이연숙	김도영, 이육남
7	꽃내미풀꽃이랑마을	한민서	곽태영, 정우순, 조성우
8	녹향월촌마을	이수빈	이광용, 장자인
9	달산1리마을	송민숙	강현준, 김주리
10	달오름마을	김진영	박성애, 손경수
11	대티골마을	권은미	이지수, 정승혜
12	두메송하마을	이창훈	김신영, 김혜영
13	둔울울갱이마을	윤교석	공미선, 박경수
14	마암터마을	정민교	김원의, 송병걸, 이마리오
15	명하쪽빛마을	방승조	유영준, 이해인
16	무척산마을	이빛나	김청아, 김현
17	물레방아떡마을	차병호	김은비, 나광호
18	바람새마을	김영환	강경태, 김규희, 박지호
19	보련마을	김영경	유서연, 장영철, 한우리
20	빗돌배기마을	하광석	남광우, 유혜린
21	빙기실마을	정지영	구하나, 전강희
22	사재산마을	이준영	강장원, 임주미, 함혜정
23	삼돌이마을	오헤린	이창수
24	상백1리마을	김라연	박기림, 염다솔
25	서경들마을	황준형	박선희, 박찬호, 심지현

26	성당포구마을	김기분	고진영, 김보현
27	소똥령마을	송아영	김지현, 임기오
28	쌍정마을	신동준	이혜한, 흥예성
29	어농2리마을	양은실	김유리, 박재하, 홍철희
30	이슬촌마을	조광식	김자이, 손연우
31	인덕마을	김누리	김현기, 박종호
32	임실치즈마을	김예은	이동형, 전혜림
33	자드락마을	김혜이	이원식, 허다솜
34	자채방아마을	김윤미	김영국, 차경희, 황아름
35	점말마을	김완수	임지현, 최병덕, 변병준
36	청사초롱마을	김동형	안민환, 임오정
37	평지마을	김지영	신효섭, 홍혜진
38	포도마을	임남규	백승섭, 허석
39	하예하동마을	이가영	문성윤, 이치웅
40	한드미마을	변가영	양승주, 정윤경, 정은혜

워터웨이플러스 연계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1	워터웨이플러스	남주경	라성연, 윤채연, 이태경, 장순녀, 최정현, 황용주
2	워터웨이플러스 낙동강문화관	이선옥	김선화, 이봉미, 이지영, 정미형
3	워터웨이플러스 한강문화관	유재광	박승희, 손주황, 이진희, 전혜선

지역문화진흥원 여가친화기업 연계			
순번	기업·기관명	퍼실리레이터	참여예술인
1	(주)지에스인스텍	백선희	구휘, 김남석, 박찬율
2	(주)호텔롯데 롯데리조트	김범준	김명규, 문규철, 오경훈, 함혜경
3	롯데쇼핑(주)전주점	이우상	김판목, 문창환, 백상옥, 서완호, 유지원, 이권중
4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김제현	박현미, 서동일, 이선연, 이진봉

기획사업			
순번	기업·기관명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1	7번출구	손승범	김소연, 오영은, 오종원, 최현정
2	강남장애인복지관	김현정	윤아름, 임보영, 피경지
3	건축연구소샘	허연화	김한나, 이성규, 조은지
4	고양어린이박물관	권연희	구수현, 권수지, 안민욱, 윤병운, 최보슬
5	교하도서관	조계향	김윤경, 김주환, 김형석, 오세나, 조슬기
6	굿바이카리싸이클링(주)	문정현	강세진, 김소희, 박도영, 이동열, 정일건
7	깨북	최제현	강중섭, 고기은, 김동길, 윤의진
8	나들목바하밥집	서영주	김지애, 염지희, 이병기, 황경현
9	늘장협동조합	박상덕	온현국, 이승훈, 이율리, 전진경, 한진식
10	대야미마을공동체	오성택	김영경, 김주희, 이환, 임범규, 최우성
11	대일건설(주)	임경섭	김지연, 박영균, 송주원, 이원호, 정정호
12	대전충남녹색연합	송부영	김보람, 남명옥, 허은선
13	더좋은종합건축	서민기	김민주, 김태현, 안지경
14	디지큐브	김은진	구자민, 이려진, 이호탁, 조윤영
15	무명서점	강지혜	윤상지, 이민형, 장보영
16	범숙학교	최승일	송명희, 이상호, 최명희
17	법무사 정순선 사무소	이미정	김허행, 한지인, 허주영, 홍해은
18	복촌탁구	김영옥	권송희, 심주영, 조성아
19	사단법인 청소년내질찾기	강지윤	김혜연, 박종일, 신혜진, 윤결, 정다경
20	송파구보건소	권효진	김대현, 박경린, 이정은, 현지예
21	스페이스셀	조인한	이유리, 전성권, 차미혜
22	아디	조진섭	서동실, 소준문, 정원석
23	아티	김지수	김명규, 문춘선, 이태용, 정경화, 한부열
24	아티스트 프루프	안정란	김태형, 손정민, 허윤경
25	에스더블유엠피	김기훈	김재영, 노승표, 서찬석, 이현지, 임수현
26	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남정애	김선우, 민홍선, 이미라, 임지민, 정광숙

27	웨일디지털	김영수	김민경, 이주리, 이태우, 정시우, 황아람
28	이라(ERA)	전민혁	김민지, 김서량, 이보람
29	장애여성네트워크	남경순	김진, 이은지, 제소라
30	재단법인홍합밸리	고대훈	김남령, 김만영, 이준우, 한석경
31	제이에이치글로브	김정민	손선경, 정고요나, 조하연, 홍윤경
32	주식회사 같다	윤여경	김주욱, 양선미, 유재중
33	주식회사 건축재생공방	오석근	고경표, 김수환, 노기훈
34	피자연합협동조합	황경하	윤가현, 진유경
35	필동2가 아키텍츠	정현준	김은혜, 김현진, 우혜민, 이영진, 정찬영
36	현대스텐	원재운	양승욱, 조아라, 주하림

2019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 사례집

<예술 하는 사이>

기획·운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팀장 강동현
 총괄 장하루
 운영 박아연, 김명선, 김민정

실행 케이스스터디

총괄 박경린
 편집 권효진, 장유진, 조형빈
 사진 김시종, 오창동
 영상 이민규

디자인 오래오스튜디오
 인쇄 청산인쇄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희섭
 편집인 정철
 발행일 2020.01

ISBN 979-11-967040-4-9 (136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T. 02-3668-0200
www.kawf.kr

본 사례집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